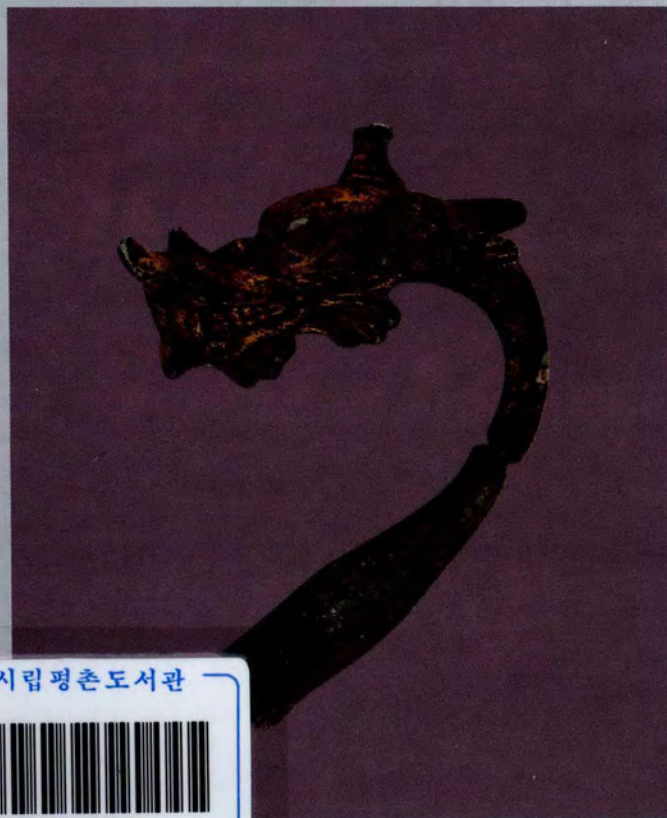


안양문화원 향토사료 제 1집

안양의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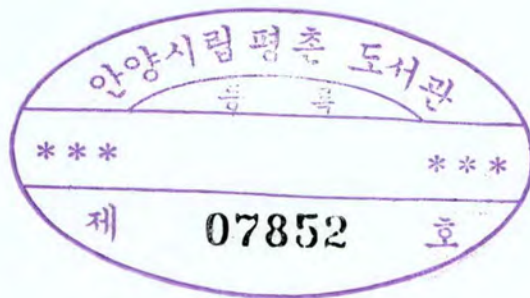


1998

안양문화원

칼
911.57
안630

안양의 역사와 문화



1998

안 양 문 화 원

간행사

현대 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행태는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흔들어 놓고 있다.

내고장 향촌의 문화예술 발전과 전통문화의 전승보존, 진정한 지방문화 창달의 뿌리를 찾고자 우리 안양문화원에서는 향토사료 조사 제1집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발간하게 되었다.



우리고장에 산재해 있는 많은 사찰, 서원, 사지, 민속유래 등을 연구 고찰 조사하여 향토사료집을 발간할 계획 아래 1차 삼성산의 사찰을 지표조사와 더불어 보고서를 내면서 향토사료 제1집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금년에는 안양의 사지를 조사 실측 발췌하여 제2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모든 문화사업이 그렇듯이 일거일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것이 문화사업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며 조상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조사 연구 기록한 이 한편의 책이 향토 문화교리 연구와 소중한 자료, 귀중한 문헌으로 보존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안양의 문화와 역사」가 발간되기 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조사연구에 노고를 해주신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경식 교수님과 편찬에 애써주신 모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간사를 갈음하는 바이다.

1998. 2. 28

안양문화원장 이 상 윤

차 례

刊行辭

I. 고 분	9
1. 비산동고분군	9
2. 안양사 뒤 석실분	12
II. 사 찰	39
1. 삼막사	39
2. 안양사	101
3. 연불암	125
4. 불성사	142
5. 반월암	161
6. 망월암	172
7. 망해암	183
III. 사 지	194
1. 중초사지	194
2. 장석광사지	205
3. 평화보육원 주변 사지	206
4. 불당골 사지	206
IV. 도요지	237
1. 불당골 도요지	237
V. 민 속	245
1. 수촌마을의 도당제	245
2. 석수동 쌍신제	252
3. 삼막골 느티나무제	261
4. 석수동 채석장 노동요	267

I. 고 분

1. 비산동 고분군

안양시 수도사업소 서쪽 등산로를 따라서 2기의 석실분이 존재하고 있다. 편의상 정상부에 있는 것을 1호(해발 150m), 밑에 있는 것을 2호(100m)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비산동 1호 석실분

(1) 조사전 상황 (사진 1)

안양시 수도사업소 서쪽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정상부에 헬기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 해발 1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석실분은 420cm×380cm×40cm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여 개석으로 삼았는데, 남벽이 파괴되어 내벽이 노출되어 이미 도굴된 무덤임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예비군호로 활용되면서 주위에 흩어져 있던 석재를 암반 위로 쌓아 원형을 상실하고 있었다. 또한 석실의 상면 남서쪽으로는 자연암반이 흐르고 있고, 석실의 내부에는 쓰레기와 낙엽 등으로 축적되어 있어 매몰되어 마치 쓰레기통을 연상케 하였다. 도굴갱으로 추정되는 남벽의 구멍을 통해 내벽의 일부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석실의 내부를 정리하고 남서쪽으로 흐르는 자연암반을 노출하면 석실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판단되어 누부에 축적된 쓰레기를 모두 걷어내어 석실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석실의 내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굴된 타인지 무덤과 관련된 유물은 한 점도 수습할 수 없었다.

(2) 조사후 상황 (사진 2~13, 도면 1·2)

석실은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개석으로 삼고, 암반 밑을 굴착하여 축조한 것으로 장축 방향은 북서 43도이다. 석실은 암반을 굴착하여 구축한 말각장방형으로 규모는 동서의 길이가 120cm, 남북 너비가 94cm이고, 높이는 서벽에서의 최고치가 140cm이다. 석실은 자연암반과 할석을 이용하여 내벽을 형성하였는데, 각 벽의 축조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벽은 30cm×9cm, 20cm×8cm, 14cm×5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엇갈림식으로 쌓고 석재와 석재사이에 쇠기돌 형식으로 잔돌과 점토를 보강하여 견고하게 구축하였다. 현재 18단 7열이 남아 있고, 개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겨있다. 벽면은 대부분 할석으로 이루어졌으나 남벽과 북벽에서 흐르고 있는 자연암반이 벽면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서벽의 북쪽 하단은 북벽에서 연장된 자연암반을 따라 석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암반 굴착시

생긴 틈에 석재를 구축하여 벽면을 편평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벽면의 구축은 북벽의 석재가 서벽의 석재에 물려 있는 것으로 보아 북벽을 먼저 쌓은 후 서벽을 구축하였다.

북벽은 현재 자연암반이 벽면의 중앙 부분을 형성하고, 암반 밑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서벽과 동벽의 벽선과 맞추어 구축하였다. 또한 자연암반의 상단 동벽과 맞닿는 곳에 석재가 쌓여있는데 이는 암반 상단에도 석재를 이용하여 벽면을 구축하였던 것이 파손되어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벽은 자연암반이 2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암반 아랫 부분에 구축된 석재가 남아 있으나 암반과 암반 사이에는 석재는 파손되고 벽면 구축시 보강토로 이용되었던 점토만 남아 있다. 또한, 북벽의 석재가 동벽의 석재에 물려 있고, 암반 상단에는 현재 개석에서 떨어져 나온 석재편들이 산란하게 흩어져 있다.

남벽은 조사전부터 노출되어 있었고, 근래에 인위적으로 쌓은 석재가 있었으나 이를 제거한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쪽 측면에 벽면의 일부가 남아 있고, 석벽 아래는 전반적으로 자연암반이 흐르고 있어 본래 자연 암반위에 벽면을 형성하였던 것이 파괴되었다. 또한 자연암반은 동쪽으로 치우쳐 석실 밖으로 길게 파여 있고, 하부는 관통되어 있어 본래 배수로로 활용되었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남벽의 하단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암반은 석실밖에 흐르고 있는 암반층과 연결되어 있다. 이 자연암반은 동서 폭 265cm, 남북 길이 460cm로 동·서편이 높고 중앙부분이 깊게 파져있다. 조사시 깊게 파진부분의 암반 사이에 P.V.C 파이프를 묻고 위에 편편한 석재가 덮여 있었는데, 이는 예비군참호를 구축하면서 기존의 배수시설에 파이프를 묻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의 바닥은 바닥돌이 없고 점토다짐을 한 것으로 보아 본래 암반층 위에 점토다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석실의 구성은 자연암반을 남쪽 능선쪽에서 하부를 굴착하여 공간을 확보하여 자연석으로 개석을 구성하고, 벽면은 자연암반과 할석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벽면의 구축은 먼저 북벽을 형성하고, 동·서벽을 쌓아온 후 남벽을 막아 석실을 만들었다. 또한 석실 남쪽으로 길게 뻗은 암반 사이로 배수로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비산동 2호 석실분

(1) 조사전 상황 (사진 14)

비산동 1호 석실분에서 남쪽으로 1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석실분은 1호분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만, 축조방법과 구조 면에서 다르다. 석실은 산책로가 개석 위로 개통되어 있고, 예비군 참호로 사용되어 개석의 측면과 개석밑으로 북벽과 동벽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다. 석실의 내부에는 낙엽과 흙이 매몰되어 있었다. 이같은 형상을 볼 때 이 역시 1호분과 마찬가지로 이미 도굴된 무덤으로 판단되었는데, 상면이 모두 파괴된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도굴이 자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의 상면을 관통하는 등산로를 우회시킨 후 개석을 노출시키고, 내부를 정리하여 석실의 전모를 밝힐수 있었다. 석실의 내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덤과 관련된 유물은 이미 도굴이 자행되어서 인지 한점도 수습할 수 없었다.

(2) 조사후 상황 (사진 15~24, 도면 3·4)

이 석실은 능선상에서 경사면을 이용하여 암갈색의 풍화암반층을 ㄴ자형으로 파고 축조한 남벽에 연도가 설치되어 있는 횡혈식석실분으로 장축의 방향이 정남북방향이다. 이 석실의 규모는 남북이 220cm, 동서 170cm이며 높이는 북벽의 최고치가 150cm이다. 개석은 동벽과 북벽이 맞닿는 부분과 서벽과 남벽이 맞닿는 부분에 각각 230cm×130cm×30cm, 86cm×46cm×15cm 크기의 석재를 사선 방향으로 올려 놓았다. 석실 내부에는 110cm×110cm×22cm, 120cm×62cm×20cm의 석재가 부토층위에 놓여있는데 이는 개석이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벽에 개설된 연도와 주실이 맞닿는 부분에는 196cm×87cm×25cm 크기의 석재가 창방과 같이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석실의 천정은 평천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은 장방형으로 동·서·북벽과 연도가 있는 남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벽의 축조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벽은 현재 5~6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벽과 맞닿는 부분에는 개석이 놓여 있다. 석재는 88cm×27cm, 110cm×36cm, 34cm×14cm의 큼직한 자연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엇물림식으로 축조하였는데, 석재 사이에는 12cm×14cm, 15cm×5cm, 9cm×3cm 크기의 작은 석재를 사용하여 틈을 메우고 있다. 또한 개석밑에는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추고 있다. 벽면을 구성하는 석재는 하단보다 상단의 석재가 대체로 큰 것을 사용하였는데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들지 않는다.

서벽은 동벽과 마찬가지로 하단의 석재보다 상단의 석재가 대체로 크며, 현재 5~6단으로 남벽과의 맞닿는 부분에 삼각형의 개석이 사선방향으로 올려져 있다. 서벽의 북단은 북벽에 물려있어 서벽을 쌓은 후 북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북벽은 동벽에 물려있어 북벽을 조성한 후 동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벽들과 마찬가지로 장방형의 석재를 엇물리게 축조하였는데 석재사이의 틈은 작은 할석과 점토를 사용하여 메꾸었다. 그리고 동벽과 맞닿는 부분에 사선방향으로 개석이 놓여있는데, 개석밑에는 작은 할석을 사용하여 개석의 수평을 맞추었다.

남벽은 벽과 연도로 이루어져 있다. 연도는 동쪽으로 개설되어 있고 벽면은 4단 1열로 장방형의 큰 석재를 사용하여 벽면을 형성하였다. 서벽과 맞닿는 부분을 볼 때 서벽이 남벽에 물려있어 서벽을 축조한 후 남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는 현실 남벽에 동편하여 있으며 폭 100cm, 고 150cm로서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동벽은 주실에서 연장된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벽은 남벽에서 직각으로 꺾어 서벽을 형

성하였다. 또한 현실과 연도가 맞는 부분에는 개석이 마련되어 있고, 현실에서 약 50cm정도 나가 폐쇄석이 놓여 있다. 폐쇄석은 하단과 상단이 다르게 되어있는데, 하단은 2~3단의 석재를 엇물림식으로 쌓았다. 그리고 동쪽으로 석재를 개석에 기대어 길게 세워져 있고, 남쪽에는 세로로 세워진 석재들이 미끄러져 있는 것을 볼 때 폐쇄석을 세로로 세워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는 폐쇄석이 놓이고 남쪽으로 약 120cm정도 더 마련되어 있는데, 석재의 구성은 하단의 석재보다 상단의 석재가 현격히 큰 것을 사용하여 마무리하였다.

2. 안양사뒤 석실분

1) 조사전 상황 (사진 25)

안양사 천불전에서 등산로를 따라 약 50m 위쪽 우측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 개석은 모두 없어졌고 네벽과 바닥이 거의 드러나 있는 상태로 내부는 낙엽과 쓰레기로 충적되어 있었다. 이미 도굴된 무덤으로 판단되어 내부에 가득찬 쓰레기 및 부토를 걷어내어 석실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2) 조사후 상황 (26~37, 도면 5·6)

이 석실은 능선상에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암갈색의 풍화암반층을 L자형으로 파고 축조한 석실분이다. 석실의 규모는 동서 150cm, 남북 340cm, 고 150cm의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북서 30도이다. 동·서·북벽은 화강암으로 축조하였고, 남벽은 1석의 판석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다. 각 벽의 축조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벽은 현재 1단만이 남아 있다. 규모는 120cm×38cm, 106cm×50cm의 석재가 2열로 놓여 있다. 남벽과 맞닿는 부분에는 연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폐쇄석은 결실되었다.

서벽은 북단에는 142cm×54cm×98cm의 장방형 석재를 2단 2열로 조립하고 남단에는 44cm×35cm×1cm, 40cm×18cm의 석재로 구축하였다. 자연석의 판판한 부분을 안쪽으로 구축하였는데 빈공간은 작은 석재를 사용하여 메우고 있다.

북벽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단은 146cm×42cm 크기의 장방형 석재 1매를 놓고 상단에는 104cm×34cm, 82cm×34cm 크기의 석재를 2열로 동벽에 맞물리게 구축하였다.

남벽은 190cm×71cm×20cm 크기의 판석 1매로 조성하였는데, 현재는 판석이 밖으로 밀려 나와 있다.

석실은 암갈색의 풍화암반층을 L자형으로 파고 축조하였는데 바닥은 암반층을 그대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석실내부 북동쪽에는 94cm×48cm×7cm, 44cm×53×8cm 크기의 판석 2매가 놓여있는데, 이는 벽면에 사용되었던 석재가 내부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석실 주위에 60cm×40cm×22cm, 38cm×25cm×7cm, 26cm×18cm×14cm의 석재로 보축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동서 550cm이고 남북 810cm이다. 특히, 남벽 남단에는 132cm×70cm×22cm 크기의 편편한 석재가 놓여있고, 좌우로 석렬이 있는데 이는 석실 남단을 보호하기 위한 석축으로 보인다. 석축을 구성하고 있는 석재의 규모는 76cm×66cm×22, 38cm×38cm×12cm, 22cm×22cm×10 크기이다. 조사과정에서 청자편과 베틀편이 각 1점씩 수습되어 고려시대에 조성된 무덤으로 추정되었다.

(1) 청자편 (사진 38, 도면 7)

청자 접시편으로 저부만이 남아 있다. 저부에는 원형의 낮은 굽이 부착되어 있고 기벽은 수평에 가깝게 벌어지다 사선방향으로 외반되었다. 회색의 청자태토에 녹색의 투명한 청자유가 시유되었고 전면에 빙얼이 조밀하다

(현상 : 현고 2.2cm, 추정 굽 지름 6.4cm)

(2) 베틀편 (사진 39, 도면 8)

벼루편으로 연제와 연지의 일부만 남아 있다. 형태로 보아 장방형의 베틀로 추정된다. 배면은 중앙에 횡으로 연제를 두어 2등분 하였다. 베틀은 할석을 깎아 만든 것으로 연제는 사선방향으로 깎였다. 베틀의 외벽과 깨어진 부분에는 같은 흔적이 있어 숫돌 대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상 : 6.9cm×10cm, 두께 2cm, 연지 높이 0.6cm)



사진 1. 비산동 1호 석실분 조사전 광경



사진 2. 비산동 1호 석실분 조사후 광경



사진 3. 비산동 1호 석실분 개석 노출상황



사진 4. 비산동 1호 석실분 내부 노출상황 (남서에서)



사진 5. 비산동 1호 석실분 내부 노출상황 (남동에서)



사진 6. 비산동 1호 석실분 북동벽 코너부



사진 7. 비산동 1호 석실분 동벽 노출상황 (남서에서)



사진 8. 비산동 1호 석실분 북서벽 노출상황



사진 9. 비산동 1호 석실분 서벽 노출상황 (남동에서)



사진 10. 비산동 1호 석실분 서벽 축조상태



사진 11. 비산동 1호 석실분 남쪽 암반 노출상황 (북동에서)



사진 12. 비산동 2호 석실분 조사전 광경 (남서쪽에서)



사진 13. 비산동 2호 석실분 조사후 원경 (남쪽에서)



사진 14. 비산동 2호 석실분 조사후 근경 (남쪽에서)



사진 15. 비산동 2호 석실분 조사후 근경 (북동에서)



사진 16. 비산동 2호 석실분 개석 노출상황 (남서쪽에서)



사진 17. 비산동 2호 석실분 내부상황 (남쪽에서)



사진 18. 비산동 2호 석실분 북동벽 코너부



사진 19. 비산동 2호 석실분 남서벽 코너부



사진 20. 비산동 2호 석실분 남벽 노출상황



사진 21. 비산동 2호 석실분 연도 노출상황



사진 22. 비산동 2호 석실분 폐쇄석 노출상황 (북쪽에서)



사진 23. 비산동 2호 석실분 연도 및 폐쇄석 노출상황 (북쪽에서)



사진 24. 비산동 2호 석실분 연도 서벽 노출상황



사진 25. 안양사 뒤 석실분 조사전 상황



사진 26. 안양사 뒤 석실분 조사후 상황 (남쪽에서)



사진 27. 안양사 뒤 석실분 조사후 상황 (북쪽에서)



사진 28. 안양사 뒤 석실분 동벽 노출상태



사진 29. 안양사 뒤 석실분 서벽 노출상태



사진 30. 안양사 뒤 석실분 남벽 노출상태



사진 31. 안양사 뒤 석실분 북벽 노출상태



사진 32. 안양사 뒤 석실분 북동벽 코너부



사진 33. 안양사 뒤 석실분 북서벽 코너부



사진 34. 안양사 뒤 석실분 연도부 (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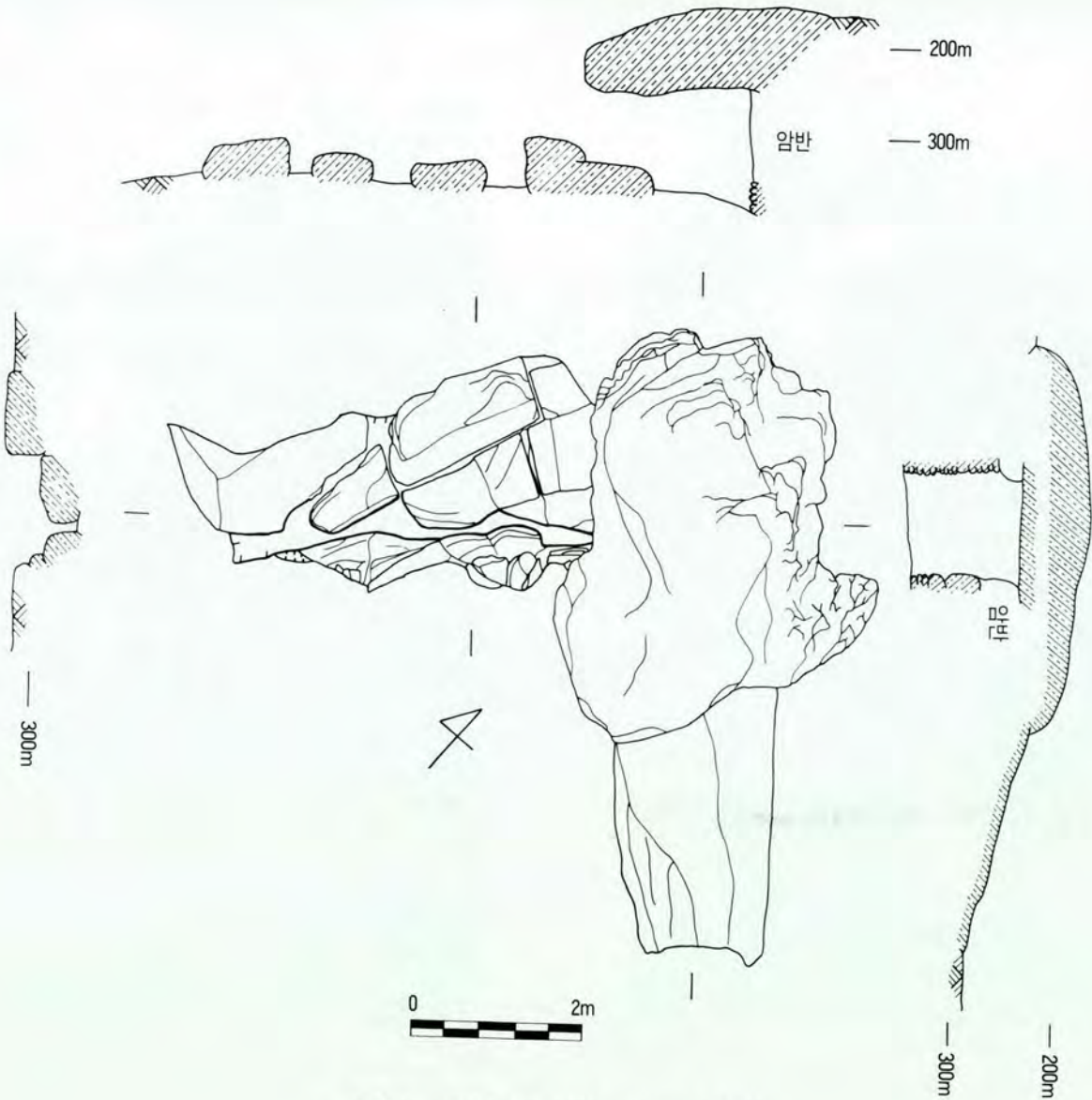
사진 35. 안양사 뒤 석실분 연도부 (동쪽에서)



사진 36. 안양사 뒤 석실분 동쪽 보축상태



사진 37. 안양사 뒤 석실분 남쪽 보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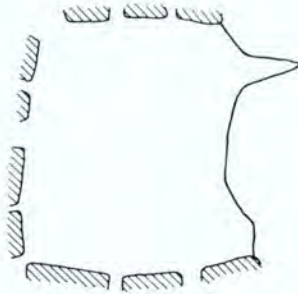


도면 1. 비산동 1호 석실부 평면도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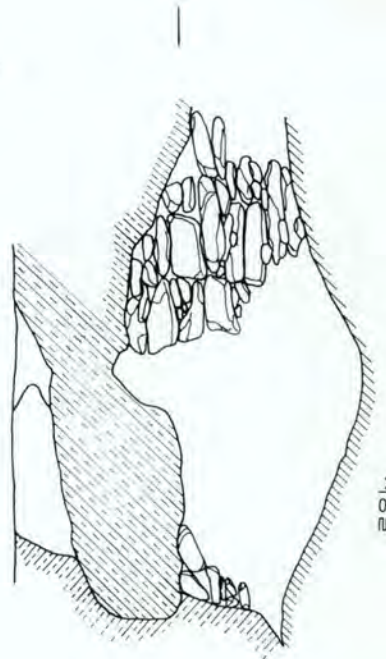
지붕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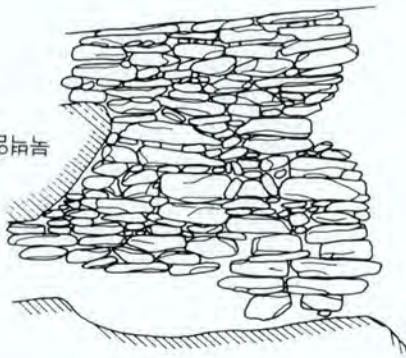
지붕돌



지붕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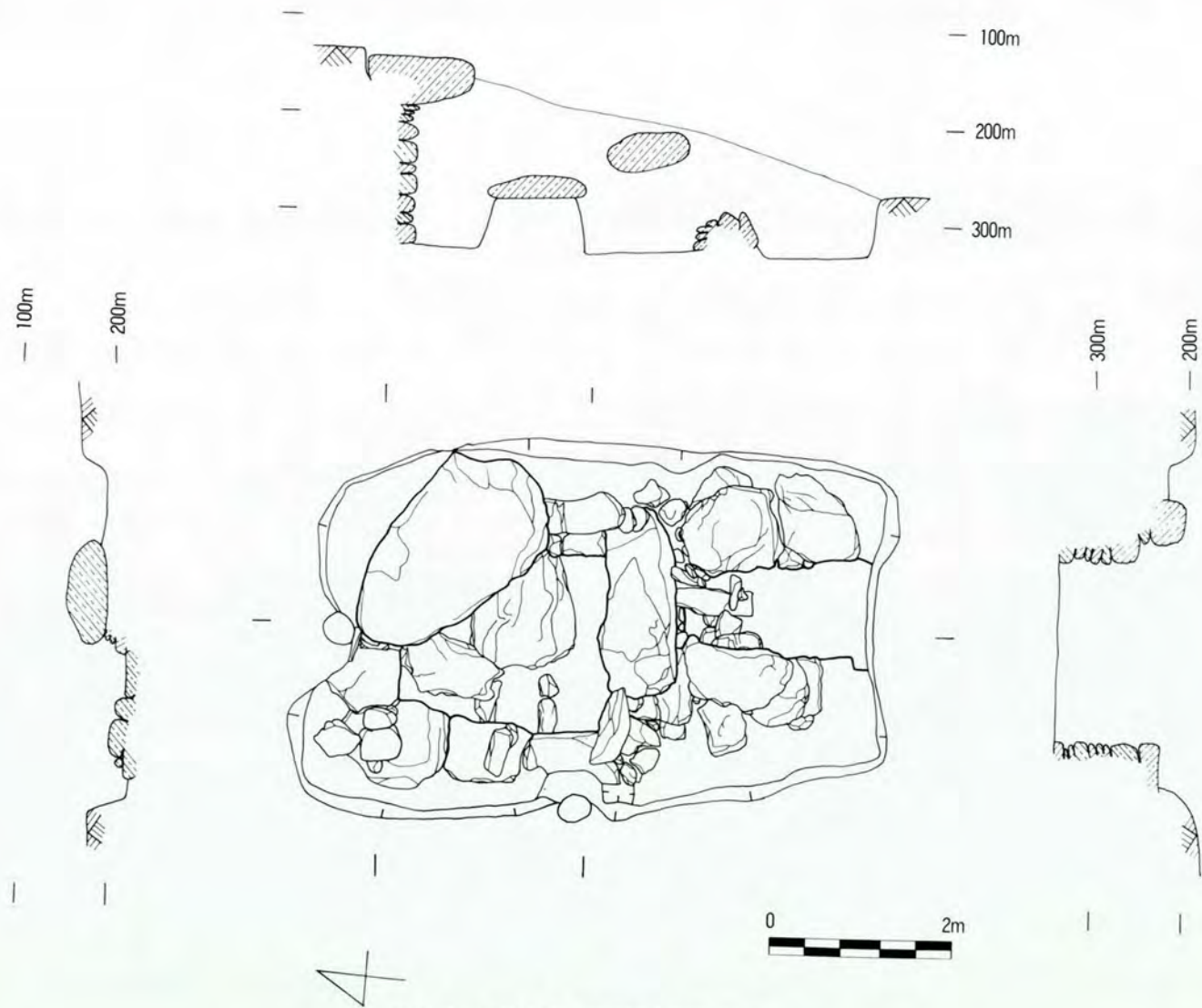
기둥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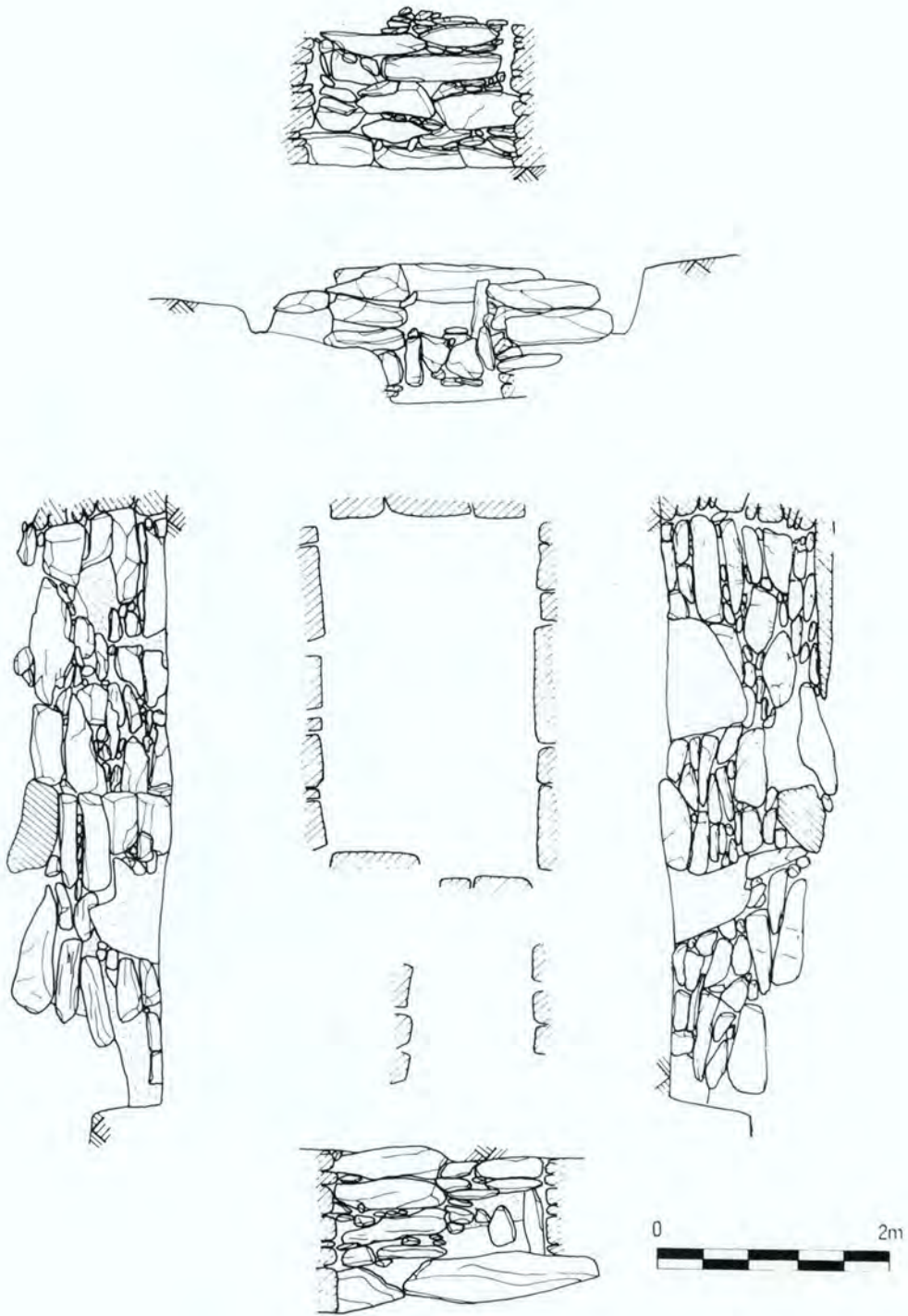
목욕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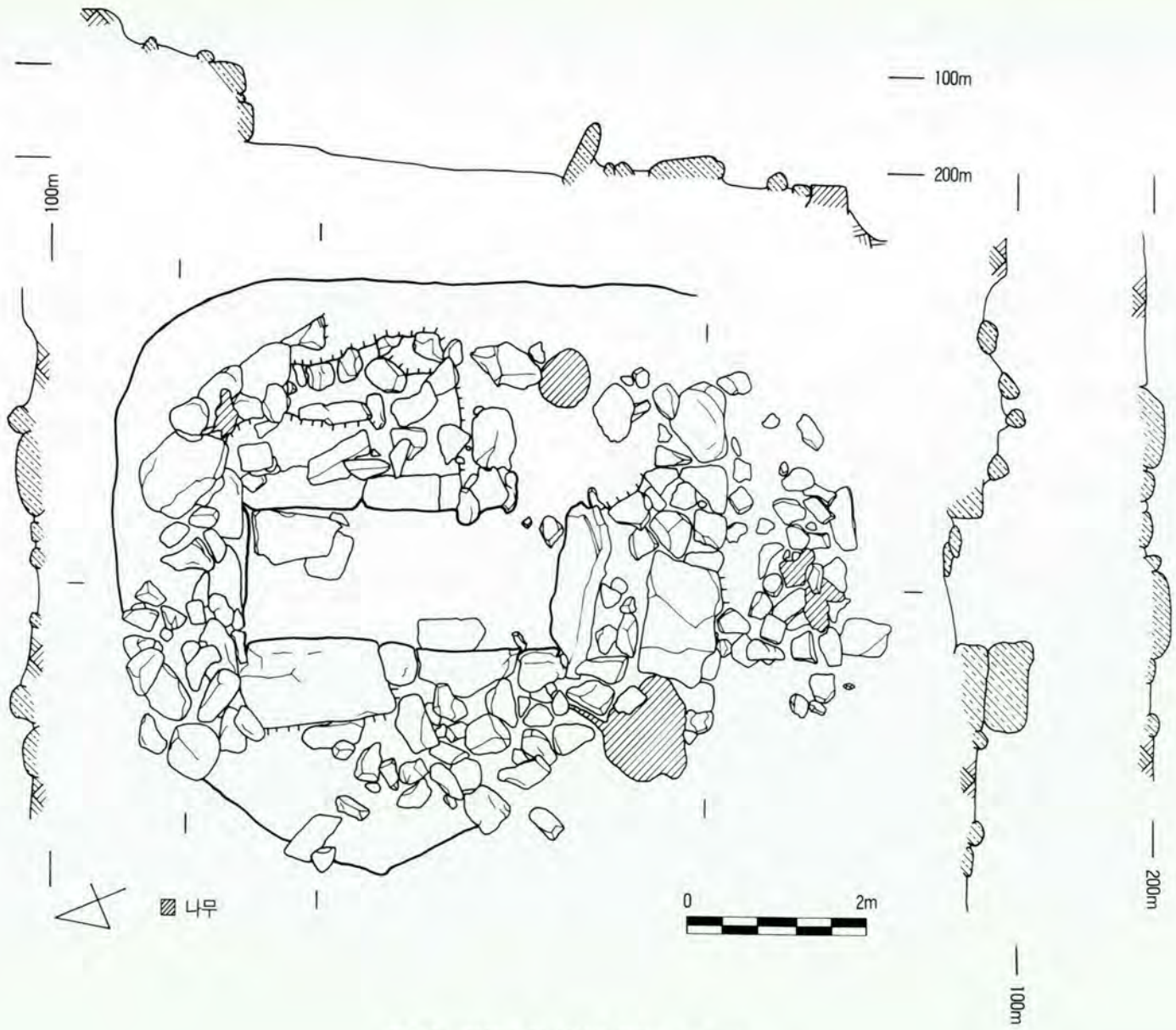
도면 2. 비산동 1호 석실분 동·서·남·북벽 입면도



도면 3. 비산동 2호 석실분 평면도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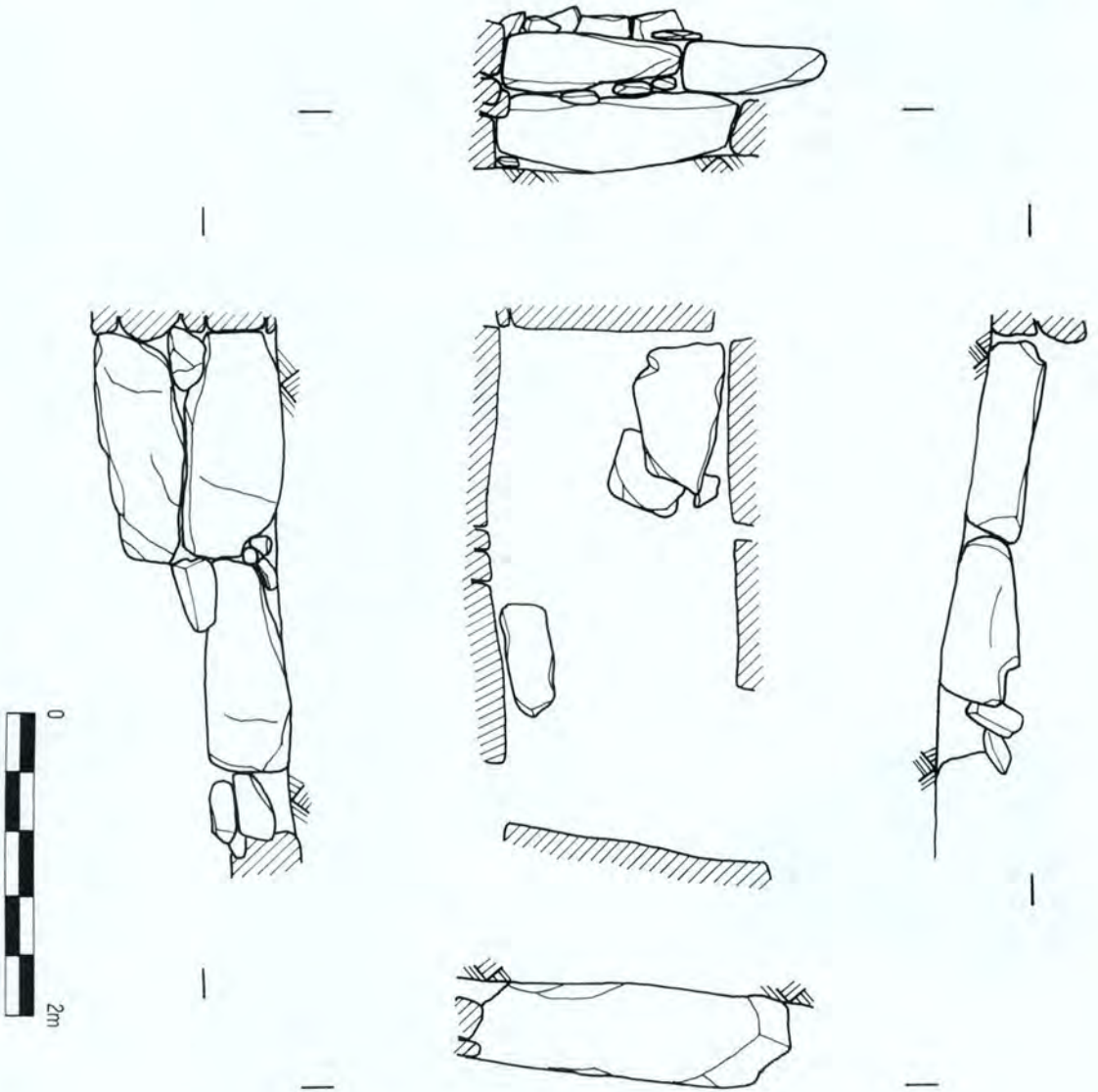


도면 4. 비산동 2호 석실분 동·서·남·북벽 입면도



도면 5. 안양사 뒤 석실본 평면도 및 단면도

4



도면 6. 안양사 뒤 석실분 동·서·남·북벽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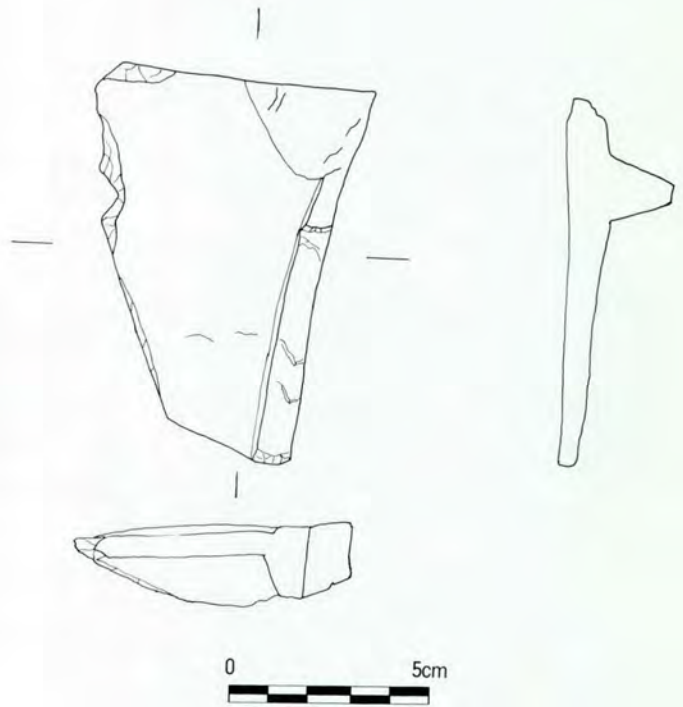
사진 38. 안양사 뒤 석실분 수습 청자편



도면 7. 안양사 뒤 석실분 수습 청자편



사진 39. 안양사 뒤 석실분 수습 벼루편



도면 8. 안양사 뒤 석실분 수습 벼루편

Ⅱ. 사 찰

1. 三幕寺 (사진 1)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41-54번지

주 지 : 李性雲(46세)

1) 沿革

조계종 용주사의 말사로 1771년(조선 영조 47)에 작성된 事績記가 전하고 있는데,¹⁾ 이와 주변의 유적 및 최근의 상황을 종합하여 삼막사의 사력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신라시대 : 元曉·義湘·潤筆이 삼막사를 창건함. 이에 따라 산의 이름도 三聖山이라 칭함.
- 통일신라 말 : 道先이 사찰을 중창하고 觀音寺라 함. 이후 三藐寺라 명함.
- 1348년(고려 충목왕 4) : 懶翁和尚이 休菴으로부터 와 삼막사에 머무름.
- 1349년(고려 충정왕 1) : 指空스님이 나옹을 만나기 위해 삼막사로 옴. 이후 선풍이 크게 진작 됨.
- 조선 태조 : 無學이 조선의 수도를 정하였는데, 풍수지리설에 따라 서울의 외곽에 4개소의 사찰을 세웠는데, 삼막사는 남쪽의 지기를 제압하는 역할을 함.
- 조선 태종 : 특별히 윤지를 내려 크게 더하고 가람을 수리하였다. 당시에 불전이 3곳, 요사 5곳, 어실이 1곳, 문루가 각 1곳, 대가 2곳, 비가 1곳, 탑이 1곳 및 암자가 약간 있다고 함. 또 본현에 칙령을 내려 절 주위 사방에 벌초와 가축방목을 금하고 전각은 운대하여 수려하며 누대는 높고 넓었다
-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시 왜구가 침입하여 행랑을 모두 불 질렀으나, 대웅전만 무사함.
- 1625년(인조 3) : 범종을 조성하여 봉안함.
- 1636년(인조 14) : 병자호란때 적병이 사찰로 진입하여 모두 도망하였으나, 宗下이란 스님만이 두려워 하지 않았다 함.
- 1707년(숙종 33) : 事蹟碑를 건립함.
- 1763년(영조 39) : 化主 悟心과 施主 徐世俊이 마애삼존불을 조성함.

1)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朝鮮寺刹史料』上, 1911, p.p. 63- 66. 및 사찰에 전하는 「三聖山三幕寺事蹟」이 있는데, 양 기록은 동일한 내용이다.

- 1764년(영조 40) : 마애삼존불에 칠성각을 건립함.
- 1771년(영조 47) : 현존하는 사적기를 長老의 말을 바꾸어 雪庵이 작성함.
- 1880년(고종 17) : 義旻등이 化主가 되어 명부전을 중건함.
- 1881년(고종 18) : 金周容·金大容·趙氏 등이 칠성각을 중건함.
- 1896년(고종 33) : 應月大使가 대웅전을 중건함.
- 1905년 : 대웅전내에 後佛幀畫등의 불화를 조성함. 명부전의 地藏幀畫를 조성함.
- 1920년 : 池雲英이 三龜字를 새김.
- 1922년 : 住持 沈桂華스님과 朴奉林, 金斗弘등이 化主가 되어 대웅전 및 기타전물을 중수함.
- 1928년 : 4월에 大雄寶殿에 봉안된 삼존불에 대해 改金佛事함.
- 1935년 : 住持 安元旻스님이 대웅전과 망해루를 중수함.
- 1936년 : 靈山殿·山神閣·冥府殿을 중수함.
- 1939년 : 七星閣을 중수함.
- 1973년 : 住持 李知幻 스님이 법당·요사채·종각 등 모든 전물을 증축하여 도량을 일신함.
- 1975년 : 명왕전을 중수함. 대웅전에 千佛을 조성하여 봉안함.
- 1990년 : 화재로 인해 대웅전이 전소됨. 이때 대웅전내에 있던 準提菩薩坐像, 佛畫, 銅鍾 등이 소실됨. 이후 새로운 주지 慈乘 스님이 부임하여 대웅전을 六觀音殿으로 개명하고 중건함.
- 1994 - 1998 현재 : 住持 性雲스님이 부임하여 요사채와 종각을 새롭게 신축하고, 현재 천불전, 요사채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삼막사는 신라말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도선국사가 중건하였고, 고려말에 나옹과 지공의 주석으로 인해 크게 중흥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무학대사와 연관을 맺으며 한양의 남쪽 지기를 누르는 비보사찰로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태종대의 중창을 거쳐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세가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숙종·영조·고종을 거치면서 사찰의 곳곳에 불사가 이루어 지면서 사격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모두 사적기에 의한 것으로서 현존하는 유적과 유물이 고려시대를 상한으로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삼막사가 신라시대의 창건이란 설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범종의 조성, 사적비, 마애삼존불 및 칠성각의 건립등으로 활발한 불사가 진행되었고, 나아가 칠성신앙이 중심을 이루었던 사찰로 존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막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와 문헌에도 소개되고 있는 바, 이를 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新增東國輿地勝覽』安興寺·三藐寺·望日寺·聖住寺：俱在三聖山²⁾ 1530(중종 25)

『輿地圖書』三幕寺：在三聖山³⁾ 1757(영조 23) 1765

『梵宇攷』三藐寺：麗末有僧指空及懶翁無學同遊是山棚此寺寺有三釋像⁴⁾ 1799(정조23)

『大東地志』衿州山：……南北紫霞洞三藐寺山之背有獅子峯……⁵⁾ 1864

이상의 기록을 볼 때 삼막사는 조선시대 중기 및 후기에도 폐사되지 않고 법등을 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의 연표와 문헌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삼막사는 창건 이래 끊임없이 법등이 이어졌던 긴 생명력과 역사를 지닌 사찰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삼막사의 명칭은 현재의 三幕寺와 三藐寺가 혼재하며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梵宇攷』·『大東地志』에는 三藐寺라 표기되어 있고, 사적기와 사적비 및 『輿地圖書』에는 三幕寺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찰의 명칭이 삼막사로 된 연유에 대해서는 사적기에는 도선국사의 중창시 사세가 확장되면서 인근의 빼어난 경관이 중국 中原 韶州의 三藐寺에 비유되어 삼막사라 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삼막사에 오르는 중간에 거대한 석축으로 조성된 사지가 있고, 인근의 주민들은 이를 一幕 이니 二幕이니 하는 것을 보면 삼막사를 중심으로 한 계곡 곳곳에 많은 사찰이 존재했었고, 주변 경관 역시 아름다워 말뜻 그대로 가히 부처의 깨달음을 터득할 수 있다는데에서 연유한 명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삼막사에는 많은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유적은 크게 육관음전을 중심으로 한 사찰경내, 사적비가 있는 곳, 마에삼존불이 봉안된 칠성각 주변 등의 3곳과 기타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0, 衿川縣 佛宇條.

3) 『輿地圖書』, 京畿道 衿川 寺刹條.

4) 『梵宇攷』, 衿川 寺刹條.

5) 金正浩, 『大東地志』, 卷 4, 始興 山水條.

2) 遺蹟과 遺物

(1) 사찰경내

① 梵鍾樓(사진 2)

1993년에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2칸 9평 규모의 2층 누마루집으로 서향을 취하고 있다. 하단에는 장방형의 석주를 놓아 누마루를 구성하였는데, 2층의 내부에는 북, 종, 목어, 운판의 사물이 걸려 있다. 맞배지붕에 한식골기와의를 올렸는데,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익공계의 주심포집으로 원형의 기둥을 놓아 건립하였다. 전면 중앙간에는 「梵鍾樓」란 현판이 달려 있고, 내부에는 佛紀二五三八年 甲戌年 正月에 조성된 「大韓佛教曹溪宗三幕寺 四物施主名單」의 현판이 있다. 북은 지름 120cm, 높이 174cm의 크기로 측면에는 雲龍紋이 채색되어 있다. 鍾은 높이 180cm, 지름 130cm의 크기로 신라시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범종으로 표면에 「觀音梵鐘」, 「三聖山三幕寺」, 「佛紀二五三八年甲戌陰正月」의 명문이 각각 양각되어 있다. 雲版은 88cm×75cm의 크기이고, 木魚는 길이 126cm, 높이 55cm의 크기로 하면에는 46cm×8cm 크기의 장방형 구멍이 개설되어 있다.

② 冥王殿(사진 3~5)

정면 3칸, 측면 1칸(본래는 2칸으로 추정) 규모의 건물로 지붕의 4모퉁이에는 풍경이 달려있다. 이 건물은 1880년(고종 17)에 당시 주지 義旻 스님이 化主가 되어 증건한 후, 1975년에 주지 李知幻 스님이 수리하였다고 한다. 겹처마를 지닌 익공계 주심포 건물로 남향을 취하고 있는데,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60호로 지정되었다. 100cm×25cm - 44cm×25cm 크기의 장대석을 2단으로 쌓아 기단을 구축한 후 건립했는데, 기단의 남쪽과 서편을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쪽은 수리를 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였다. 초석은 장방형의 형태로 65cm×50cm×36cm의 크기인데, 가공을 하지 않고 판판한 면을 상면으로 한 점으로 보아 상면에 놓인 높이 227cm의 圓形목재기둥의 하면은 그랭이질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의 전면에는 3칸 모두 띠살문을 달았는데, 중앙간이 출입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측면 및 후면의 외벽은 하단에는 비교적 큼직한 화강암을 불규칙하게 배열하고, 상면으로 갈수록 작은 석재를 붙였는데, 각 부재의 사이사이에는 강회를 발라 간격을 메꾸었다. 상면에는 흑벽에 강회를 바른 후 半圓形의 파도문을 시문하고 있다. 그런데 측면의 평방 중앙 하단부에서 기둥이 있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같은 외벽의 시설은 후대에 개수된 결과로 생각된다. 기둥의 상면에는 2익공의 포를 놓았는데, 네 귀퉁이의 익공 상면에는 각각 하나씩의 용두가 표현되어 있다.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으로 한식골기와의를 올렸는데, 좌·우에 방풍판을 단 3량집이다. 건물의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측면의 중앙간 상면의 창방으로부터 중앙을 가로 지르는 보에 걸쳐 각각 1마리씩의 용이 돌출되어 중앙부에서 머리를 마주보고 있다. 건물 내·외의 단청은 무척 화사한 편으

로 기단의 일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③ 冥王殿內 地藏菩薩坐像(사진 6)

명왕전의 내부에는地藏菩薩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道明尊者와 無毒鬼王이 있고 후면에는地藏幀畫가 걸려 있다. 아울러 지장보살을 정점으로 좌·우에는 각각 5구씩의 十王이 배열되어 있다. 이들 제상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장보살좌상이다. 지장보살좌상은 목조로 조성되었는데, 목재로 조성된 방형의 대좌를 구비하고 있다. 대좌는 상·중·하대를 굽지하고 있다. 하대는 각면의 모를 죽인 부등변8각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대석은 방형의 형태로 각 모퉁이에는 누주를 표현하고 있는데, 앞 면에는 채색이 화사한 鬼面을 그렸다. 상대석은 장타원형의 형태로 2매의 목재로 구성되었는데, 측면에는 청색의 안료로 복엽단판 양연을 그렸다.

지장보살좌상은 도금으로 인해 금색이 찬연한데, 1974년 李知幻 주지가 개금했다고 한다. 素髮의 머리에 肉髻가 표현되지 않아 완만한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相好 역시 머리의 형상을 따라 원만상에 가까운 네모진 모습을 취하고 있다. 눈꼬리가 길고, 아래쪽을 향해 반개한 눈·오뚱한 코·미소를 머금은 입의 형태가 뚜렷하고, 이마에는 큼직한 白毫가 표현되어 있다. 양 귀는 짧게 표현되었지만, 전체적인 상호와 적당한 비례를 보이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표현되어 있다. 법의는 通肩으로 옷주름은 대부분이 생략되어 형식화된 모습을 보이거나, 어깨로부터 길게 흐르는 U자형의 의문이 배꼽하단에 걸쳐 표현되어 있다. 가슴에는 일자형의 內衣가 표현되어 있다. 수인은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려 외장하였고, 왼손은 무릎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채 上掌하고 있다. 결가부좌한 양 무릎은 비교적 넓게 조성되어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상면에는 의문의 표현이 없으나, 전면 중앙에는 도식화된 부채꼴형의 의문이 표현되어 있다. 보살좌상의 하면에는 복장을 했던 방형의 구멍이 남아 있는데, 주지스님에 의하면 이미 도구를 당해 수년전에 다시 봉안했다고 한다.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지장보살좌상은 상신체의 표현에 있어 전체적인 비례는 안정된 구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형에 가까운 상호, 도식화된 의문의 표현등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시왕상은 높이 1m 내외로 조성되었는데, 轉輪大王像만이 무장의 모습일 뿐, 나머지 상들은 모두 문관복에 관을 쓰고 서적과 홀을 잡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후불탱화인 지장탱화는 200cm×174cm의 크기인데, 佛紀二九五五年 戊辰 초파일에 염불암에서 기진했다고 한다.⁶⁾

6) 이같은 내용은 본인의 조사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안양시청 향토사료실장인 김지석선생이 수년 전이 이를 조사할 당시에 이같은 내용의 목서가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

④ 望海樓(사진 7~10)

조선 태조 7년(1398)에 무학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전하는 건물로 날씨가 맑은날 정서쪽을 바라보면 서해바다가 보인다고 하여 망해루라 명명했다고 한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2층 누마루 건물로 본래는 문이 없었으나 1976년경에 교살문을 두었다고 한다. 이 건물은 삼막사가 산지가람임을 감안하여 동쪽은 사찰의 평면과 같은 높이지만, 서편에는 사다리꼴형의 高柱礎石을 놓아 건립하여 전면과 후면 및 측면 기둥의 형태와 높이가 각각 다르게 조성되어 있다. 즉, 현재 출입처로 사용되는 동편은 낮은 원형의 초석을 사용하였고, 서편은 높이 160-180cm 내외의 사다리꼴형 高柱초석을 놓았는데, 동에서 서로 내려오는 측면은 지형을 감안하여 고주초석의 높이를 각각 다르게 조성하여 건물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자연지세를 충분히 활용하여 건립한 망해루의 하층은 동편에서 볼 때에는 아무런 구조를 확인할 수 없어 단순한 단층건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편에서 보면 장대석으로 낮은 기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고주초석의 하단에는 116cm×20cm크기의 석재를 놓은 후 상면에 높이 160-180cm 내외의 사다리꼴형 高柱礎石을 놓았다. 뿐만아니라 둘째칸과 넷째칸에는 쪽문을 설치하여 출입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사찰의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일층의 내부에는 정면칸수와 같은 길이로 쌓은 높이 75cm의 石壇을 두었다. 석단은 방형의 석재를 고른층쌓기수법으로 4단정도 쌓았는데, 상면에는 방형의 초석을 놓고 동자주를 놓아 2층의 누마루를 지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편으로는 각 칸마다 기와와 진흙으로 쌓은 방형의 환기창을 개설하고 있다.

망해루의 동편과 북북편은 圓形의 초석을 사용하여 건립하였는데, 익공계 주심포양식의 집으로 홀처마를 구비하고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고, 한식골기와를 올렸다. 건물의 내부 용마루에는 「佛紀二五一九年 陰五月二十日」이란 상량문이 있어 1973년에 건물에 대한 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측면에 여의두문이 채색된 지름 68cm, 너비 68cm 크기의 북과 「望海樓甘露幀畫佛事慕緣錄, 佛紀二五三二年戊辰六月十八日」명의 현판(137cm×50cm) 및 탕화가 보존되어 있다.

⑤ 六觀音殿(사진 11~12)

본래 대웅전이 있던 위치에 신축된 건물이다. 삼막사는 1990년 10월 12일의 화재로 대웅전과 함께 내부에 있던 범종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소실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도에 대웅전을 육관음전으로 개명하여 현재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육관음전은 흥원거사가 건립비용을 회사하여 신축했다고 하는데, 이같은 사실은 법당의 주변에 건립된 비석의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흥원거사비는 전고 296cm의 규모로 귀부·비신·이수를 구비하고 있는 4면 비로, 단기 4325년(1992)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비문중 육관음전의 신축과 관련된 내용만을 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4면)

…… 그 뒤 몇차례의 重建重修를 거쳐 高宗十七年에 義旻이 冥府殿을 짓고 이듬해 七星閣을 建立한 뒤 오늘에 오늘에 이르고 있던 次 最近인 庚午歲十月二十日의 火災로 大雄殿이 消失되어 同年 十一月十日 새로 赴任한 慈乘和尚이 四衆으로 더불어 重建祈禱를 하고 있던 中 마침 讀經과 坐禪 그리고 山行으로 晩年을 지내던 泓沅居士가 선듯 建立費用을 喜捨하여 壬申年九月二十八日에 六觀音殿으로 改名하여 落成하였으니 ……」

육관음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로 장대석을 5단으로 쌓은 기단위에 건립되어 있다. 장방형의 석재 상면에 8엽의 복연이 시문된 8각형의 초석 위에 팔각형의 석조기둥을 사용하여 건립한 다포계 건물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좌·우에는 방풍판을 두었는데, 청기와를 올렸다. 기단의 중앙 계단 좌·우에는 새로 만든 고복형석등 2기가 배치되어 있다.

육관음전의 내부에는 목재로 조성한 십일면관음, 여의륜관음, 준제보살, 천수천안관음, 마두관음, 성관음이 각각 봉안되어 있다. 십일면관음, 여의륜관음의 후면에는 불화가, 준제보살과 천수천안관음의 후면에는 목각탱이, 마두관음과 성관음의 후면에는 불화가 걸려있다. 이밖에 목각탱화 1점과 새로 만든 동종 1기가 봉안되어 있다.

⑥ 寮舍體(사진 13)

기존에 있던 요사체를 철거한 후 1996년에 신축한 정면 6칸, 측면 5칸 규모의 건물이다. 낮게 조성된 기단위에 원형의 초석을 놓아 건립했다. 정면간은 비교적 주간 거리가 일정한 반면, 측면은 첫째칸과 셋째칸이 나머지의 반칸 정도로 건립하였다. 전면의 5칸 규모는 작은 1칸의 마루가 개설되어 있다. 원형의 주초위에 기둥을 놓은 익공계 건물로 지붕은 팔작지붕인데, 동기와를 올렸다. 현재 사찰의 종무소와 식당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⑦ 千佛殿(사진 14)

현재 신축중인 건물로 전체적인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1998년 음력 3월에 준공예정이다. 중앙에 계단이 개설된 기단위에 건립되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다. 원형의 주초와 기둥을 구비한 다포계 건물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동기와를 올렸는데, 네 모퉁이에는 풍경을 달았다.

⑧ 三層石塔(사진 15~18)

천불전의 뒷편 석축상면에 위치하고 있다. 상륜부를 제외한 높이 2.4m의 삼층석탑으로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되었다. 자연암반위에 건립되어 있고, 기단부와 탑신부는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륜부는 새로 조성하였다.

석탑이 놓인 암반은 425cm×400cm의 규모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4매의 장대석으로 조립된 지대석의 상면에는 2층기단을 놓았다. 하층기단은 4매의 석재로 구성되었는데, 우주 및 탕주는 표현하지 않고 2매의 석재로 구성된 하층

기단 갑석을 놓았다. 갑석의 네 모퉁이는 두툽한 합각선을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경사지게 처리하였다. 상층기단 역시 4매의 판석으로 조립하였는데, 면석의 중앙에는 탕주가 모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양 우주는 석재의 조립수법에 따라 일면은 석재의 단면이, 다른 한면은 모각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같은 기단의 상면에는 일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갑석을 놓았는데, 상면에는 각호각형 3단의 탑신괴임대를 조출하였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 일석으로 조성하였다. 탑신석에는 양 우주가 정연히 모각되었는데, 2층탑신석은 후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매층 각형 3단의 옥개받침을 조출하고 있다. 낙수면의 경사는 급하고 짧은데, 두꺼운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 이르러 둔중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정상에는 새로 조성한 노반석과 상륜부재가 있다.

이 석탑은 고려 고종 19년(1232) 12월 16일 김윤후가 몽고장수 살리타이를 화살 하나로 쓰러뜨린 기념으로 건립한 것이라는 전설을 지니고 있는데, 1979년 李知幻 주지스님이 중수한 것이라고한다. 석탑의 현상중 새로 만든 2층탑신석과 상륜부재는 아마도 1979년의 중수시에 보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막사삼층석탑은 기단부의 조립수법, 옥개석의 둔중함 등의 양식을 볼 때 고려시대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양식을 지닌 삼막사삼층석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입지에 있어서도 평지가 아닌 높직한 암반위에 건립된 점을 들 수 있다. 이같이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아 석탑을 건립함은 佛舍利를 봉안한 불탑 자체를 宇宙의 軸으로 생각하는 신앙적 형태에서 볼 때 기단 자체를 불교의 우주관에서 말하는 須彌山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⁷⁾ 나아가 평지에 괴체형 석재를 쌓고 탑신부를 올린 형태의 석탑 역시 용장사극3층석탑에서 보인 자연암석의 형태를 평지에 재현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며,⁸⁾ 궁극적으로는 9세기 이후에 성행하는 山川裨補思想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⁹⁾ 따라서 자연암반에 석탑을 건립한 것은 신라말기인 9세기에서 그 양식적, 사상적 근원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이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확립된 석탑 건립의 또 다른 규범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안동 막곡동삼층석탑, 안동 니천동삼층석탑, 영동 영국사 망탑봉삼층석탑, 홍천 양덕원삼층석탑, 영암 월출산마애불 전방 용암사지삼층석탑, 안동 대사동모전석탑, 법계사지삼층석탑, 영양 삼지동석탑, 증평 남하리사지삼층석탑, 정암사수마노탑을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 이같은 양식의 석탑이 건립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자연암반 위에 건립된 대다수의 석탑은 일반형식의 3층탑신을 올리고 있는 공통점 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건립위치에 있어 높은 지대이거나 강을 끼고 있어 넓은 視界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석탑이 건립되는 사상적 근원은 9세기에 등장하여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7) 張志植, 『新羅石塔研究』, 一志社, 1987, p.97.

8) 秦弘燮, 「統一新羅時代特殊樣式의 石塔」, 『考古美術』158, 159合輯, 韓國美術史學會, 1981, p.24.

9) 秦弘燮, 앞 論文, p.27.

風水圖識說에 그 근원을 둘 수 있고, 결국은 佛力에 의한 山川裨補思想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둘째, 대부분의 석탑은 높직한 자연암반을 기반으로 한 까닭에 석탑의 높이가 높게 보이지만, 기단을 제외하면 3m이내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석탑은 탑신에 양 우주만이 모각되어 있어, 평지에 건립된 석탑이 문비형을 비롯한 장엄조식이 가해진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본 조사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삼막사삼층석탑 역시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 앞서 서술한 석탑들과 같이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산천비보사상에 의한 건립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석탑의 건립 위치가 자연산세를 따라 석축을 쌓고 지대를 확보한 후 높직한 암반 위에 건립하여 전면으로 넓은 시계를 확보하고 있고,

둘째, 양식적인 면에서 같은 계통의 석탑과 같이 아무런 조식이 없이 소박하게 조립되었고,

셋째, 삼막사 사적기에 나타난 바 대로

…… 詵以其術遇知於高麗太祖創統之際 立五百裨補以鎮山川氣脈 是山在其數內乃重葺法宇稍增舊制 …… 我太祖聞而徵之以定國都 以外白虎勢急形危多有奔動之氣 乃立寺 其上曰虎壓以鎮之創菴 其前曰獅子以威之埋犬 其傍曰四犬隅以留之 又創刹四隅以鎮京都 在東者曰青蓮 在西者曰白蓮 在南者曰三藐 在北者曰僧伽……

라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비보사찰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볼 때 이 석탑의 건립배경을 명확히 밝혀주는 기록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삼막사삼층석탑은 신라하대에 확립된 산천비보사상에 의한 건립이 고려시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건립된 또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⑨ 石像(사진 19)

삼층석탑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수년전에 땅속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데, 마멸이 심해 정확한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상으로 보아 좌상으로 추정되는데, 대리석으로 조성된 장방형의 대좌 위에 놓여있다. 머리는 둥근 형태로 상면이 둥글게 처리된 점으로 보아 육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멸이 심해 눈·코·입 등의 표현은 알 수 없는데, 양 귀는 길게 표현되어 어깨에 닿아 있다. 신체부 역시 마멸이 심한데, 전면의 윤곽으로 보아 양 손은 가슴에 모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체에 비해 얼굴이 크게 조성되어 비례가 흐트러진 일면을 보이고 있다.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전고 : 63cm, 두고 : 25cm, 두폭 : 20cm, 견폭 : 32cm, 슬폭 : 35cm)

10) 秦弘燮, 「異形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 『考古美術』 138·139 合輯, 韓國美術同人會, 1978, pp. 96-109 및 앞 논문, p.27.

⑩ 石漕(사진 20~22)

삼층석탑과 석상이 놓인 석축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귀부형과 원통형의 2기가 현존하고 있는데, 이들의 전면에는 「甘露井」이라 새긴 82cm×29cm 크기의 표석이 있다.

귀부형의 석조는 물을 담는 수조와 뚜껑이 각각 별개의 석재로 조성되어 있다. 거북형의 수조는 길이 214cm, 너비 159cm, 높이 45cm의 규모인데, 조선 正祖때 金昌靈이라는 사람이 탄생할 때 그의 등에 8자가 있다고 하여 돌거북을 만들어 시주한 것이라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수조의 전면에는 목을 바짝 움츠린 평판적인 모습의 龜頭가 표현되어 있는데, 측면에는 道光十七年丁酉, 十月水白大施主主持, 乾命 金昌靈, 坤命人 金氏, 長子 金壽萬, 乾命 石沖得, 乾命 安遂云, 乾命 安有靈, 尙富 辛卯生 崔氏, 尙富 乙巳生 金氏, 尙富 戊戌生 趙氏, 引勤女正花, 石手元光得, 化主僧善暎의 명문이 자경 5cm의 크기로 음각되어 있다. 거북의 뚜껑돌은 1979년 이지환 주지스님이 조성한 것이라 한다. 3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면에는 외곽에 음각선으로 주연을 형성한 후 내면에 큼직한 육각형의 귀갑문을 음각하였다. 그리고 전면석과 2번째의 판석이 맞닿은 한쪽 면에는 일변 23cm의 뚜껑이 마련되어 있다. 본래 이 석조의 하면에는 소형의 원통형 받침 6개가 받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현재 식당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5기는 본래의 원형이지만, 1기는 근년에 새로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받침돌은 지름 26-30cm, 높이 27-33cm의 크기이다. 이 석조는 명문에 「道光十七年丁酉」라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1837년(선조 17)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통형의 석조는 높이 50cm의 크기로 각 모서리를 원형으로 다듬은 방형의 액내에 法主 李知幻禪寺, 시주 을해생 문흥모, 계해생 김창경, 기사생 김영중, 乙未 六月,이란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⑪ 石燈下臺石(사진 23·24)

천불전에서 칠성각으로 향하는 계단의 입구에 2기가 위치하고 있다. 형상으로 보아 석등의 하대석으로 추정된다. 하대석은 지름 65cm, 높이 33cm 크기인데, 측면에는 각면마다 장방형의 額내에 초화문을 양각하였다. 상면에는 단엽8판의 복연을 조식하였는데, 간지에는 간엽을 표현하고 있다. 상면의 중앙에는 지름 20cm, 깊이 16cm의 간주공이 마련되어 있다. 전체적인 조각수법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조성으로 추정된다.

(2) 사적비 주변

① 三幕寺 事蹟碑(사진 25)

비좌·비신·이수를 갖춘 4면비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다. 비좌는 장방형의 형태로 일부가 매몰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형상은 알 수 있다. 비신에는 4면에 걸쳐 비문이 음각되어 있는데, 마멸이 심한 편이다. 그러나 「朝鮮國京圻 冠岳 山脈甲卯行龍三 聖山下 寺名三幕左有香爐峰」과 「康熙 四八年 丁亥」란 명문으로 보아 1707년(조선 숙종 33)

에 건립된 삼막사의 사적비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시주자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이수는 팔각지붕형으로 네 모퉁이의 합각선이 두툼하게 표현되어 있다. 비석의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cm, 전고 : 253, 비좌 : 95×70×23, 비신 : 190×73×23, 이수 : 40×120×42, 자경 : 6)

② 白蓮庵址(사진 26~28)

종두법의 시행자였던 池錫英의 형인 池雲英이 은거했던 곳이라 한다. 사적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석축과 더불어 건물지로 활용되었던 西向한 대지가 남아 있다. 백련암지의 동편은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면과 측면에 석축을 쌓아 대지를 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쪽에 석축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는데, 길이 4.6m, 높이 2m의 규모로 29cm×30cm - 44cm×38cm 크기의 석재를 쌓아 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암벽에는 18cm×53cm 크기의 장방형의 액을 4cm 깊이로 조성한 후 자경 14cm의 크기로 「神金臺」라 음각한 예서체의 記銘이 있다.

백련암에 은거했던 지운영은 조선 말기 및 근대 초기의 문인화가로 본관은 忠州, 초명은 運永, 호는 雪峰 또는 白蓮이라 한다. 종두법 시행의 선구자인 지석영의 형이다. 金正禧의 제자로 閻巷文人이었던 姜瑋의 문하에서 시문을 배웠다. 1870년대 말에 청계천 광고 부근에 살던 歷官과 醫官 등 기술직 中人들이 강위를 盟主로하여 맺은 六橋詩社의 동인으로 활약하였다. 1880년대 초반에 統理軍國事務衙門의 主事로 개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 후에 김옥균을 암살하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 갔다가 미수에 그치고,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강제귀국 당하여 遠惡地로 유배당하였다. 1895년 유배생활에서 풀려나 상소문을 올려 재기를 꿈꾸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은둔하여 시와 그림에 몰두하게 되었다. 1921년 書畫協會 정회원으로 제1회 서화협회전람회에 출품하였으며, 1922년에는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山人濯足圖를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옛 그림들로 臨模하여 기량을 길렀으며, 특히 산수인물을 잘 그렸다. 그의 화풍은 대체로 중국풍이 짙은 北宗·院體의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독창적인 화풍은 형성하지 못하였으나, 인물과 산수를 적절히 배치하는 구성력은 뛰어났다. 대표작으로 개인소장의 後赤壁賦圖·南極老人壽星圖·東坡先生笠屐圖 등이 있다.¹¹⁾

③ 白蓮庵址 연못(사진 29)

백련암지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는 연못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1977년 안양지역의 대홍수시 백련암지와 함께 유실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시멘트콘크리트로 정비된 채 보존되고 있는데, 후면에는 길이 4.3m, 높이 74cm 규모의 석축이 남아있다. 시멘트로 정리된 연못은 장방형의 형태로 4.3m×2.7m, 깊이 60cm의 규모로 전면에는 너비 30cm,

11) 『民族文化大百科辭典』에서 인용

깊이 35cm의 수로를 개설하고 있다.

④ 三龜字銘(사진 30~32)

지운영이 백련암지에 은거할 당시에 새긴 것임을 명문에 의해 알 수 있다. 북향한 암벽의 전면에 214cm×105cm, 깊이 8cm의 장방형 액을 개설한 후 자경 90cm의 크기로 「龜」자를 음각했다. 「龜」자는 서쪽으로부터 正字, 草書, 상형문자체의 차례로 음각되어 있다. 각자의 말미에는 「佛紀二千九百四十七年庚申重陽, 佛弟子池雲英敬書」란 명문이 있고, 각자의 서두에는 「觀音夢授長壽靈字」란 명문이 있다. 이를 통해 1920년에 지운영이 꿈에 관음보살을 본 후에 이 글씨를 새겼음을 알 수 있다. 각자의 서편 암벽에는 70cm×77cm, 깊이 1cm의 장방형 액 내에 三龜字石刻施主, 光明眼 李貞淑, 戊辰生 朴氏光明相, 大覺心 金東淑, 撫鎮生 李氏光明功, 이란 명문이 자경 8cm의 크기로 새겨져 있다.

⑤ 燈谷臺石窟(一名 元曉굴, 사진 33~46)

백련암지의 동쪽 약 10여m 지점에 위치한 석굴로 일명 원효석굴이라 불리우고 있다. 이 석굴은 일자형으로 동·서의 암벽 중 서벽을 파낸후 상면에 커다란 바위를 놓고 공간에는 여러매의 장대석을 이어 지붕을 씌운 인공석굴로서 정남향을 취하고 있는데, 석실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 석실입구 : 서벽의 중반부에서 굴착된 기저암이 2m의 높이에서 약 50도 정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기저암의 상면은 1.4m×1m 정도로 암반을 평평하게 다듬어 한사람 정도가 앉아서 수도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기저암과 서벽의 인접면은 같은 암질이 연속되고 있어 서벽의 일부를 굴착했음을 알 수 있다. 암반의 북쪽은 인위적으로 막음을 한 반면 남쪽은 325cm×190cm 크기로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다.

- 서벽 : 높이 7.8m, 너비 2.5m의 암반의 중단 이하 부분을 굴착한 것으로 보인다. 외벽과 전면은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상태이지만, 내벽에는 목조가구의 흔적이 역력하다. 즉, 안쪽으로부터 9cm×13cm×3.5cm와 9cm×13cm×5.5cm 크기의 장방형 구멍을 각각 상·하에 굴착한 후 바깥쪽에 연하여는 길이 110cm의 장방형 흠을 낸 후 하단에 16cm×21cm×8cm 규모의 장방형 구멍을 굴착하고 있다.

- 동벽 : 높이 4.2m, 너비 2.2의 암반으로 외벽과 전면은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지만, 내벽에는 목조가구의 흔적이 역력하다. 즉, 안쪽으로부터 9cm×13cm×4.5cm와 9cm×13cm×3.5cm 크기의 장방형 구멍을 각각 상·하에 굴착한 후 바깥쪽에 연하여는 길이 110cm의 장방형 흠을 낸 후 하단에 15cm×21cm×5cm 규모의 장방형 구멍을 굴착하고 있다.

- 북벽 : 117cm×57cm 크기 석재의 반듯한 면을 남쪽으로 놓아 벽체를 구성한 후 32cm×22cm - 47cm×40cm 크기의 석재를 2-4단 정도 쌓아 막았다. 전체 높이는 1.1m로 각

석재의 틈새에는 썰기돌을 놓아 안정감과 방풍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천장 : 석실을 정면에서 바라 볼 때 가장 바깥 쪽에는 요철형의 보를 놓아 양쪽 바위의 면을 이용해 상면의 축을 구성하고 있다. 바로 뒷편에 대형암반을 놓았는데, 완만한 돌출면을 안쪽으로 놓아 지붕의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후 내벽과 지중돌의 틈새에는 23cm×96cm - 43cm×110cm 크기의 장방형 석재를 비스듬히 놓아 전체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석실 내부에서 천장을 바라 볼 때 북벽에서 장대석이 비스듬히 놓인 후 대형암반으로 썩 막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 상면 : 5.3m×4.9m 넓이의 평평한 암반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을 신선대라 부르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조망은 시계가 좋은날 인천과 서해바다가 보일 정도로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남쪽에 인접해서는 석실의 천장을 구성하는 석재의 바깥면이 노출되어 있어 인공적인 시설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석실의 전면에는 사방 2m 정도의 평평한 대지가 구축되어 있고, 이의 중앙부에 편평한 석재가 박혀 있어 동·서벽의 구조와 더불어 목조가구의 흔적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석실 상면의 신선대로 오르는 길목에 있는 바위에는 전체 3단으로 구성된 인위적인 계단이 굴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석굴의 서편 아랫쪽에는 42cm×96cm 크기의 장방형 액내에 「燈谷臺」란 명문을 자경 25cm의 크기로 음각한 325cm×359cm 크기의 암반이 있다. 암반의 아랫쪽에는 사다리꼴형의 고석주 1기가 있다. 이 석주는 하단부에 일변 48cm의 방형 받침과 높이 118cm의 사다리꼴형의 기둥이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 高柱石은 석실의 동·서벽에 굴착된 목조가구의 아랫쪽 구멍으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이 석주의 높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석실의 전면을 구성했던 목조가구와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칠성각 주변

① 磨崖三尊佛(사진 47~50)

산등성이에 형성된 암벽에 높이 1.7m, 너비 2.1m의 감실을 깊이 7cm로 조성하고 삼존불을 양각했다. 중앙에 위치한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을 둔 3존불의 형식인데, 1980년 6월 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94호로 지정되었다.

본존불은 素髮의 머리 상면에 작고 낮은 肉髻를 두었고, 중앙에는 반달형의 髻珠가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인 머리의 형상은 삼각형의 구도를 보이고 있다. 상호는 사각형에 가까운데, 두툼한 눈과 코, 입, 통통한 볼 등이 율동감있게 묘사되어 있다. 이마에는 백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코는 파손되어 현재는 시멘트로 보수해 놓았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중후하고 자비스러운 인상을 풍기고 있다. 양 귀는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았는데, 목이 짧아 잔뜩 움츠린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법의는 통견으로 두껍게 묘사되어 가슴의 일부를 제외하면 아무런 질감을 느낄 수 없다. 오른쪽 어깨의 의문은 간략하게 처리하였으나, 왼쪽

은 5조의 옷주름이 거드랑이 안쪽으로 흐르고 있다. 가슴에는 일자형의 내의주름 및 매듭이 표현되어 있다.

양 팔은 가지런히 내려 배꼽 부근에서 모았는데, 양쪽 엄지손가락을 맞댄후 나머지 네손가락은 각지를 끼고 있다. 이같은 수인의 상면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다. 양 무릎은 가부좌를 들고 있는데, 오른발만 밖으로 노출된 半跏趺坐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무릎의 의문은 소략하게 처리하였는데, 비교적 유려한 곡선미를 보이고 있다.

좌·우의 협시보살중 오른쪽의 보살은 머리에 三山冠을 쓰고 있다. 타원형의 상호에는 눈·코·입이 뚜렷하게 묘사되었는데, 입가에는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다. 양쪽 귀는 길게 늘어져 양 어깨에 닿았다. 법의는 통견으로 본존과 같이 두겹게 묘사되었고, 의문의 수법 역시 같은 양식을 보이고 있다. 양 손은 가슴에 모아 合掌印을 취하고 있다. 양 무릎은 가부좌를 들고 있는데, 오른발만 밖으로 노출된 半跏趺坐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하단에는 연화문으로 대좌를 마련하였는데, 단엽 8판의 화문을 한송이로 조각하였는데, 보살좌상은 이의 중앙에 봉안되어 있다. 왼쪽의 보살 역시 전체적인 면에서 오른쪽의 보살과 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만 상호에서 약간의 근엄성이 보이는 점과, 연화좌에서 단판 8엽의 화문이 펼쳐져 일반적인 대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점만이 다르다. 삼존불의 명칭은 기록된 바 없지만, 보존각의 명칭이 七星殿인 점을 볼 때 熾盛光如來三尊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양식을 지닌 삼존불의 하단에는 乾隆二十八年 辛未八月 日 悟心 首施主徐世俊의 명문이 楷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음각되어 있다. 명문에 의하면 삼존불은 1763년(조선 영조 39)에 오십과 서세준의 발원에 의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삼막사 삼존불은 명문에서 보듯이 1773년에 조성된 것으로서 신체에 비해 상호가 크게 표현된 점, 목의 표현을 생략하여 신체에 경직성이 강한 점 등에서 신체비례를 상실한 감은 있지만, 상호의 미소, 수인과 발등 및 의문에서의 세련된 미는 當代 불상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불상의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cm. 본존불 : 전고:152, 두고:46, 두폭:30, 전폭:60, 흉폭:20, 슬폭:100, 슬고:34. 오른쪽 협시불 : 전고:120, 두고:30, 두폭:18, 전폭:39, 흉폭:12, 슬폭:62, 슬고:48. 왼쪽협시불: 전고:116, 두고:30, 두폭:20, 전폭:36, 흉폭:12, 슬폭:60, 슬고:37.)

② 七星閣(사진 51~53)

삼존불이 봉안된 전각으로 정서향을 취하고 있다. 뒷벽의 암반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 맞추어 건립된 까닭에 건물의 평면 또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단의 전면에는 높이 110cm의 사다리꼴 고주초석 2기를 놓아 수평을 잡았는데, 전면 중앙에는 6단의 계단을 마련하였다. 건물의 내부에는 250cm×205cm 크기의 마루를 깔고, 벽체를 형성하였는데, 뒷벽에 삼존불을 봉안한 후 지붕을 씌웠다. 건물의 전면에는 2개의 문짝을 달아 계단을 통해 출입하고 있고, 북쪽벽에는 작은 창문을 개설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의 후면에는 35cm 크기

의 동자주를 놓아 다시 지붕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건물의 후면 암벽 상단에 목조전실과 관련된 12cm×16cm×6cm 크기의 방형 구멍이 개설되어 있고, 현재의 목조전실은 이보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건물은 후대의 보수시 원래의 규모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칠성각의 주변 암벽에는 다음과 같은 초창 및 중창의 명문이 있어 건물의 명칭 및 건립연대를 알 수 있다.

가) 初創銘文

칠성각의 남쪽 하단 암벽에 새겨져 있다. 암벽의 전면에 96cm×60cm, 깊이 5cm 크기의 장방형 액을 조성한 후 자경 4cm의 크기로 명문을 새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朝鮮國衿川縣三聖山七星殿，佛像法堂新建大施主秩，金萬眞 文春光，善女 ^{處海} 姜世珍，千德重 ^{處澄}

崔德龍，安國光 姜弼周 引助，通政金永贊，己亥生宋氏女韓，壬寅生 宋氏，金世俊，處士性海，丙午生元氏，金大聖，元應良，壬寅生金氏，乾隆二十九年甲申九月日畢功，大功德主悟心上佐別座進察，

나) 重建銘文

칠성각의 북쪽 암벽에 새겨져 있다. 암벽의 전면에 67cm×61cm, 깊이 4cm 크기의 장방형 액을 조성한 후 자경 5cm의 크기로 명문을 새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七星閣新建重建大施主，乾命辛亥生金周容，乾命辛亥生金大容，奉母丁丑生趙氏，以此功德往生淨土，光緒七年辛巳四月日，

이상의 명문을 볼 때 칠성각은 불상이 조성된 다음해인 1764년(조선 영조 40)에 창건된 이후, 1881년(고종 18)에 중건했음을 알 수 있다. 창건시의 발원은 불상의 조성과 같은 오십이었고, 전각의 명칭은 「七星殿」 또는 「七星閣」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걸려 있는 「七賢殿」은 칠성각과 의미는 통한다고 할 지언정 정확한 명칭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각의 현판은 기록된 바 그대로 칠성각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③ 男·女根石(사진 54~56)

칠성각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기도 민속자료 3호로 지정되어 있다. 자연형상의 바위가 남자와 여자의 성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옛부터 민간신앙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고 한다. 남근석은 높이 1.9m의 크기로 중반에는 지름 8cm, 깊이 3cm 크기의 성혈이 2개소에 개설되어 있다. 여근석은 140cm×150cm×95cm의 크기이다. 양 바위의 하단에는 높이 5.3m, 길이 2.5m의 석축이 현존하는 점으로 보아 바위의 갈라진 틈새에 석축을 쌓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바위의 형상이 남·녀 성기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어 옛부터 아들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치성을 드렸다고 하며, 일설에는 원효대사가

삼막사를 창건하기 이전부터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였다고 한다. 이 바위를 만지면서 자식을 원하고, 一家의 번영과 무병 및 장수를 빌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4월초파일과 칠월 칠석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차리고 기원을 한다고 한다.

이같은 성기신앙은 선사시대로부터 비롯된 신앙의 한 형태로서 주로 多産과 豐饒, 무병 장수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무속·풍수·미륵신앙등과 어우러지며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4) 기타유적

본 항에서는 앞에서 기술하지 않은 유적 및 유물과 1990년의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을 비롯한 유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1979년에 삼막사를 조사한 바 있는데, 당시의 필름이 보관되어 있어 당시의 조사기록을 중심으로 이를 서술하고자 한다.

① 三幕寺 岩刻畫(사진 57)

백련암지의 부근에 정서향한 암벽의 상단에 음각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상은 돛을 단 배가 항해하는 장면으로, 주변에는 물새가 나는 장면이 음각되어 있다. 돛에는 한글로 생각되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 조각이 깊고, 매우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근년에 조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懸板

망해루의 1층에 있는 창고를 조사하던 중 5매의 목제현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표면에 회칠은 한 후 세로로 각각 칸을 나누는 후 내면에 시주자의 명단을 적고 있다. 離記하는 과정에서 판독이 불가능 하거나, 지워진 부분은 □로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조사된 목제현판 각각의 현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三幕寺 懸板(사진 58)

94cm×36cm크기의 목제 현판으로 가장자리에는 붉은색의 칠을 한 額을 남겼는데, 내면에는 「三幕寺」한 명문이 자경 27cm의 크기로 양각되어 있다.

나) 大雄寶殿重修記(사진 59)

124cm×48cm 크기의 목제 현판으로 가장자리에는 초록색의 칠을 한 額을 남겼다. 현판의 전면에는 3단으로 구획을 한 후 다시 각면을 50간으로 나누어 시주자의 명단을 목서했다. 이 현판은 내용으로 보아 1896년(고종 33)에 대웅전을 중수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찰에서 전하는 바 대로 應月大使에 의한 대웅전의 중수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겠다. 각 단별로 확인된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京畿道始興郡三聖山三幕寺大雄寶殿重修記

1단

大施主

尙宮清信女甲申生 河氏鄭德華，尙宮清信女壬辰生 趙氏妙法行，清信女壬辰生 金氏德盛華，尙宮清信女丙申生 宋氏，尙宮清信女辛巳生 南氏普寂華，尙宮清信女癸未生 金氏，尙宮清信女庚子生 朴氏梅連華，尙宮清信女甲辰生 安氏賢德華，尙宮清信女癸亥生 李氏萬德華，尙宮清信女丙戌生 池氏永德華，尙宮清信女戊子生 金氏盛德華，尙宮清信女戊戌生 洪氏華慶月，尙宮清信女甲辰生 洪氏，尙宮清信女丁亥生 金氏壽慧月，尙宮清信女己酉生 劉氏妙明心，清信女丙子生許氏 慈悲行，清信女戊申生方氏 寶月行，乾命癸丑生 姜友馨，乾命壬戌生 金友鎮，乾命丁卯生 安丁煥，乾命丁丑生 李興範，乾命戊辰生 李氏，乾命壬子，生金孝臣，乾命甲寅生 李禮卿，乾命丙午生 金東奎，坤命壬戌生 朴氏 兩主，乾命壬子生 崔聖文 兩主，坤命戊午生 李氏，乾命丙寅生 崔善默 兩主，坤命戊辰生 金氏，乾命金俊尙，乾命甲辰生 金宗石，坤命辛亥生 白氏 兩主，乾命己酉生 李寬振，坤命己酉生 金氏 兩主，乾命丙子生 洪兢裕，乾命 崔原，乾命 姜最秀，乾命甲子生 徐甲芑，乾命庚申生 李□□，坤命甲子生 朴氏 兩主，乾命戊辰生 李裕慈，乾命 朴應守，乾命 延璟羽，乾命戊辰生 盧禹兼，乾命庚午生 盧聖□，乾命 金善教，乾命丁丑生南□□，

2단

乾命 白世基，乾命 文欽善，坤命庚申生 許氏 兩主，乾命壬戌生 宋欽振，坤命甲寅生 李氏 單，乾命乙卯生 宋□永，乾命庚□生 張□□，□子辛卯生 張千禹，乾命癸卯生 姜爽永，長子庚午生 姜弼馨，乾命丙午生 尹氏，乾命甲午生 金仁昌，坤命癸巳生 洪氏 兩主，長子庚午生 金應漢，乾命甲子生 尹滋容，坤命丙午生 金氏 單，乾命辰申生 安昌基，乾命壬辰生 金璟華，童子癸未生 崔壽鳳，乾命丁丑生 金潤洙，坤命丙子生 全氏，坤命甲申生 宋氏，乾命辛亥生金□□，乾命□□金□□，乾命庚，乾命癸□生 金永漢，乾命庚寅生 金永□，乾命庚申生 鄭在鎬，乾命??生 具明俊，乾命壬寅生 吳順祿，乾命辛亥生 李昌植，乾命丙午生 鄭祖舜，乾命乙卯生 宋明三，乾命丙寅生 林昌相，乾命壬辰生 李□容，乾命癸卯生 金□□，乾命丙寅生 徐炳俊，乾命丁未生 鄭祖榮，乾命丁卯生 高永默，乾命辛未生 朴三童，乾命 李默芑，乾命癸亥生 李□範，乾命 □載城，乾命 □□□，乾命 金鎮泰，乾命丙寅生 李宗□，乾命丙申生 張樂仁，乾命丙辰生 張允珪，

3단

乾命丁酉生 李斗衡，坤命戊寅生 氏 單，乾命丁卯生，乾命壬寅生 成禹慶，乾命庚申生 成耆秉，乾

命己巳生 吳哲泳, 乾命己酉生 張灃, 乾命丙子生 韓龍浩, 乾命己未生 李奉念, 乾命己酉生 申錫基,

乾命丁酉生 洪元柱, 乾命甲寅生 林永洙, 坤命壬子生 朴氏 兩主, 乾命甲寅生 池學奎, 緣化秩, 都片手比丘 世觀, 副片手丙午生 金昌海, 乾命庚戌生 金□吉, 乾命己酉生 鄭憲時, 乾命己未生 金元五, 乾命癸卯生 李六延, 乾命戊申生 張善□, 乾命乙卯生 朴完學, 乾命丁卯生 李允植, 乾命乙未生 鄭豐時, 化主應月□□, 都監德山敦明, 別坐 善超, 頭僧 □咸, 三□長悟, 比丘 □隱德喜, 比丘 永□, 比丘 益珠, 寶船, 元能, 幸恩, 桂業, 石範, 昌海, 仁義, 德完, 允照, 蓉澤, 海雲, 昌熙, 元成, 永文,

建陽元年開國五百年十月日,

다) 大雄寶殿與各項重脩記(사진 60)

86cm×33크기의 목재 현판으로 전면을 2단으로 구획을 한 후 다시 각면을 40간으로 나누어 시주자의 명단을 목서했다. 이 현판은 내용으로 보아 1922에 住持 沈桂華와 朴奉林, 金斗弘 등에 의해 대웅전을 비롯한 부속건물들에 대한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佛事에는 명문의 내용을 볼 때 경성부, 고양군 등지에 있는 신도들의 참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단별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雄寶殿與各項重脩記,

大明照□輝互萬世之慧月開悟衆,

生賴一往之□豈不暢哉,

大正十一年壬戌十月十五日 住持沈桂華 化主朴奉林 事察金斗弘,

1단

京城府,

李根滸 一金拾圓, 申錫雨 一金拾圓, 龍在天 一金貳拾圓, 韓聖根 一金拾圓, 李應善 大好紙陸東, 金相遠 一金壹圓, 鄭錫俊 一金貳圓, 金永元 一金壹圓, 車元泰 一金壹圓, 金珪熙 一金拾圓, 金順天 一金參圓, 李高七 一金參圓, 韓潤鎬 一金參圓, 崔美童 一金貳圓, 坤命金氏 一金壹圓, 坤命姜氏 一金壹圓, 坤命徐氏 一金壹圓, 坤命韓氏 一金壹圓, 坤命許氏 一金壹圓, 乾命朴氏 一金壹圓, 坤命安氏 一金伍拾錢, 坤命金氏 一金壹圓, 坤命申氏 一金壹圓, 金允成 一金貳圓, 坤命辛酉生 一金伍圓, 許滿 一金壹圓, 文淑賢 一金壹圓, 徐遠根 一金貳圓, 姜普俊 一金貳圓, 河聖烈 一金壹圓, 姜信膺 一金參圓, 閔學勳 一金壹圓, 金虎圭 一金參圓, 姜天熙 一金參圓, 金裕烟 一金伍圓, 金聖□ 一金參圓, 李興澤 一金壹圓, 李仁化 一金參圓, 金龍瑞 一金貳圓, 吳國敬 一金貳圓,

2단

高陽郡

成興俊 一金貳圓, 金鎮泰 一金貳圓, 高天順 一金壹圓, 李允植 一金壹圓, 清信女清淨月朴氏 一金壹圓, 乾命丙寅生梁氏 一金貳十圓, 金洛榮 一金拾圓, 金豐鎬 一金伍圓, 韓永煥 一金白紙一紐, 朴鳳來 一金貳圓, 朴元植 一金壹圓, 李景一 一金伍圓, 坤命金氏 一金伍圓, 朴昌淳 一金洋□枚, 李錫周 一金壹圓, 金弘植 一金貳圓, 申錫基 一金參圓, 金範淳 一金壹圓, 高濟翊 一金參圓, 高文相 一金伍圓, 申泰三 一金貳圓, 坤命李氏 一金壹圓, 乾命朴氏 一金壹圓, 乾命李氏 一金壹圓, 坤命洪氏 一金壹圓, 坤命金氏 一金貳圓, 李吉元 一金壹圓, 黃銀石 一金壹圓, 崔冥澤 一金壹圓, 鄭仁煥 一金壹圓, 金明淑 一金壹圓, 金鍾洙 一金壹圓, 鄭德永 一金貳圓, 坤命徐氏 一金壹圓, 清信士大願行吳氏 一金壹圓, 清信女寶蓮華吳氏 一金壹圓, 坤命孫氏 一金壹圓, 清信女善道華金氏 一金壹圓, 坤命 一金壹圓, 金永鍾 一金伍圓,

라) 施主者 名單(사진 61)

86cm×33크기의 목재 현판으로 전면을 2단으로 구획을 한 후 다시 각면을 48간으로 나누어 시주자의 명단을 목서했다. 이 현판은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아 大雄寶殿與各項重脩記의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 시흥, 부천, 광주, 수원 및 남원군에 거주했던 信者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음을 보아 당시 삼막사의 寺勢를 짐작케 한다. 각 단별로 확인된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

仁川□

坤命金氏 一金貳圓, 崔興洵 一金參圓, 朱命基 一金伍圓, 申善明 一金參圓, 申仲謨 一金貳圓, 柳在業 一金壹圓, 金永澤 一金貳圓, 趙基鳳 一金貳圓, 洪慶裕 一金壹圓, 沈宜哲 一金貳圓, 姜濟先 一金壹圓, 韓道瑞 一金壹圓, 朴宗植 一金壹圓, 安鍾瑄 一金伍圓, 李德昌 一金伍圓, 坤命申氏 一金貳圓, 鄭元奎 一金參圓, 坤命崔氏 一金拾圓, 始興郡, 梁柱鶴 一金貳圓, 朴奎煥 一金貳圓, 朴德成 一金貳圓, 朴善澤 一金壹圓, 李景植 一金壹圓, 尹性天 一金貳圓, 金成俊 一金貳圓, 金鎮玉 一金貳圓, 金永植 一金壹圓, 南華景 一金貳圓, 柳台熙 一金壹圓, 成白寬 一金壹圓, 河舜泓 一金壹圓, 成善玉 一金貳圓, 姜明玉 一金貳圓, 成樂游 一金貳圓, 始興北面道林里大同 一金伍圓, 河漢泓 一金壹圓, 河仁泓 一金壹圓, 河泰泓 一金壹圓, 梁理燮 一金拾圓, 金雨均 一金貳圓, 金德均 一金壹圓, 金潤泰 一金壹圓, 坤命朴氏 一金壹圓, 鄭璣永 一金貳圓, 邊景煥 一金壹圓, 金昌綠 一金貳圓, 尹元七 一金壹圓,

2단

朴斌桓 一金壹圓, 李龍植 一金壹圓, 李星燮 一金壹圓, 權泰遠 一金壹圓, 金潤泰 一金壹圓, 金奎煥 一金貳圓, 金允元 一金壹圓, 朴春實 一金貳圓, 金善益 一金貳圓, 李海宗 一金貳圓, 金錫基 一金壹圓, 金尙添 一金壹圓, 鄭景伯 一金伍圓, 李鳳雨 一金壹圓, 富川郡, 李順基 一金貳圓, 張聖習 一金壹圓, 尹錫九 一金壹圓, 坤命伍氏 一金壹圓, 申日□ 一金肆圓, 廣州郡, 秋教賢 一金貳圓, 水原郡, 吳舜泳 一金伍圓, 李頭模 一金壹圓, 南原郡, 林震燮 一金貳圓, 本寺, 池桂華 一金貳拾圓, 朴雷虛 一金貳圓, 金西應 一金壹圓, 金白峰 一金貳圓, 李松曇 一金貳圓, 表德恩 一金壹圓, 全月松 一金貳圓, 李敬植 一金壹圓伍拾錢, 金鍾範 一金壹圓, 崔聖思 一金貳圓, 金聖念 一金貳圓, 金來南 一金壹圓, 崔奉煥 一金壹圓, 宋亘允 一金壹圓伍拾錢, 車永化 一金壹圓伍拾錢, 朴尙學 一金壹圓, 朴奉林 一金伍圓, 池正厚 一金伍圓, 金斗弘 一金壹圓, 金敬訓 一金壹圓, 吳三龍 一金壹圓, 李鍾三 一金貳圓, 李鍾根 一金壹圓, 李俊九 一金壹圓, 池學奎 一金壹圓, 李種煥 一金壹圓, 金在順 一金壹圓, 河德允 一金壹圓, 片仁植 一金壹圓, 河相奇 一金壹圓, 池龍漢 一金壹圓, 池龍成 一金壹圓, 池龍順 一金壹圓, 清信女甲戌生尹氏 一金壹圓, 清信女乙亥生成氏 一金壹圓, 坤命辛巳生金傷川 一金伍拾錢,

마) 改金佛事同參記(사진 62)

123cm×33cm 크기의 목재 현판으로 전면을 2단으로 구획을 한 후 다시 각면을 50간으로 나누어 시주자의 명단을 목서했다. 경성, 인천, 수원에 거주했던 信者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말미의 목서명으로 보아 1928년 4월에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에 대한 改金佛事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단별로 확인된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改金佛事同參記

京畿道始興郡三聖山三幕寺

大雄寶殿改金重脩三尊改粉重修四位

1단

京畿府, 清信女丁卯生宋氏妙音性金箔, 長子癸丑生金鎔德 四十束, 子婦庚寅生宋氏 白米, 孫子戊午

生金昇權 一叀, 孫子壬戌生金仲權 白粉, 女息庚戌生阿只三十, 女息甲寅生阿只五□, 女息庚申生阿只, 次子丙午生金鎔玉, 子婦辛卯生張氏, 孫子辛酉生金英權, 乾命戊寅生金龍雲 一金五圓, 乾命丙午生金□粥 一金二十圓, 乾命甲申生金永成 一金五圓, 乾命甲午生金永祥 一金一圓, 乾命丁亥生鄭奎容 一金二十圓, 坤命丙戌生李氏, 乾命壬午生張基鴻 一金四圓, 坤命癸未生金氏, 乾命戊子生金裕烟 一金五圓, 乾命庚子生金千□ 一金五圓, 乾命

戊戌生宋命鎬 一金拾円, 坤命丁卯生崔義俊 一金一円, 乾命乙酉生金順天 一金五円, 坤命甲戌生申氏, 乾命乙丑生李興澤 一金二円, 乾命丙戌生李仁化 一金五円, 乾命 生明眞淳 一金五円, 無名氏 一金五円, 清信女庚午生金氏慈時日, 長子丙申生姜信膺 一金三円, 坤命丙子生林氏 一金五円, 長子乙巳生姜天熙, 乾命乙丑生徐璋淳 一金二円, 乾命丁卯生崔翼鉉 一金一円, 乾命乙未生尹氏 一金一円, 清信女庚午生張氏信徳各, 清信女丙子生張氏金輪華一, 清信女癸酉生田氏大光明円, 清信女乙亥生金氏德雲華, 坤命乙丑生崔氏 一金三円, 孫子乙酉生金德中 一金三円, 乾命癸巳生李釗芑 一金三円, 乾命庚申生金永益 一金二円, 乾命丙寅生丁俊 一金二円, 仁川府, 坤命丁卯生崔氏 一金拾円, 乾命甲午生 申□根, 童子甲 生申永淳 一金五円, 乾命戊辰生李永喜 一金十円,

2단

坤命己未生金氏, 長子庚申生李大根, 乾命甲申生李聖奎 十円, 坤命戊申生金氏, 乾命癸巳生金圭煥 一金五円, 乾命庚申生金成一 一金拾円, 坤命庚申生 金氏, 長子丙戌生 金仁鎬, 高陽郡, 乾命辛巳生 金教聲, 乾命生金命令根, 乾命辛未生金兌鎬, 乾命 生金漢植, 乾命生車東煥, 乾命癸未生池成煥 一金五円, 童子辛酉生池基潤, 乾命丙申生金春培 一金五円, 乾命 生朴昌□ 一金一円, 始興郡, 坤命丁亥生鄭氏 一金拾円, 女息癸亥生梁正順, 乾命甲午生梁銀釗 一金五円, 乾命丁酉生金善龍 一金五円, 坤命丁巳生文氏 一金五円, 坤命壬申生文氏 一金五円, 乾命丁卯生李庚義 一金一円, 乾命乙未生徐丙傷 一金二円, 水原郡, 童子庚戌生俞鎮浩 一金五円, 乾命己巳生朴秀寬 一金五円, 長子甲辰生朴彰熙, 乾命戊戌生尹泰仁 一金五円, 童子丙寅生李東九 一金三円, 乾命甲戌生李容默 一金五円, 清信女癸卯生金氏□德華 一金二円, 童子戊辰生金龍華 一金一円, 證明比丘全登文 月松, 誦祝持殿池龍漢, 金漁比丘金文性普□, 黃成烈雪初, 鐘頭崔景允 茶角石喜甲, 供司朱亘允 別供朴海龍, 別供羅錫鳳 李鐘煥, 淨桶林千甫 地排姜德秀, 別座比丘李德煥恩國 李幸恩松曇, 都鑑比丘池桂華座月, 化主比丘池正厚華連,
世尊降生二千九百五十五年戊辰四月初八日,

③ 大雄殿 (사진 63)

1990년 10월 12일의 화재로 전소된 건물로, 현재는 육관음전이 대응전의 위치에 건립되어 있다. 이 건물은 삼막사의 창건시부터 있던 것으로 조선초에 무학대사가 석조기둥으로 중창하고, 1975년에 李知幻 주지스님이 중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다포계 건물이다. 4단의 장대석으로 구축된 기단위에 치석한 4각기둥을 놓고 석재로 조성된 팔각의 기둥을 세워 건립하였다. 단청이 화사한 3출目の 포로 구성된 다포집으로 공간포가 1結씩 배치되어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한식골기와를 올렸는데,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본래 삼막사의 중심을 이루었던 법당으로,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각 부가 정연하여 조선시대 후기의 양식을 지닌 전물이었다.

법당내에는 準提菩薩坐像, 千佛, 각종 탕화 및 동종이 있었으나, 모두 소실되었다.

④ 大雄殿內 準提菩薩坐像(사진 64)

종이로 조성된 지불로 전체 높이는 107cm이다. 머리에는 금속제로 된 보관을 썼는데, 좌·우에는 장식이 길게 느리워져 있다. 相好는 圓滿相으로 白毫, 눈꼬리가 올려진 양 눈, 길게 삼각형으로 된 코, 얇은 미소를 머금은 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양 귀는 목의 중반까지 늘어졌는데, 컷볼에는 꽃잎이 새겨진 원형의 귀거리를 착용하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표현되었는데, 노출된 가슴에는 길게 늘어진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양 어깨로부터 4조의 넓은 U자형의 의문이 배꼽 아래까지 유려하게 시문되어 있다. 가부좌를 튼 양 발목의 사이에는 부채꼴형의 의문이 넓게 시문되어 있다. 양 손은 외장하여 엄지와 곤지손가락을 맞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조성수법과 양식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색이 찬연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한데, 1990년 10월 12일의 화재로 대웅전과 함께 소실되었다. 준제보살은 과거 칠억부처의 어머니가 된 부처로 알려져 있다.

⑤ 大雄殿內 銅鐘(사진 65~67)

높이 102cm, 구경 61cm의 소형 동종으로 대웅전내에 봉안되어 있었다. 龍鈕는 쌍용으로 날카로운 발톱으로 鍾身을 움켜쥐듯 매달고 있다. 上帶에는 상·하 2단의 장방형 액내에 각각 1자씩의 梵字가 양각되어 있다. 4개소에 마련된 乳廓은 上帶와 인접하였는데, 周緣에는 보살당초문이 양각되었다. 유곽의 내부에는 6엽의 화문위에 半球形의 돌기를 얹은 9개의 乳頭가 배치되어 있다. 유곽의 사이에는 菩薩立像과 位牌가 한조를 이루며 각각 배치되어 있다. 보살입상은 구름위에 서서 두손을 모아 연꽃을 들고 있는 형상인데,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조각하였다. 鍾身의 하단부에는 명문대가 있는데, “天啓五年乙丑二月日”이란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1625년(인조 25)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下帶에는 草花紋이 양각되어 있다.

이 종은 조성연대가 뚜렷하고, 각 부의 문양은 壬亂後期の 문양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었는데, 1990년 10월 12일의 화재로 대웅전과 함께 소실되었다. 현재 망해루의 창고에는 화재로 인해 파손된 종신의 일부 및 용뉴 등의 파편이 보관되어 있다.

삼막사에는 이상과 같은 많은 유적을 비롯해 1771년(영조 47)에 작성된 사적기가 있는 바, 원문과 번역문의 순으로 수록한다. 아울러 주지스님으로부터 삼막사에 얽힌 전설을 채록한 바 있는데, 이 또한 본 장의 말미에 수록한다.

三聖山三幕寺¹²⁾事蹟

三幕寺在衿川東北十里 寺之長老以其事蹟請余爲文曰 新羅時有僧元曉¹³⁾善學佛與其弟義湘¹⁴⁾潤筆¹⁵⁾ 結茅於是 修明奧旨 人名其山曰三聖 厥後幾百年 道詵¹⁶⁾自湖南靈巖 來求其墟 剪蕪穢作精室設像行道 名曰觀音¹⁷⁾ 寺居無何 入中國尋一行禪師¹⁸⁾得其法 而歸則乾符初也 詵以其術遇知於高麗太祖創統之際 立五百禪補以鎮山川氣脈 是山在其數內乃重葺法宇稍增舊制 謂其徒曰 中原韶州地有三藐寺 其東有牛川西有麟角爐峯立其前巖在其後 此地之峯然而秀冷然而清者無乃與彼相類乎 遂號曰三藐 禪老講伯聞風而至蔚爲叢林之首 至戊子¹⁹⁾懶翁惠²⁰⁾勤²¹⁾自休菴來寓是寺 翌年春指空²²⁾亦自大都齋牛頭降眞 而來會諸海東善男子聞道場建

- 12) 삼막사(三藐寺)라고도 한다. 삼막은 삼막삼보리(三藐三菩提; Samyaksambodhi)를 의미한다. 이는 正遍知, 正遍道 또는 正等正覺이라 번역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를 말한다.
- 13) 원효(617~686)의 이름은 薛誓幢, 薛新幢이다. 仍皮公의 손자로 奈麻 談捺의 아들이다. 押梁郡 佛地村(경북 경산군 자인면)에서 태어나 32세에 황룡사에서 출가하였고, 686년(신문왕6) 나이 70세로 穴寺에서 입적하였다. 그는 불교사상의 종합과 실천에 노력한 큰스님이다. 특히 『金剛三昧經疏』는 『金剛三昧經論』이라 불릴 정도로 영향을 주었고, 『十門和諍論』에 그의 중심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신라 10賢의 한 분인 薛聰이 그의 아들이다.
- 14) 의상(625~702)은 華嚴宗의 開祖로 인식되고 있는 분이다. 644년(신덕왕13) 29세에 출가하여 皇福寺에서 스님이 되었다. 661년 당에 들어가 중국 화엄종의 큰 스님인 智儼의 밑에서 교학을 연구하였다. 676년 浮石寺를 세우고 『華嚴經』을 강론하여 왕실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교화를 펼쳤다. 저술로 『華嚴一乘法界圖』, 『白花道場發願文』 등이 있고, 특히 중국의 賢首가 지은 『華嚴經探玄記』에 비판을 가한 사실은 유명하다. 78세에 입적하였고 고려 숙종으로부터 『海東華嚴始祖 圓教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의 문하에 悟眞, 智通, 表訓, 眞定, 能仁 등 10명의 스님이 유명하다.
- 15) 상세하지 않다.
- 16) 도선(827~898)은 호는 烟起, 자는 玉龍子, 玉龍으로 朗州 鳩林村(전남 영암)에서 태어났다. 841년(문성왕3) 15세에 출가하여 月遊山 화엄사에서 經을 공부하였다. 846년에 桐裏山 寂忍 慧徹에게서 『無說說無法』를 배워 禪旨를 깨달았다. 특히 陰陽地理說과 風水相地法에 뛰어나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시조로 인식되고 있다. 그의 『道詵秘記』는 다분히 密敎의인 색채를 띤 것으로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영향을 주었다. 898년(효공왕2) 72세로 玉龍寺에 입적하였다.
- 17) 신라 진성여왕 3년(895) 도선국사가 창건하였고, 1924년 住持 石洲가 중창했다고 전해지나 현존하는 건물은 현대식 사찰이다. 大雄殿과 龍王閣, 三聖鑑, 鐘樓, 寮舍가 있다.
- 18) 일행(?~727)은 大慧禪師의 이름이다. 普寂에게 출가하였고 金剛智三藏에게 밀교를 배우고 善無畏와 함께 『大日經』을 번역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開元 15年 입적하였다.
- 19) 고려 충목왕4년(1348)이다.
- 20) 본문에는 惠字가 누락되어 있다.
- 21) 혜근(1320~1376)의 처음 이름은 元惠로 호는 懶翁이다. 20세때 공덕산 묘적암에 가서 了然에게 출가하여 24세에 양주의 회암사에서 4년동안 좌선하여 깨달음을 이루었다. 元에 들어가 指空에게 법을 물었고, 사방으로 善知識을 찾아 돌아 다녔다. 1358년 귀국하여 오대산에 있다가 1371년 王師가 되어 『大曹溪禪敎都總攝 勤修本智 中興祖風 福國祐世 普濟尊者』의 호를 받았다. 檜岩寺를 크게 중건하여 文殊會를 열기도 했다. 1376년 왕명으로 밀양의 영원사로 가다가 여주의 신희사에서 57세로 입적하였다. 李穡이 지은 비가 회암사에 있다.
- 22) 지공(?~1363)의 梵名은 Dhyanaśhadra로 禪賢이라 번역한다. 迦葉으로부터 108대에 해당한다. 인도 마가다국의 滿王의 제3왕자로서 8세에 나란다사의 律賢에게 출가하였다. 19세에 남인도의 普明에게서 衣鉢을 전해받고 서역을 떠나 중국에 왔다. 충숙왕 15년(1328)에 우리 나라에 와서 금강산 法起道場에 예배하고 그해 7월에 延福亭에서 戒를 설하였다. 燕에 돌아가 1363년 貴化方丈에서 입적하였다. 大司徒 達叟가 유골을 받들고 우리 나라에 오자 공민왕 21년(1372) 그 부도를 양주의 회암사에

法幢 人之至而見懶翁指空之棒喝者 莫不飽以香飫以趙州 由是山益重寺益名矣 時有無學²³⁾者懶翁之弟子 尤善地理之學 我太祖聞而徵之以定國都 以外白虎勢急形危多有奔動之氣 乃立寺 其上曰虎壓以鎮之創菴 其前曰獅子以威之埋犬 其傍曰四犬隅以留之 又創刹四隅以鎮京都 在東者曰青蓮 在西者曰白蓮 在南者曰三藐 在北者曰僧伽 載之輿誌云 所謂外白虎則此山也 所謂三藐則此寺也 然則古人之所謂建寺創刹以鎮山川氣脈 而使之祝釐邦家者尤曉然明白矣 至太宗時²⁴⁾特降綸旨大加營修 凡佛殿三處 僧寮五處 御室一處 樓門各一處 臺二處 碑一處 塔一處 及菴子若干處 又勅本縣環寺四方禁樵牧 殿閣雄以麗樓臺高以廣 草木鳥獸之物益富以壯 可以藏修可以遊息 上可以祝一人下可以祐萬民 大雄名其殿者以其舍那之尊嚴也 寂默名其堂者以其煩惱之不亂也 瞻星名其閣者以其藏修之有時也 極目蒼茫滄溟在前故以望海名其樓 散步逍遙悠然自得故以清虛名其臺 碑以記事塔以表勝 以至丘陵林木巖洞溪澗皆有命名之意焉 往在壬辰倭寇火寺廊廡 皆燒而法殿獨不燃 驚而奇之以香盒獻佛懺罪而去 又至丙子胡兵入山 徒衆皆散而宗卜獨無懼 見而異之以竹箭插路表 信而行箭與盒至今在焉 蓋是寺創於羅修於麗盛於我朝之初 而元曉義湘潤筆道詵指空懶翁無學之徒居焉 若其間修葺小小興衰 時與人今皆不可知 嗚呼 賢者之興而不肖者之廢吾輩質質焉 居是寺 大懼前王衛護之德諸賢行化之跡 泯沒而不傳于後也 子其爲我記之余曰 噫 好德尙賢人之良心其可已乎 況道詵之鎮脈無學之制勢 有以補我國家無疆之基 而兩度著異二敵驚服則其遺風餘烈 猶使人有所興起者 蓋志其事以示後人 遂編其長老之言 名曰三幕寺事蹟云

乾隆辛卯²⁵⁾建 亥月下弦 雪巖門人

三幕寺現存佛經目錄 及 卷數

法華經 一卷

蓮宗寶鑑²⁶⁾ 一卷

彌陀經 一卷

金剛經 一卷

세웠다.

23) 自超(1327~1405)는 18세에 출가하여 용문산 慧明國師에게 법을 물었다. 공민왕때에 燕에 가서 指空을 찾고 다음 해에 법천사에서 懶翁을 뵈었다. 1364년 나옹이 회암사에서 落成會를 베풀 때에 首座로서 참여하였다. 1392년 조선 태조가 송도로 칭하여 王師로 삼고 「大曹溪宗師禪教都總攝 傳佛心印 辯智無碍 扶宗樹教 弘利普濟 都大禪師 妙嚴尊者」라 號하고 회암사에 머물게 하였다. 말년에 용문사, 회암사, 금강산 등을 다니다가 태종 5년 79세로 입적하였다.

24) 태종 7년(1407)이다.

25) 건륭 신묘년은 영조 47년(1771, 청 고종36년)이다.

26) 元의 晋度 저술. 『廬山蓮宗寶鑑』 또는 『優曇寶鑑』이라고도 한다. 念佛文에 관한 敎理와 文句를 모은 책으로 전 10권이다.

삼성산삼막사사적(譯文)

三幕寺는 衿川의 동북 10리에 있다. 절의 장로가 나에게 그 사적으로써 글을 청하며 말하기를 “신라때에 元曉스님이 있어 佛學을 배우기를 즐겨하였다 그 아우 義湘과 潤筆과 더불어 이곳에 절을 세우고 깊은 뜻을 닦으며 밝히었다. 사람들이 그 산을 일러 三聖이라 하였다. 그후 기백년이 지나 道詵스님이 호남의 영암으로부터 와서 그 터를 구하였다. 우거지고 더러운 곳을 정리하고 精室을 지어 불상을 만들어 도를 행하였으니 이름하기를 觀音이라 하였다. 절에 거하기는 언제인 지는 모르나 중국에 들어가 一行禪師를 찾아 뵈고 그 法을 얻어 돌아오니 곧 乾符의 이른 시기였다. 도선이 그 풍수설로써 고려 태조가 5백의 비보사찰을 세워 산천의 기맥을 제어하려 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 산도 5백안에 들어가니 이에 범우를 거둬 수리하였고 舊制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르기를 그 무리가 말하기를 中原 韶州에는 삼막사가 있으니 그 동쪽에는 牛泉이 있고 서에는 麟角이 있어 그 앞에 爐峯이 섰고 그 뒤에 바위가 있으니, 이 지형의 험하여 빼어난 것과 맑아서 청량한 것이 이에 저 다른 것과 더불어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이름하여 가로대 삼막이라 하였다. 禪老講伯이 이름을 듣고 이르러니 叢林의 머리가 되었다. 戊子에 이르러 懶翁惠勤이 休菴으로부터 와서 이 절에 머물고 이듬해 봄에는 指空이 또한 大都로부터 소머리와 降眞香을 가지고 와서 도량을 듣고 법당을 세우는 것을 들은 모든 해동의 모든 선남자들을 와서 만났다. 사람들이 이르러 나옹과 지공의 말씀을 듣고 보니 향으로써 배부르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조주로써 말미암아 이 산이 더욱 중건되고 절은 더욱 명성을 얻었다. 그때에 無學이 있으니 나옹의 제자로서 지리학을 더욱 잘하였다. 우리 태조께서 들으시고 불러 나라의 수도를 정하게 하셨다. 바깥은 백호로써 세는 급하고 형상은 위태로우니 날뛰고 뛰는 기운이 많았다. 이에 절을 세웠으니 그 위는 가로대 虎壓이라 하여 진압하고자 암자를 창건하였고, 그 앞은 가로대 사자라 하여 위압받으니 개를 물었고 그 곁에는 네 마리 개를 각 모퉁이에 두어 있게 하였다. 또 네 모퉁이에 사찰을 지어 수도를 막았으니 동에 있는 것은 청련이요, 서에 있는 것은 백련이요, 남에 있는 것은 삼막이요, 북에 있는 것은 승가라 하였다. 여지에 실려있으니 말하기를 소위 바깥의 백호는 곧 이 산이요, 삼막은 곧 이 절이다. 그런즉 옛사람들이 이른바 절을 세우고 사찰을 만들어 산천기맥을 보호하고 나라와 가정을 통치하도록 축원하는 것이 더욱 밝고 그리고 명백하다고 하였다. 태종때에 이르러 특별히 윤지를 내려 크게 더하고 가람을 수리하였다. 무릇 불전이 3곳, 스님의 요사가 5곳, 어실이 1곳, 문루가 각 1곳, 대가 2곳, 비가 1곳, 탑이 1곳 및 암자가 약간 있다. 또 본현에 칙령을 내려 절 주위 사방에 벌초와 가축방목을 금하고 전각은 운대하여 수려하며 누대는 높고 넓었다. 초목과 금수의 무리들이 더욱 늘어나고 장건하였으니 가이 비밀히 수행하고 가이 노닐며 쉴 수 있는 곳이라. 위로는 가이 한 사람을 축원하고 아래로는 가이 만민을 도울 곳이었다. 그 전각을 대웅이라 이름한 것은 사나의 존엄함 때문이요 그 당을 적묵이라 이름한 것은

번뇌에 어지럽지 않는다는 때문이요 그 각을 침성이라 이름함은 은밀히 수행하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요 극목, 창망, 창명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루는 망해로써 이름하였고 散步하고 逍遙하여 悠然히 스스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는 청허로써 이름하였다. 비는 일을 기록하기 위함이요 탑은 그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니 丘陵과 林木, 巖洞, 溪澗 등은 모두 그 이름지음이 의미가 있었다. 돌아보기를 임진년에 왜구가 절과 행랑을 불질렀다. 모두 불탔으나 법전만이 홀로 타지 않으므로 놀라워하고 기이하게 여겨서 향함을 부처님에게 바쳐서 죄를 참회하였으니 적이 가버렸다. 또 병자에 이르러 호병이 산에 들어오니 무리들이 모두 흠어졌으나 종변만이 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나무 화살로 노표를 맞추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날렸던 화살과 향함을 믿는 것이 현재까지 있었다. 대개 이 절은 신라대에 창건되었고 고려대에 수리되어 우리 조의 처음에 성하게 되었고 원효와 의상, 윤필과 도선, 지공과 나옹, 무학 등의 스님들이 거하였다. 다만 그 사이사이에 수리하고 만들고 작게 작게 흥하고 쇠했던 때와 인물이 있었으나 모두 알 수는 없다. 오호라 현자의 흥함과 어리석은 이의 폐함이 우리 무리의 바뀌고 바뀌는 것인가. 이 절에 거하여 옛왕의 지키고 보호했던 덕과 여러 현인들의 교화의 자취를 없애서 후세에 전하지 못할까 두렵다. 그대가 내게 기록하도록 하였으니 내가 말하노라야! 덕을 좋아하고 어짐을 숭상하는 것은 사람의 어진 마음이니 그침이 있겠는가. 하물며 도선 스님이 기맥을 누르고 무학 스님이 기운을 제어하여 우리 국가의 무강한 기초를 보호하였고 그 능력이 짝하여 이적을 드러내어서 두 적이 놀라서 복종한 즉 기 남겨진 것이 충분하다. 오직 사람에게 있어 흥기하는 바는 대개 그 일을 뜻삼아서 후인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드디어 그 장로의 말을 다시금 꾸며서 이름하여 가로대 삼막사사적이라 이른다.

전통 신묘년 해월 하현 설암문인

삼막사 현존불경 목록 및 권수

법화경 1권

연종보감 1권

미타경 1권

금강경 1권

* 삼막사에 얽힌 전설

어머니의 비원(悲願)

1958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지금같은 길도 없었고 숲사이로 좁고 험난한 소로길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한복차림의 50대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삼막사에 올라오셨습니다. 힘든 짐을지고 오신 노인의 표정은 밝고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지게에 지고온 짐을 법당앞에 세워놓고 땀에 젖은 108배 절을 하셨습니다. 절하는 모습이 너무도 진지하고 경건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죄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절을 끝낸 노인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합장한 상태로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은 자비로우신 은혜를 입어 올해도 ‘염전’이 풍요를 이루어 온가 죽이 의식주에 구애받지 않고 살게되었사유기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과욕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지혜롭게 살도록 일깨워 주소서 나무관세음보살

그 당시의 정스님은 처음 만나는 노인을 안내하고 짐을 받아드렸습니다. 정스님은 이 노인을 처음 만났지만 얘기를 들어서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을 대는 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노인의 옛 선조는 바다에 나아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고 합니다. 그 선조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외아들이었는데 家業이 고기잡는 어부의 집안이기엔 위험을 무릅쓰고 험난한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잡이를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어느날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간지 하루가 지났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폭풍은 몇 일동안 계속되었고 따라서 어머니의 걱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씨어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밥먹고 잠자는 것도 잊고 오직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엔 여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박씨 어부 어머니는 오직 기도엔 전념하다가 탈진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편 바다에 나간 박씨 어부는 먼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부서진 나무조각에 의지해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몇사람은 배가 부서지면서 실종되었고 함께 출어한 사람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박씨외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물한모금 못마시고 몇일동안 바닷물에 떠밀려서 헤메인 그들은 굶주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물거리는 육지를 바라보면서도 부서진 배의 널판지를 젓고갈 힘이 없었습니다. 먹을거라고는 바닷물뿐이었습니다. 두사람은 지쳐서 널판지에 엎드려 죽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가라앉았고 잠잠한 바다는 평화로운 원상으로 회복되었지만 그들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움직일수가 없었습니다. 박씨 어부는 희미한 의식속에 어머니가 밤마다 들려주시던 “관세음보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희들을 구원 하소서 얼마동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있는데 그가 엎드려있는 널판지에 무엇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그는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김

이 모락모락 떠오른 하얀 밥 그릇이 보였습니다. 낫쇠로 만든 큰 그릇에 하얀 쌀밥이 수북하게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꿈인가하고 밥그릇을 만져보니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로서 꿈이 아님을 알고 엎드려 있는 일행을 깨워 함께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바닷물로 반찬을 삼아 그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고 비로서 기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곳에서 온 쌀밥을 바닷가운데서 먹고난 후 너무도 신기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은덕임을 알고 모두 관세음보살께 감사드리며 기운을 내어 노대신 손으로 널판지를 저어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박씨 어부는 빈 밥그릇을 소중히 챙겨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동리가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살아온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서 울고 죽은 사람들은 슬퍼서 울고 그래서 울음 소리가 처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어부가 살아 돌아온 그 하얀 쌀밥은 어느곳에서 왔을까요.

박씨 어부가 밥을 얻어먹고 생명을 구하던날 삼막사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있던 스님께서 사시(10時~12時)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서니 올려놓은 佛器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절하는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인데 누가 그사이에 들어온것도 아닌데 분명히 탁자위에 올려놓은 불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불공하던 스님이 너무도 죄송해서 어찌 할바를 몰라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박씨 어부는 정성스럽게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간호해서 회복하였고 몇일이 지난 후에 목숨을 구해준 밥그릇의 내력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낫쇠로 만든 큰 밥그릇에는 한문으로 문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박씨 어부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는 인근마을 서당을 찾았습니다. 그 곳 훈장에게 밥그릇에 새겨진 글의 뜻을 물었습니다. 밥그릇에 새겨진 글은 '삼성산 삼막사'라는 것과 밥그릇을 시주한 사람의 성명이 적혀있었습니다. 박씨 어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함께 살아난 두사람 어부는 말로만 듣던 삼성산 삼막사를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삼막사에 도착한 그들은 소중히 간직해온 밥그릇을 내놓고 사연을 털어 놓았습니다. 얘기를 들은 스님께서 박씨어부 어부님의 지극한 기도에 관세음보살님이 감응하신 은혜라고 설명하시고 더욱 깊은 신앙심을 갖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박씨 어부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소금을 해마다 가져왔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은 귀한 물건이었고 박씨 어부가 손수 만들 수 있는 것이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는 소금을 공양한 것입니다. 박씨어부는 자손들에게 삼막사에 소금 공양하는 것을 유훈으로 당부하였고 착한 후손들은 先代의 유훈을 받들어 대대로 소금을 댄것이라고 했습니다.

靜스님은 박노인의 얘기를 들으며 크게 감격했습니다. 정스님이 제실때에는 오래된 佛器가 소중히 보관 전승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진 1. 三幕寺 全景



사진 2. 梵鍾樓



사진 3. 冥王殿 前面



사진 4. 冥王殿 側面



사진 5. 冥王殿 基壇



사진 6. 冥王殿內 地藏菩薩坐像



사진 7. 望海樓 前面



사진 8. 望海樓 前面 礎石



사진 9. 望海樓 側面 高柱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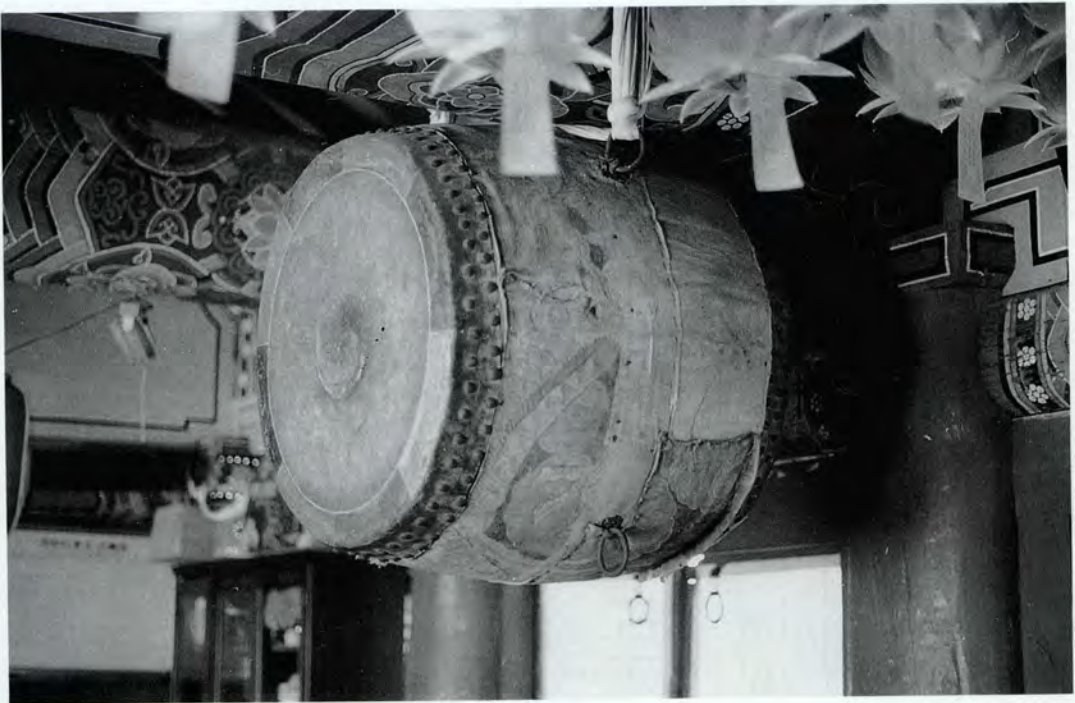


사진 10. 望海樓 內 북



사진 11. 六觀音殿



사진 12. 六觀音殿 泓沅居士檀施功德碑



사진 13. 寮舍體



사진 14. 千佛殿



사진 15. 三層石塔 全景



사진 16. 三層石塔



사진 17. 三層石塔 基壇部



사진 18. 三層石塔 塔身部



사진 19. 石像



사진 20. 龜趺形 石漕



사진 21. 龜趺形石漕 받침돌



사진 22. 圓筒形石漕



사진 23. 石燈下臺石 1



사진 24. 石燈下臺石 2



사진 25. 事蹟碑



사진 26. 白蓮庵址 全景



사진 27. 白蓮庵址 石築



사진 28. 白蓮庵址 「神金臺」銘



사진 29. 白蓮庵址 언뭇



사진 30. 三龜字 銘 全景



사진 31. 三龜字 銘



사진 32. 三龜字 銘 施主者 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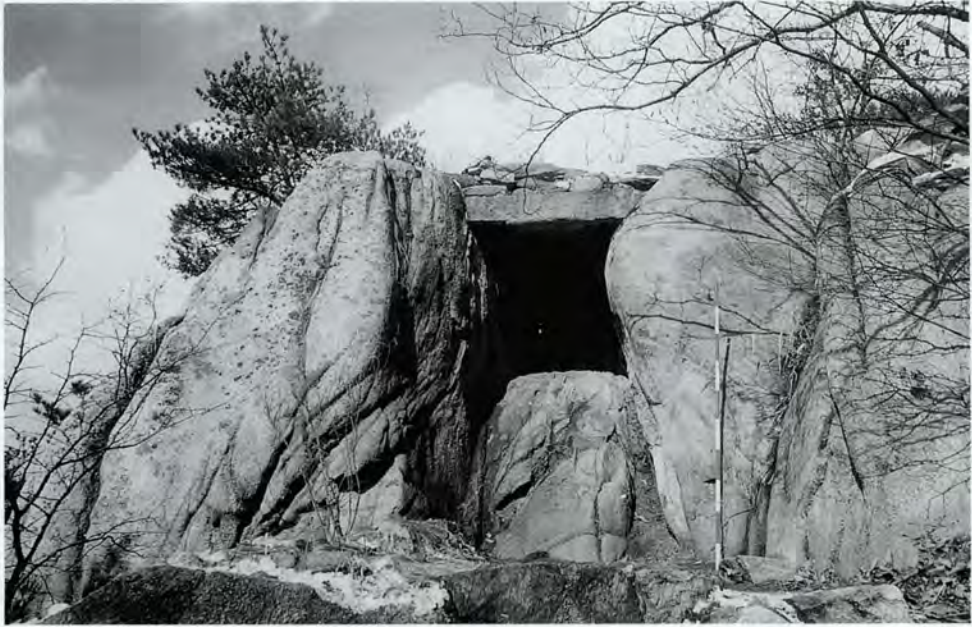


사진 33. 燈谷臺石窟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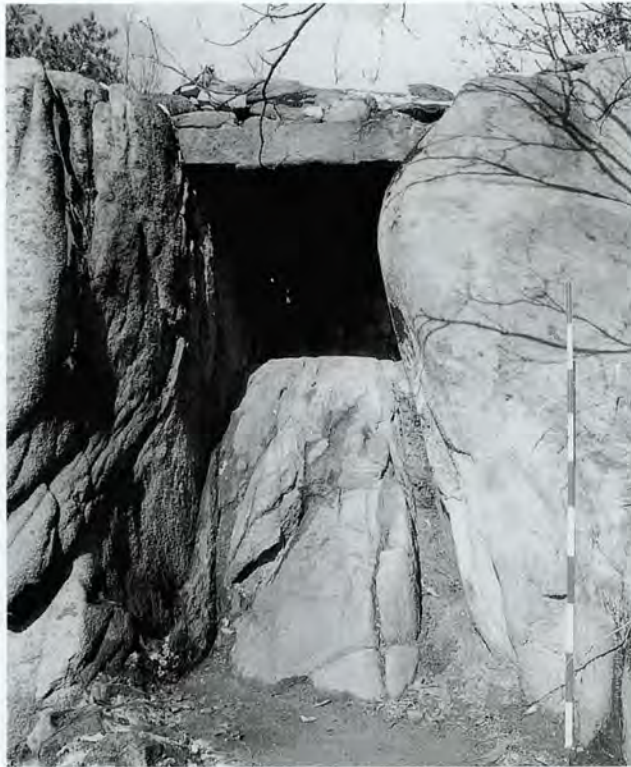


사진 34. 燈谷臺石窟 入口



사진 35. 燈谷臺石窟 西壁



사진 36. 燈谷臺石窟 東壁



사진 37. 燈谷臺石窟 北壁



사진 38. 燈谷臺石窟 入口 上端 石材



사진 39. 燈谷臺石窟 北壁 및 天障石



사진 40. 燈谷臺石窟 上面 막음 石材



사진 41. 燈谷臺石窟 上面 神仙臺



사진 42. 燈谷臺石窟 上面 神仙臺에서의眺望



사진 43. 燈谷臺石窟 前面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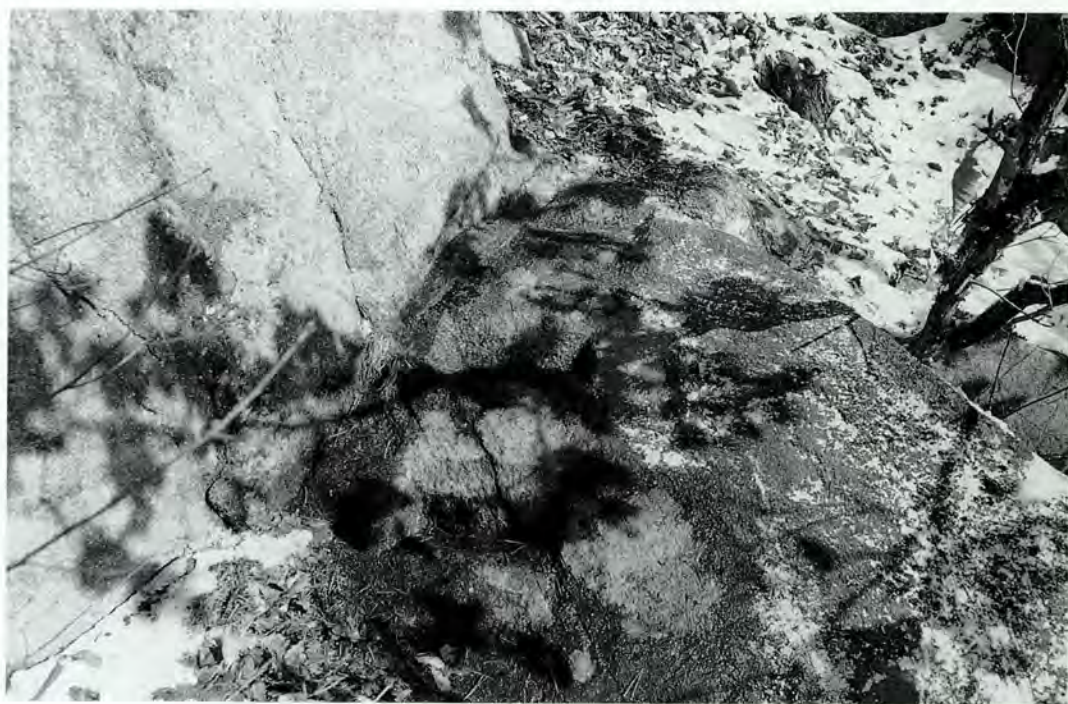


사진 44. 燈谷臺石窟에서 神仙臺로 오르는 계단



사진 45. 「燈谷臺」銘



사진 46. 燈谷臺 하단 高柱礎石



사진 47.七星閣內 磨崖三尊佛



사진 48.七星閣內 磨崖三尊 本尊佛



사진 49.七星閣內 磨崖三尊 脇侍菩薩



사진 50.七星閣內 磨崖三尊 脇侍菩薩



사진 51. 七星閣 全景



사진 52. 七星閣 初創 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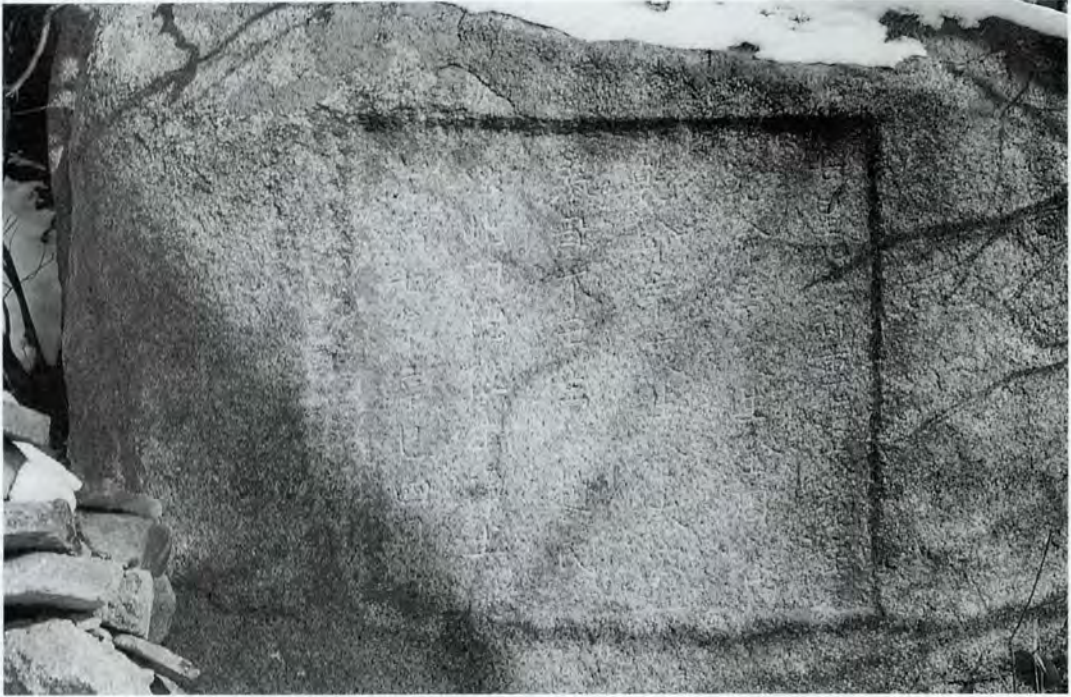


사진 53. 七星閣 重創 銘文



사진 54. 男·女根石 全景



사진 55. 男根石



사진 56. 女根石



사진 57. 岩刻畫



사진 58. 三幕寺 懸板



사진 59. 大雄寶殿重修記



사진 60. 大雄寶殿與各項重脩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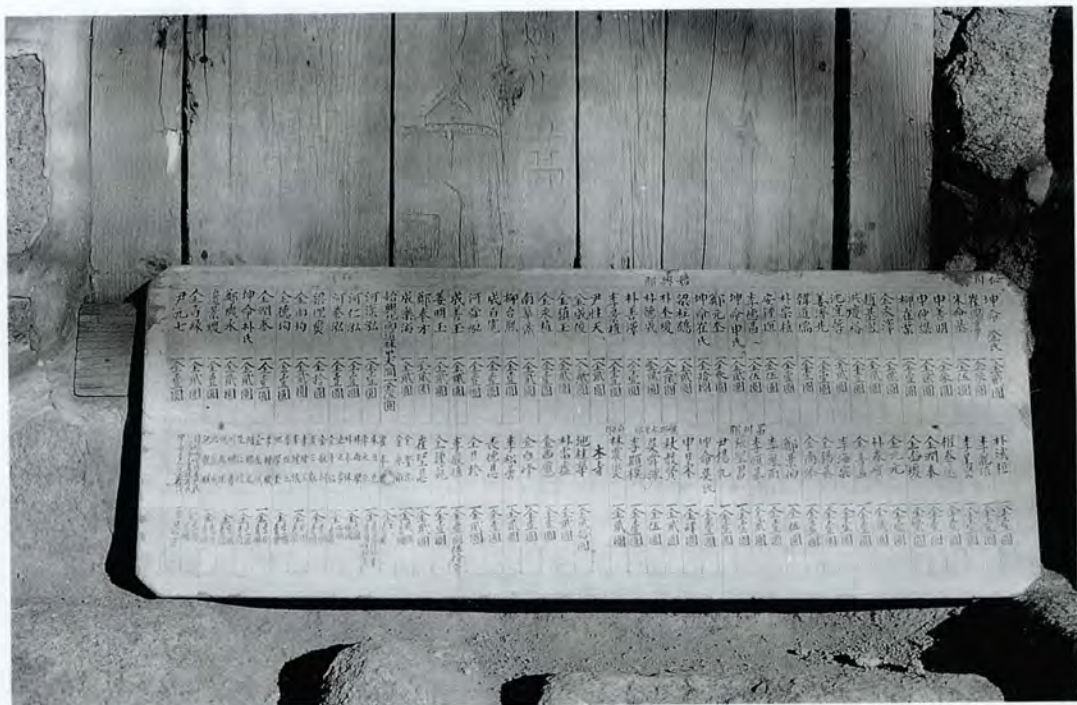


사진 61. 施主者 名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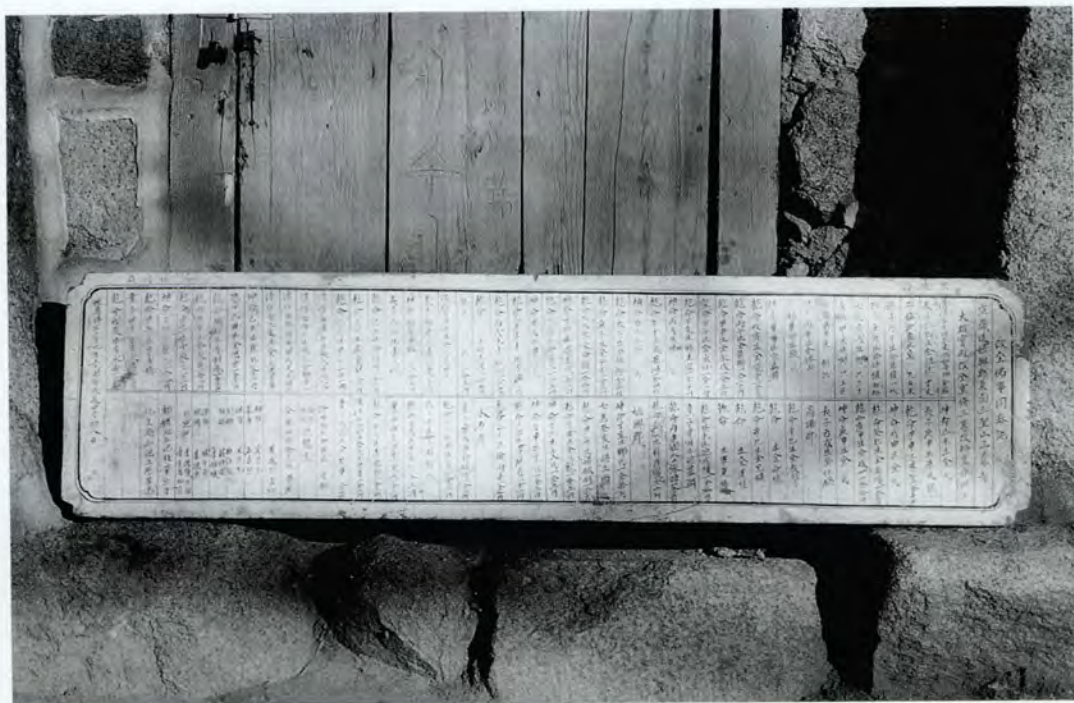


사진 62 改金佛事同參記



사진 63. 大雄殿(燒失前)



사진 64. 大雄殿內 準提菩薩坐像(燒失前)



사진 65. 大雄殿內 銅鍾 (燒失前)



사진 66. 望海樓內에 保存된 銅鍾破片 1



사진 67. 望海樓內에 保存된 銅鍾破片 2

2. 安養寺(사진 1)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27 번지

주 지 : 影心(54세)

1) 沿革

안양사는 태고종 사찰로 서울시 옥수동에 소재한 용운암을 본사로 두고 있다. 이 사찰은 고려시대에 能正이란 스님이 건립한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대웅전을 비롯한 현재의 寺勢는 1960년대 이후에 이루어 졌다고 한다. 사찰내에는 근년에 건립한 요사채, 명부전, 심검당, 대웅전, 범종각, 미륵불, 천불전 등의 전각과 부도재 및 귀부가 전하고 있다.

안양사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와 문헌에도 소개되고 있는 바, 이를 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많은 양의 기록이 있는 바, 이의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安養寺 : 三聖山에 있다. 절 남쪽에 고려 태조가 세운 7층 벽돌 탑이 있고, 金富軾이 지은 비명은 글자가 缺落되었다. 李崇仁이 지은 重新記에 ,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것은 漢나라 竺法蘭 부터였다. 드디어, 천하에 蔓延하여졌고, 우리 동방에는 阿道가 시작하였는데, 실상 신라때였다. 그 설법이 宏大하고, 또 禍福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므로, 천하가 다 붙좃는다. 비록 英明한 임금과 충의한 신하라도 가끔 절 집을 건립하여, 그 교를 드날렸다. 대개 국가를 위해서 복과 이익을 구하고자 한 것이니, 또한 군자의 마음 씀이 후한 것이다. 우리 태조가 개국한 초기에 불법 있는 자가,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서, 그들의 말을 꽤 採用하여, 塔廟를 많이 설치하였는데, 지금 衿州 안양사 탑같은 것도 그중에 하나이다. 慈恩宗師兩街都僧統林公이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안양사 탑은 聖祖께서 옛적에 세운 것이다. 벌써 무너졌으므로, 門下侍中鐵原府院君崔公과 지금 住持大師惠謙이 중수하여 새롭게 하였다. 겸은 나의 門徒이다. 나를 소개로 하여 선생에게 기문을 구하는 바, 자세한 것은 반드시 겸이 말할 것이다.’ 하였다. 이튿날 겸이 왔는데, 그는 말하기를, 겸이 이절에 머문 지가 몇 해째입니다. 절 역사를 상고하니, 옛적에 태조께서 조공하지 않는 자를 정벌할 참인데, 여기를 지나다가 산 꼭대기에 구름이 五彩를 이룬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습니다. 과연 늙은 중을 구름밑에서 만났는데, 이름은 能正이었습니다. 더불어 말해보니, 뜻에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 절이 건립하게 된 연유입니다. 절 남쪽에 있는 탑은 벽돌로 7층을 쌓았고 기와로 덮었습니다. 제 1 밑층은 행각이 빙 둘러섰는데, 12간입니다. 벽마다 부처와 보살과 사람과 하느님의 화상을 그렸습니다. 밖에는 난간을 세워서 드나드는 것을 막았는데, 그 거창하고 장려한 모습은 딴 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과 풍우

에 거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겸은 아침 저녁으로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한 것이 오래였으나, 힘이 모자랐습니다. 辛酉年 가을 7월에 侍中 崔公을 뵈고 이 일을 고했더니, 공이 말하기를, '내 젊었을 때 한 번 탑 밑에 유숙하면서 성조께서 처음으로 경영하심을 우러러 생각하고 사사로 맹세하기를 신이 타일에 진실로 출세한다면, 이 탑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성조의 영에 죄받으리라. 하였다. 지금에 와서 벼슬이 못 官僚의 위에 있으니, 출세하였다 할 것이다. 내 마땅히 나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하고, 곧 양주, 광주 按察使에게 통첩을 보내어 軍租를 털어서 그 비용에 충당하고, 壯丁을 불러서 그 역사를 맡겼습니다. 겸도 囊橐을 다 대고 檀越의 喜捨를 받아서, 쌀·콩·돈·베 약간을 얻었습니다. 또 놓고 있는 겸 같은 자 약간을 청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는 이 해 8월 모일이었고, 일손을 끊기는 9월 모일이며, 落成은 10월 모일이었습니다. 이 날 전하께서 內侍 朴元桂를 보내어 향을 내렸습니다. 승려 천 명을 모아 크게 佛事를 올리고, 舍利 열둘과 佛牙 하나를 탑 속에 봉안하였는데, 四部大衆에게 널리 시주 한 것이 무려 3천 명이었습니다. 그 丹腹은 임술년 봄 3월에 하였고, 그 畫像은 계해년 가을 8월에 하였습니다. 탑안 네 벽 중 동쪽은 藥師會, 남쪽은 釋迦涅槃會, 서쪽은 彌陀極樂會, 북쪽은 金經神衆會상을 그렸습니다. 행각이 12칸인데 벽마다 한 칸씩 그린 것은 소위 十二行年佛입니다. 무릇, 역꾼이 4백명이 넘었으며, 쌀이 5백 95섬, 콩이 2백섬, 베가 1천 1백 55필이 소용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큰 비용이며 큰 공역인데, 마침내 능히 완성한 것은 모두 우리 시중께서 發願하기를 맹세한 소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은 오직 국가 복리만을 구한 것이고, 어찌 자기 일신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영구하기를 도모하려면, 文辭에 의탁하지 않으면 인연할 길이 없으니, 선생이 짓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었다. 내 佛氏에 미쳐 入門하지 못한 자이다. 감히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요. 비록 그러나, 내가 太史氏로 되어, 무릇 興作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적는 것이 적분이다. 하물며, 이 탑에서 성조와 賢相의 두터운 마음씀을 볼 수 있음에랴. 이것을 적을 뿐이다." 하였다. 金克己의 시에, "붉은 다리를 지나 紺色 佛宮에 이르니, 조출한 놀이가 다행히 부처 있는 곳과 함께 했다. 푸른 못에는 교교하게 가을 달이 잠겼고, 붉은 잎사귀에는 쓸쓸하게 밤 바람이 운다. 佛社 안에는 일찍이 謝客을 용납하지 않았고, 시냇가에서 다행히 陶翁을 맞이한다. 서로 이끌어 웃음 띄며 돌아가기를 늦추는데, 지는 해가 서쪽에 넘어가니 재가 반쯤 붉다." 또, "파리한 말 몰아 서울을 지향하다가, 우연히 안양사에 들어 유숙한다. 새벽닭이 처음으로 소리치는데, 떼운 밥 먹고 그윽한 골에서 나온다. 조각달은 옥 고리처럼 나지막하고, 성긴 별은 금 좁쌀을 훑은 듯하다. 깊은 골짜기 길은 성난 뱀이 오듯 꾸불꾸불 3백 굽이여라. 시냇물 얼음되니 새로 흰 것이 보태었고, 잣마루에 구름 끼니 본디 푸름이 없어졌다. 여윈 말은 고슴도치 털처럼 까칠하고, 파리한 아이는 거북이 등처럼 움추린다. 내 본디 풍진 바깥 사람으로서, 평생에 얽매임이 적었다. 10년 동안 山林에 놀 제, 巾履로서 사슴을 좇았었네. 문득 造物의

속임을 만나 내 한가함을 오로지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名利 속에서 천리 길 行役이 괴롭구나. 어느 때나 人佩를 던지고 阮籍이 窮途에서 울던 꼴 면하리.”하였다.¹⁾

『輿地圖書』 安養寺古基 : 在三聖山南有李崇仁記 塔 : 七層甄麗太祖所立在寺內 碑 : 普照國師碑在寺內新羅金富軾撰李元符書²⁾

『梵宇攷』 : 寺刹安養寺 今廢. 寺之南有高麗太祖所建七層巖塔碑金富軾撰員外郎李元符書宋紹興元年立. 高麗侍中崔瑩使僧惠謙重修李崇仁記略曰高麗太祖將征不庭行過此望山頭雲成五彩異之使人往視果得老浮屠於雲下名能正與之言稱旨此寺所由立云³⁾

『大東地志』 衿州山 : …… 山之南古有安養寺寺之南高麗太祖所建巖塔……⁴⁾

이같은 지리지외에도 안양사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즉,

● 어가가 衿州 安養寺 南郊에 머물렀다. 좌정승 河崙 등이 어가를 기다려서 향연을 베풀고자 하였는데, 임금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 중지시키고, 또 하운 등을 도성으로 돌아가게 하였다.⁵⁾

● 上王이 衿州 安養寺에 거동하였으니, 湯沐하고자 함이었다. 처음에는 충청도 溫水에 가고자 하였으나, 정부에서 정지하기를 청하는 뜻을 알고 드디어 금주로 나갔다.世子가 강가에서 전송하고 인하여 東郊에 나갔다.⁶⁾

● …… 윤돈이 果川縣監에서 교대되어 서울로 돌아올 때, 박강생과 衿川縣監 金汶 등이 윤돈을 安養寺에서 錢別하였더니, 김문이 燒酒에 傷하여 갑자기 죽었다……. ⁷⁾

● …… “정여와 원옥은 守畝의 非法을 규찰하는 직임을 띠고서 농사철을 당해 禁酒하는 때에, 먼저 자신이 금령을 범해 가면서 도리어 수령과 더불어 飲酒하고 歌舞하여 감히 비법을 행하였으니 특히 行臺의 뜻을 잃었습니다. 朴剛生은 지난번에도 이웃 고을 守畝과 境內를 벗어나 安養寺에서 聚會하여 燒酒를 강권하다가 김문(金汶)을 죽게 하였는데 아직도 개전하지 못하고, 이제는 또 教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臺監과 더불어 술 마시며 활 쏘기를 하였으니, 그 행위는 부당하기 막심합니다 ……⁸⁾ (1417년)

● …… 또 들으니, 三聖山 安養寺 터에 큰 절을 다시 창건한다는데 이것이 모두 전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백성이 또 새로 內佛堂을 창건한다는 말을 들으면 뒤를 이어서 萬計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⁹⁾

1) 新增東國輿地勝覽, 券 10, 衿川縣 佛宇條.

2) 『輿地圖書』, 京畿道 衿川 古蹟條.

3) 『梵宇攷』, 衿川 寺刹條.

4) 金正浩, 『大東地志』, 卷 4, 始興 山水條.

5) 『조선왕조실록』, 『태종공정대왕실록』 권 11, 태종 6년 3월 2일조.

6) 『조선왕조실록』, 『태종공정대왕실록』 권 22, 태종 11년 9월 12일조.

7) 『조선왕조실록』, 『태종공정대왕실록』 권 33, 태종 17년 5월 4일조.

8) 『조선왕조실록』, 『태종공정대왕실록』 권 33, 태종 17년 5월 22일조.

9) 『조선왕조실록』,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121, 세종 30년 7월 21일조.

● …… 정인지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下三道에는 山林의 골짜기 사이에 모두 古塔이 있으니, 다 옛 절의 터입니다. 우선 所聞을 가지고 말한다면 安養寺·龍門寺 두 절은 다 황폐된 지 오래 되어서 草幕으로 되고 조금도 間架는 없었습니다. 소문에 들으니, 그 초기에 한 늙은 중이 있어서 이 절 아래에서 죽었는데, 그 제자 중들이 이 절의 골짜기 중에서 시체를 불태우고, 인하여 부도浮屠를 세워서 香火를 받들고, 드디어 草幕을 지어서 거처하였습니다. 무식한 무리들이 靈異하다고 생각하여 다투어 米布를 내어 重創하여, 이로 인하여 巨刹이 되었습니다. 비록 옛터에 따라 修創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창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금지하지 않는다면 寺社를 창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한갓 형식이 될 것입니다.” ……¹⁰⁾

이상과 같은 기록을 볼 때 안양사는 고려초에 창건되었고, 寺內에는 칠층전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칠층전탑에 대한 중창이 있었고,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서 보듯이 1417년(태종 17)에도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48년(세종 30)의 기록에서 절을 다시 창건하였고, 1450년(문종 1)에 이의 폐단이 정인지 등에 의해 보고되는 점을 볼 때, 1417년 이후 1448년 사이에 대구모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세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안양사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이 편찬되던 1530년(중종 25)까지는 존속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輿地圖書』에는 “古基”라 기록되고 『梵宇攷』에는 “今廢”라 표기된 점으로 보아 16세기 후반경에 폐사되었다가 근세에 들어 다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10) 『조선왕조실록』, 「문종공순대왕실록」 권 4권, 문종 1년 10월 19일조.

2) 遺蹟과 遺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안양사에는 비록 근세에 조성된 것이지만, 많은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寮舍體 (사진 2)

1962년에 세운 건물로 요사체 및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2단의 장대석으로 축조한 기단위에 세운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로 정면 2칸을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청기와를 올렸다.

② 冥府殿 (사진 3·4)

요사체와 나란히 건립되어 지붕이 서로 맞닿아 있다. 낮은 2단의 기단위에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주심포 건물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좌·우에 방풍판을 두었는데, 겹처마를 구비하고 있다. 용마루에 “世尊應化二九七九年壬辰四月十日入住上樑”이란 목기가 있는 점으로 보아 1952년 5월 15일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부에는 근년에 조성된 地藏菩薩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道明尊者和 無毒鬼王이 있고 후면에는 地藏幀畫가 걸려 있다. 아울러 지장보살을 정점으로 좌·우에는 각각 5구씩의 十王이 배열되어 있다. 十王은 지장보살의 오른쪽에 第一 秦廣大王, 第三 宋帝大王, 第五 閻羅大王, 第七 泰山大王, 第九 都市大王이, 왼쪽에는 第十 五道轉輪大王, 第八 平等大王, 第六 變成大王, 第四 五官大王, 第二 初江大王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구의 안쪽에는 「安養寺記」란 현판이 걸려 있다. 이 현판은 127cm×7cm 크기로 자경 2cm 크기의 해서체로 쓰였는데, 말미에 「光復后壬子」란 기록을 보아 1972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安養寺記

漢師之南三十里外有安養邑邑之東二百，步許聳冠岳山山勢磅礪地理堅固雖過兩，水之嚙而無頽汰之患綠水盍盍而四圍清，溪曲曲而分流谷深山奇雲興霧蔚其幽邃，之境閑寂之味完然有山中氣像可以修道，者安其心養其體之處而世無其?眼者曠萬，古荒蕪荊棘之裡爲麋鹿之遊樵牧之歌而，已近者女僧惺仁韓癸挾菩薩素有及人之，仁容物之德治心於慈善事業留意於濟衆，思想永離三界恐犯五戒項掛念珠手持恒，河着袈裟曳錫杖別紅塵向青山跌坐蒲團，振勵精神寤寐念佛佛是人人是佛也常存，得靈地立寺之思而未得其地偶到冠山占，領此地此實地得其人人得其地也載卜吉，辰歲甲午伐木拓基十方信徒富人薦其財，貧者出其力真心相援創建寺刹閣雄殿，畫彩玲瓏風樓月廊碧瓦輝日誇歲之役不，日成之豈非乘其天時居其地利得其人和，者歟其構造精緻制作完樸不儉不奢寒燠，兼備斷岸松柏自然成籬岩隙冷滴天然成，泉西南諸峰騰蹕而坤雲朝而紫霞之綺麗，暮而白鷗之長鳴春而紅花夏而綠陰秋而，丹楓冬而

白雪四時佳景之悅人耳目者足」以供雅賞之名區也然則與仲州之寒山寺」青丘之海印寺爭甲乙也眼前之形勝無窮」心上之經營已遂扁以安養因其地名而名」之也此寺之幹務朴且寬余與異貫宗人其」深交厚誼尤有別焉頻托記文又請登寺余」不固辭而登萬千氣像詩難盡雪畫難盡模」神怡氣清胸次澄虛無一点俗累四體日履」於安養地矣於是乎始知菩薩神遊於千載」之上而起止於煙光岳色之中猗歟美哉觀」其山之磅礪地之堅固寺之雄壯僧之慈善」上以天佑永無風雨之憂中以神助或不隳」魍之侵下以人護應未畀犁之及矣此寺之」與天無極乎」光復后壬子九月重陽」文田遜八月城朴道鉉記」

③ 大仁大師浮屠 및 塔碑(사진 5)

안양사의 심검당의 남쪽 낮은 봉우리에 형성된 10m×8m 크기의 평평한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탑신만은 원구형으로 조성하였다. 기단부·탑신부·상륜부를 구비하였는데, 전체 높이는 2.1m이다. 탑비는 비좌·비신·이수를 구비한 2면비로 전면에 「比丘尼大仁師碑」라 기명되어 부도의 주인공을 알려주고 있는데, 1984년 8월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은 자경 3cm의 해서체로 음각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面)

比丘尼仁師碑」

京畿道安養市石水洞三聖山安養寺創建主大仁師는俗姓韓氏本名은揆挾이시다京」畿道君子面田往里에서韓用周씨를父로全州李氏를母로하여五女로出生하시니敦」篤한佛敎家였다師는忽然히生死無常을覺悟한바있어서을玉水洞彌陀寺全敬覺師」를恩師로하고李華應師를戒師로하여戒得修道하시니庚寅八月二十六日이였다諸」方善知識을參訪修行精進하시다가末년에三聖山靈峰下住錫하시며新羅古刹이였」

던古址에開基創建하시니現在安養寺로다敎化衆生과修禪道場을위하여大雄殿冥」府殿千佛殿彌勒像三聖閣尋劍堂을創立하여大伽藍의面貌完成하시고精進하시다」世緣已盡하여法臘四十世壽八十九歲의一期로入寂하시니스님을신봉하던僧俗」四部衆이鄭重히茶毘를모시고良骨을奉安키위하여此地에浮屠小塔謹立하다」世尊應化二五二八年甲子八月二六日 湖西人圓潭撰並書」

(後面)

上佐 比丘尼 海松」昭玄」慧法」慧永」孫上佐 暎心」妙喜」妙眞」性智」

④ 尋劍堂(사진 6)

1980년 6월 25일에 신축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로 현재 안양사의 禪房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강암과 장대석으로 축조된 3단의 기단 위에 원형초석을 놓고 건립하였는데, 팔작지붕을 지니고 있다.

⑤ 浮屠(사진 7~9)

현 법당앞 골짜기에 각 부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모아 신축한 안양사 대웅전앞에 쌓아 놓은 것이라 한다. 본래는八角圓堂形의 석조부도였으나, 기단중대석과 탑신석이 없어졌다. 하대석의 높직한 각형 2단의 받침 상면에는 複葉 16판의 伏蓮을 조식하였다. 상대석은 뒤집어 놓여 있는데 하면에는 각형 2단의 받침이 조출되었고, 측면에는 單葉 16판 2重仰蓮 조식하였다. 상단 연화문의 간지에는 간엽이 배치되어 있고, 상면에는 각호각형 3단의 탑신받침을 조출하였다. 팔각형으로 구성된 옥개석의 하면에는 각형 3단의 받침이 조출되었다.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합각선은 두툼하게 표현되었다. 처마는 전각에 이르러 심한 반전을 이루어 합각부가 삼각형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합각부의 좌·우에는 고사리문이 각각 음각되어 있다. 정상에는 낮은 1단 받침 상면에 圓形의 노반석이 있는데, 상면에는 깊이 4cm, 지름 3.5cm 크기의 찰주공이 개설되어 있다. 전체적인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높이는 137cm이다.

⑥ 龜趺(사진 10~14)

대웅전 앞에 부도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데, 본래의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이 곳에 있었다고 한다. 비신과 이수에는 결실되었지만, 귀부는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3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어떤 농부가 비신을 부수어 숫돌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후 얼마 안가서 전가족이 멸족했다고 한다.

수매의 장대석으로 220cm×287cm 규모의 지대석을 구축했는데, 상면에 일석으로 조성된 지대석과 귀부가 놓여있다. 지대석은 184cm×248cm의 규모이다. 귀부의 앞발은 전면을 향하여 가지런히 놓았는데, 각각 4조의 발톱이 묘사되어 있다. 뒷발 역시 전면을 향해 가지런히 놓인 자세인데, 2조의 발톱만이 묘사되어 있는데, 꼬리는 남쪽을 향하고 있다. 앞뒷발에는 모두 비늘이 시문되어 있다. 귀부의 머리는 바짝 움츠러 목은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얼굴에는 양 눈과 이빨등이 묘사되어 있는데, 코는 결실되었다. 양 뺨에는 갈귀가 있고, 목에는 인갑문이 표현되어 있다. 귀부의 등에는 육각형의 2중 귀갑문이 촘촘히 시문되었고, 중앙에는 장방형의 비좌가 마련되어 있다. 비좌는 56cm×173cm×40cm의 크기로 중앙에는 129cm×17cm, 깊이 32cm의 비신공이 마련되어 있다. 비좌의 측면에는 장방형의 額 내에 雲紋이 조식되었고, 상면에는 단엽 24판의 복연이 시문되어 있다.

이 귀부는 전체적인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귀부에 어떤 비석이 꼽혀 있었는 가는 알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안양사의 여러 문헌기록 중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金富軾이 지은 비명은 글자가 缺落되었다.”라고 하고, 『輿地圖書』에서는 “碑：普照國師碑在寺內新羅金富軾撰李元符書”라 했고, 『梵宇攷』에서는 “……寺之南有高麗太祖所建七層巖塔碑金富軾撰員外郎李元符書宋紹興元年立……”라 기록되어 안양사에 비석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앞의 기록을 볼 때 안양사의 비석은 『東國輿地勝覽』의

김부식이 찬한 비, 『輿地圖書』의 김부식이 찬하고 이원부¹¹⁾가 쓴 보조국사의 비, 『梵字攷』의 김부식이 찬하고 이원부가 써 1131년(고려 인종 9)에 건립된 칠층전탑비 바로 그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마다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음에 비해 비석의 명칭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은 결국 각 기록의 撰者가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더욱 『여지도서』의 기록을 통하여도 입증된다. 여기에서는 “普照國師碑가 寺內에 있고 이를 新羅의 김부식이 찬하고 이원부가 썼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普照 知訥의 활동 기간은 1158년부터 1210년 간의 52년 동안이다. 그렇다면 이미 1151년에 죽은 김부식이 찬자 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원부 역시 인종대(1122~1146)에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보조 지눌이 아닌 또다른 보조국사의 碑일 가능성과 아니라면 찬자의 오류가 분명할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국사 가운데 비가 세워지는 1131년 이전에 활약했거나 추증된 국사 중에는 보조국사로 지칭되는 인물이 없다. 다만 誤字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1114년에 국사로 활동했던 慧照國師 曇眞¹²⁾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면 찬자의 오류가 분명하다. 김부식과 이원부를 新羅人으로 기술한 찬자의 인식도 주목해야 될 것이다.

한편, 『大東金石書』에 실려 있는 「安養寺七層塔銘」의 塔本 일부¹³⁾는 비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말미에 실린 『大東金石目』에 “安養碑 在 衿川三聖山 尙書 金富輿文, 安養寺七層塔銘 李元符書 南宋高宗紹興元年辛亥立 麗仁宗九年也” 라 기술되어 있다.¹⁴⁾ 이를 보면 안양사에는 마치 김부철이 찬한 「安養碑」와 이원부가 쓴 「安養寺七層塔銘」의 2기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건립연대는 1131년(고려 인종 9)라 하고 있다. 그러나 『大東金石目』의 전체 편제를 볼 때 이는 동일한 유물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결국 碑銘의 내용으로 그 성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大東金石書』에 실린 일부의 내용만으로 볼 때는 칠층전탑과 관련된 비석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비문에 보이는 “東州의 利川人 高氏”의 존재가 전탑의 중수와 관련된 단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후술할 칠층전탑에 관한 내용중 칠층전탑의 중수자가 『東國輿地勝覽』에 “門下侍中鐵原府院君崔公”이라 기록된 점을 들 수 있다. 양 기록에서 철원과 동주라는 지명이 보이고 있는데, 鐵原이 고려태조가 즉위하여 수도를 서악으로 옮긴후, 철원을 고쳐서 동주로 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¹⁵⁾ “門下侍中鐵原府院君崔公”과 “東州의 利川人 高氏”는 철원에 지역기반을 두었던 인물로 생각되며 이들에 의해 칠층전탑이 중수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에 나타난 안양사의 비는 칠층전탑과 관련된 비석임을 알 수 있는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칠층전

11) 고려 인종때의 명사이다. 虞世南의 필체를 본받아 楷書에 능했다. 고려 예종때 합천 가야산의 般若寺元景王師碑를 썼으며, 인종때에는 安養寺七層塔碑를 썼다.

12) 『高麗史』卷13, 世家 睿宗 9年 3月 癸巳 “王如奉恩寺 以曇眞爲國師 樂眞爲王師”

13)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李元符 宣書, …… 吾□成佛已來種種因緣……, …… 矛盾論議紛然使學者亡……, …… 以爲終華嚴如寶亦具四……, …… 姓高氏東州伊川人也父……, …… 至東始小終大覺而語之……, 李侯, 『大東金石書』, 亞細亞文化社, 1976, P.65.

14) 李侯, 『大東金石書』 및 『大東金石目』, 亞細亞文化社, 1976, P.65 P.8.

1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7, 鐵原都護府 建置沿革條.

탑의 중수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추정을 전제로 할 때 현재 안양사 대웅전의 전면에 놓인 귀부는 칠층전탑의 중수비가 꼽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겠다.

⑦ 大雄殿(사진 15)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장대석으로 구축한 낮은 기단위에 건립되어 있다. 시멘트로 된 원형의 초석에 기둥을 놓았는데, 중앙간이 좌·우 측면보다 조금 넓게 조성되었다. 중앙간의 양 기둥 상면에는 각각 龍頭 1기씩을 놓고 가운데에 대웅전의 현판을 달았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기와골의 끝에는 암·수막새기와를 얹었다. 겹처마를 구비한 익공계 건물로 1966년에 건립했다고 한다. 내부에는 근년에 조성한 여래삼존과 탕화 3점이 있고, 외벽의 주위에는 深牛圖가 그려져 있다.

⑧ 梵鐘閣(사진 16)

대웅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시멘트와 화강암을 사용하여 기단을 구축한 후 건립했는데, 사모지붕을 지닌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건물이다. 내부에는 높이 1.9m의 범종이 있는데, 표면에 「三聖山安養寺」, 「佛紀二五二九乙丑十月十日」이라 기록되어 있어 1985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⑨ 碑石群(사진 17)

대웅전에서 미륵불로 오르는 계단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시멘트와 화강암으로 쌓은 기단위에 3기가 나란히 건립되어 있는데, 각각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 대웅전에 인접한 비석 : 비좌·비신·이수를 구비한 2면비로 전체 높이는 174cm이다. 비좌는 74cm×44cm×11cm의 크기인데 장방형이다. 비신은 119cm×49cm×22cm의 크기인데, 전면에는 淸信士 牟然興功德碑의 명문을 자경 8 - 13cm 크기의 해서체로 새겼다. 후면에는 安養寺伽藍佛事都化主 佛紀二五二〇年丙辰十月十六日建立의 명문을 자경 7-8cm의 크기로 새겼다. 佛紀二五二〇年丙辰은 1976년이므로 이 때에 건립한 비석임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팔작지붕형으로 75cm×54cm의 크기이다.

● 중앙 비석 : 비좌·비신·이수를 구비한 2면비로 전체 높이는 178cm이다. 비좌는 74cm×47cm×12cm의 크기인데 장방형이다. 비신은 123cm×49cm×22cm의 크기인데, 전면에는 淸信士 柳爽功德碑의 명문을 자경 8 - 13cm 크기의 해서체로 새겼다. 후면에는 安養寺伽藍佛事都化主 佛紀二五二〇年丙辰十月十六日建立의 명문을 자경 7-8cm의 크기로 새겼다. 佛紀二五二〇年丙辰은 1976년이므로 이 때에 건립한 비석임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팔작지붕형으로 75cm×44cm×42cm의 크기이다.

● 계단에 인접한 비석 : 비좌·비신·이수를 구비한 2면비로 전체 높이는 192cm이다. 비좌는 73cm×44cm×7cm의 크기인데 장방형이다. 비신은 137cm×49cm×20cm의 크기인데,

전면에는 淸信士朴商哲 淸信女韓英子 功德碑의 명문을 자경 13cm 크기의 해서체로 새겼다. 후면에는 안양사심검당도화주 佛紀二五二五庚申年建立의 명문과 전면 인물의 개인기록을 새겼다. 佛紀二五二五庚申年은 1980년이므로 이 때에 건립한 비석임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팔작지붕형으로 76cm×50cm×43cm의 크기이다.

⑩ 彌勒佛(사진 18)

안양사의 사역내에서 북쪽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8각형의 기단 위에 양·북면 대의 대좌를 구비한후 대형 석불입상을 조성했다. 기단의 각 면에는 팔부신중이 1구씩 양각되어 있다. 시주자명이 새겨진 동판에 「불기2920년 병신 9월16일」이란 명문이 있어 1976년에 건립된 석불임을 알 수 있다.

⑪ 三聖閣(사진 19)

1980년에 세운 건물로 정면 1간, 측면 1간 규모이다. 정면간을 다른 건물의 2간 정도의 크기로 조성한 후 중앙에 출입문을 개설하였다. 시멘트 조성된 건물로 맞배지붕에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내부에는 근년에 조성한 산신탱과 독성탱이 봉안되어 있다.

⑫ 千佛殿(사진 20)

1968년에 세운 정면 3간, 측면 1간 규모의 익공계 건물이다. 낮은 시멘트 기단위에 콘크리트기둥을 놓아 건립했다. 맞배지붕에 겹처마를 구비하였는데,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기와골의 끝에는 암·수막새기와를 얹었다.

⑬ 建物址(사진 21)

종각 서쪽 계곡에 140cm×120cm, 51cm×60cm, 36cm×19cm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여 구축한 길이 990cm, 높이 143cm의 석축이 남아 있다. 석축 뒤로 990cm×645cm의 평탄 대지가 마련되어 있어 안양사의 부속건물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3) 七層塼塔의 考察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양사에는 대부분의 유물이 근세에 조성되어 기록에 나타난 바 대로 16세기 후반경에 폐사되었다가 근세에 들어 다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웅전 앞에 위치한 부도와 귀부의 존재는 이 사찰이 기록과 같이 고려시대에 창건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이곳에 있었다는 칠층전탑의 존재는 경기도 지역에서 신륵사전탑을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유적이었다. 이 전탑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상세히 전하고 있어 그 위용과 더불어 고려초 안양사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전탑에 대해서는 고유섭 선생에 의해 일찍이 주목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또 時代的으로도 限定하여서는 아니될 例로서 輿地勝覽 卷十 衿川佛宇條 安養寺에 「寺之南有高麗太祖所建七層軛塔」이라 있어 李崇仁의 重修記가 실려있다. 그 一句에 「昔太祖獎征不庭 行過此 望山頭 雲成五采 異之 使人往視 果得老浮屠雲下 名能正 與之言稱旨 此寺之所由立也 寺之南有塔 累軛七層 蓋以瓦最下一層 環以周廡十又二間 每壁繪佛扶薩人天之像 外樹欄楯以限出入 其爲巨麗他寺未有也」云々 이라하였다. 卽 高麗에도 塼塔은 훌륭히 있었다. 現在 總督府博物館에 그 塔에서 崩壞된 塼片이 保存되어있는데 그곳에는 新羅塔塼의 一樣式을 模하여 佛像을 浮彫하고 있다. 이같은 例에서도 驪州의 塼塔을 곧 羅代의 것으로 하는 理由는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慎重한 考察을 必要로 할 것이다.¹⁶⁾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전탑의 벽돌부재로 불상을 조각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처럼 벽돌에 탑·상을 부조하여 전탑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신라시대 이래의 전통으로 그 예가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양사의 전탑에 이같은 벽돌이 사용되었다 함은 이 탑이 지닌 아름다움과 품격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안양사의 전탑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된 이숭인의 기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양사의 창건과 당시 탑의 규모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적기해 보면

“옛적에 태조께서 조공하지 않는 자를 정벌할 참인데, 여기를 지나다가 산 꼭대기에 구름이 五彩를 이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습니다. 과연 늙은 중을 구름밑에서 만났는데, 이름은 能正이였습니다. 더불어 말해보니, 뜻에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 절이 건립하게 된 연유입니다. 절 남쪽에 있는 탑은 벽돌로 7층을 쌓았고 기와로 덮었습니다. 제 1 밑층은 행각이 빙 둘러는데, 12간입니다. 벽마다 부처와 보살과 사람과 하느님의 화상을 그렸습니다. 밖에는 난간을 세워서 드나드는 것을 막았는데, 그 거창하고 장려한 모습은 딴 절에는 없습니다.”

이상의 기록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안양사는 고려태조시 能正이란 스님과 왕전에 의해 건립되었다.

둘째, 전탑은 일면 3간 규모의 칠층이었다.

셋째, 각 층의 지붕은 기와로 덮었다.

넷째, 매 칸의 벽마다 많은 그림 및 조각을 했고, 난간을 둘러쌌다.

이처럼 웅대했던 전탑은 이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황폐화 되어 門下侍中鐵原府院君崔公과 住持大師惠謙이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중수한 탑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어 이를 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6) 高裕燮, 「朝鮮의 塼塔에 對하여」, 『韓國美術史 及 美學論攷』, 通文館, 1972, p. 131.

“그러나 오랜 세월과 풍우에 거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검은 아침 저녁으로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한 것이 오래였으나, 힘이 모자랐습니다. 辛酉年 가을 7월에 侍中 崔公을 뵈고 이 일을 고했더니, 공이 말하기를, ‘내 젊었을 때 한 번 탑 밑에 유숙하면서 성조께서 처음으로 경영하심을 우러러 생각하고 사사로 맹세하기를 신이 타일에 진실로 출세한다면, 이 탑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성조의 영에 죄받으리라. 하였다. 지금에 와서 벼슬이 못 官僚의 위에 있으니, 출세하였다 할 것이다. 내 마땅히 나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하고, 곧 양주, 광주 按察使에게 통첩을 보내어 軍租를 털어서 그 비용에 충당하고, 壯丁을 불러서 그 역사를 맡겼습니다. 畿道 囊橐을 다 대고 檀越의 喜捨를 받아서, 쌀·콩·돈·베 약간을 얻었습니다. 또 놓고 있는 겸 같은 자 약간을 청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는 이 해 8월 모일이었고, 일손을 끊기는 9월 모일이며, 落成은 10월 모일이었습니다. 이 날 전하께서 內侍 朴元桂를 보내어 향을 내렸습니다. 승려 천 명을 모아 크게 佛事를 올리고, 舍利 열둘과 佛牙 하나를 탑 속에 봉안하였는데, 四部大衆에게 널리 시주 한 것이 무려 3천 명이었습니다. 그 丹腹은 임술년 봄 3월에 하였고, 그 畫像은 계해년 가을 8월에 하였습니다. 탑 안 네 벽 중 동쪽은 藥師會, 남쪽은 釋迦涅槃會, 서쪽은 彌陀極樂會, 북쪽은 金經神衆會상을 그렸습니다. 행각이 12간인데 벽마다 한 간씩 그린 것은 소위 十二行年佛입니다. 무릇, 역꾼이 4백명이 넘었으며, 쌀이 5백 95섬, 콩이 2백섬, 베가 1천 1백 55필이 소용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큰 비용이며 큰 공역인데, 마침내 능히 완성한 것은 모두 우리 시중께서 發願하기를 맹세한 소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은 오직 국가 복리만을 구한 것이고, 어찌 자기 일신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상의 기록은 칠층전탑의 중수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탑이 무너지л 정도로 황폐화 되어 중수하게 되었다.

둘째, 탑에 대한 중수는 任持大師惠謙이 門下侍中鐵原府院君崔公에게 탑의 현상을 설명하여 辛酉年 7월에 계획되었다.

셋째, 탑의 중수는 신유년 8월에 시작하여 10월에 낙성했다고 한 점을 보아 공사기간이 3개월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다음해인 임술년 3월에 丹腹을 하고, 계해년 가을 8월에 畫像을 하였다는 점을 볼 때 신유년의 공사는 탑의 전체적인 규모에 국한하여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이 內侍 朴元桂를 보내어 향을 내렸다는 점을 볼 때 국가와 왕실에서 이 탑의 중수에 큰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탑의 낙성시 승려 천 명을 모아 크게 佛事를 올리고, 舍利 열둘과 佛牙 하나를 탑 속에 봉안하였는데, 四部大衆에게 널리 시주 한 것이 무려 3천 명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섯째, 탑의 중수에 소요된 비용은 양주, 광주의 軍租를 그 비용을 충당하였고, 역꾼이 4백명이 넘었으며, 쌀이 5백 95섬, 콩이 2백섬, 베가 1천 1백 55필이 소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여섯째, 완공된 탑은 창건시의 규모 그대로 일면 12간의 칠층탑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탑의 네 벽중 동쪽은 藥師會, 남쪽은 釋迦涅槃會, 서쪽은 彌陀極樂會, 북쪽은 金經神衆會상을 그려 十二行年佛의 모습을 갖추었다.

일곱째, 탑의 중수는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복리를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같은 사항은 고려시대에 있어 안양사가 지니고 있었던 寺格과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 한가지 더 생각할 일은 과연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 중수가 이루어 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일단 『梵宇攷』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梵宇攷』에는 “高麗侍中崔瑩使僧惠謙重修”라 기록된 점으로 보아 안양사7층전탑은 崔瑩과 惠謙에 의해 중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辛酉年 가을 7월에 侍中 崔公을 뵈고 이 일을 고했더니”라 기록되어 있음을 보아 신유년 7월에 당시 주지 혜겸과 門下侍中鐵原府院君崔公이 7층전탑 중수의 檀越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양 기록에서 일치하는 점은 혜겸이란 승려와 崔瑩또는 門下侍中鐵原府院君崔公이란 인물이 이 탑의 중수에 관여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탑의 중수에 있어 주된 역할을 했던 최영이 門下侍中鐵原府院君崔公과 같은 인물이었음을 밝히면 중수의 주체는 물론 그 시기 또한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중수연대인 辛酉年은 최영 또는 鐵原府院君崔公의 관직명이 門下侍中으로 표기된 점을 보아 1381년(고려 우왕 7)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에 있어 문하시중의 변천을 볼 때 성종때까지 존속하다가 이후 관제의 개혁으로 명칭이 바뀐 후, 1356년 공민왕의 관제개혁으로 그 직명이 부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7층 전탑의 중수는 문하시중이 부활된 1356년 이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重新記를 지은 李崇仁이 1349(충정왕 1) - 1392(태조 1) 사이에 생존했던 인물인 점을 고려할 때 안양사 칠층전탑은 1381년(고려 우왕 7)에 중수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볼 때 안양사칠층전탑의 중수를 주도했던 門下侍中鐵原府院君崔公은 崔瑩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영이 1376년 연산 개태사에 침입한 왜구를 무찌른 공로로 鐵原府院君에 봉해지고¹⁷⁾ 관직이 문하시중에 이르고 있으며, 당시의 문하시중을 거친 인물가운데 최씨성을 가진 이는 최영밖에 없음을 볼 때 이같은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을 통해 볼 때 안양사7층전탑은 1381년(고려 우왕 7)에 안양사 주지 惠謙과 최영의 주도하에 앞서 고찰한 東州의 利川人 高氏와 더불어 국가의 안녕과 복리증진이라 목적하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17) 『高麗史』, 권 113, 「列傳」 26, 崔瑩 條.



사진 1. 安養寺 全景



사진 2. 寮舍體



사진 3. 冥府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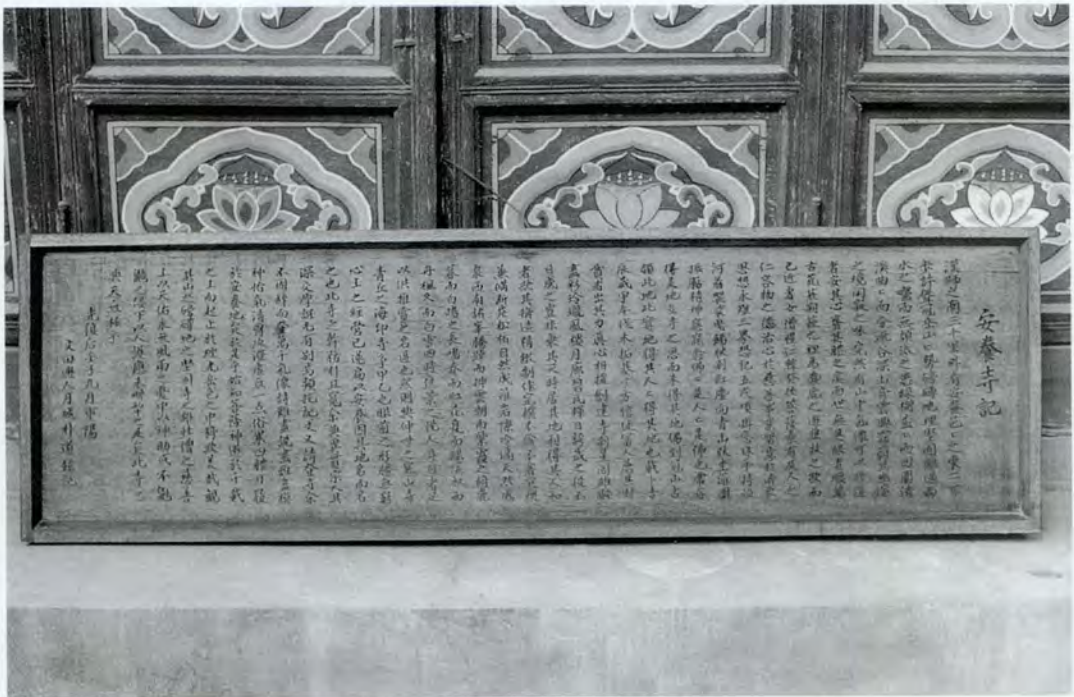


사진 4. 冥府殿 內 安養寺記 懸板



사진 5. 大仁師浮屠 및 塔碑



사진 6. 尋劍堂



사진 7. 浮屠



사진 8. 浮屠의 基壇部 및 上臺石



사진 9. 浮屠의 屋蓋石



사진 10. 龜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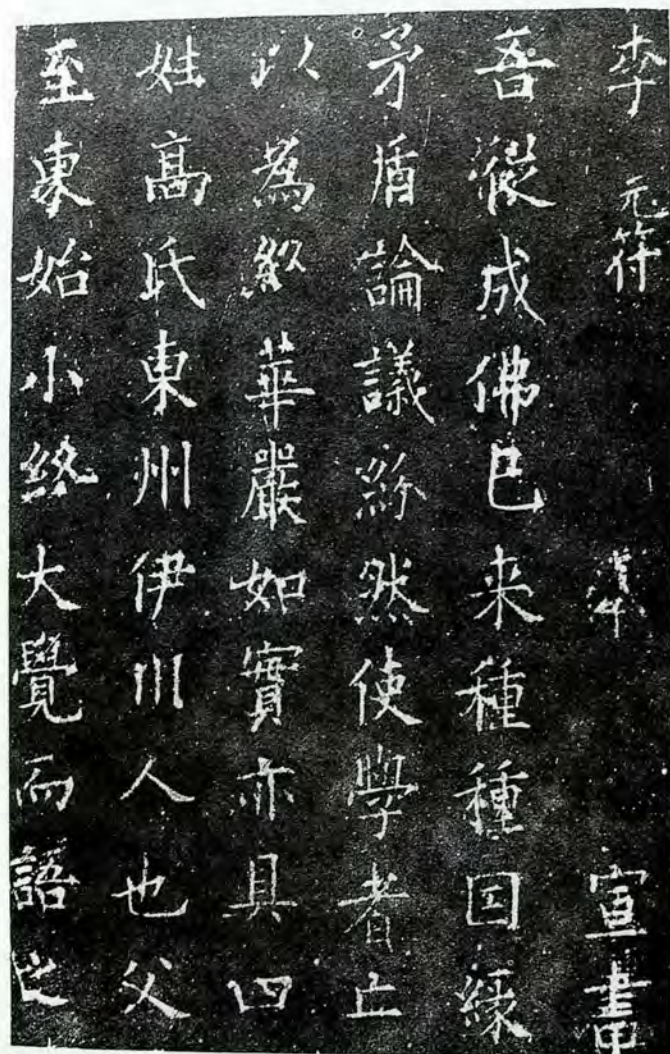
사진 11. 龜趺의 龜頭部



사진 12. 龜趺의 後面部



사진 13. 龜趺의 碑座



上全

李元符

李

宣書

安養寺七層塔銘

吾從成佛已來種種回緣
 矛盾論議紛然使學者止
 以為歟華嚴如實亦具四
 姓高氏東州伊川人也父
 至東始小終大覺而語之

사진 14. 『大東金石書』의 安養寺七層塔銘



사진 15. 大雄殿



사진 16. 梵鐘閣



사진 17. 碑石群



사진 18. 彌勒佛



사진 19. 三聖閣



사진 20. 千佛殿



사진 21. 建物址

3. 念佛庵(사진 1·2)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7번지

주 지 : 성수(37세)

1) 沿革

조계종 용주사의 말사로 고려태조시 能正스님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염불암은 삼성산의 가파른 암벽과 절묘한 산세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의 내방을 받고 있는 사찰인 바, 각종 문헌에 그 편린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新增東國輿地勝覽』安興寺·三藐寺·望日寺·聖住寺 : 俱在三聖山¹⁾

『輿地圖書』念佛庵 : 在三聖山²⁾ 1757(영조 23)

『梵宇攷』念佛庵 : 在三聖山³⁾

이밖에 사찰에 구전되어 오는 寺歷을 정리해 보면

- 926년(고려 태조 9) : 고려 태조가 能政大師가 수행하던 곳에 사찰을 세웠는데, 安興寺라 했다.
- 1407년(조선 태종 7) : 풍수지리상 한양의 백호에 해당하는 관악산의 지맥을 누르기 위해 주변의 몇몇 사찰을 중건할 때 염불사도 중창을 했음.
- 1856년(철종 7) : 道印스님이 화주가 되어 칠성각을 건립함.
- 1904년(고종 41) : 湖南普正스님이 사찰을 중창함.
- 1927년 : 주지 金聖念스님과 거사 朴鼎臣이 사찰을 중수함.
- 1930년 : 洗心樓 신축
- 1932년 : 山神閣 중수
- 1941년 : 大雄殿과 칠성각 중수
- 1956년 : 6.25를 겪으면서 퇴락했던 사찰을 주지 性空 奇石스님이 대웅전과 삼성각을 중수하고, 수십간에 달하는 요사를 신축함.
- 1968년 : 높이 8m에 달하는 마애불을 5년의 불사 끝에 조성함과 동시에 공덕비를 세움.
- 1981년 : 팔각오층석탑을 건립함.
- 1993년 : 현재의 요사체를 신축함.
- 1998년 : 대웅전의 신축공사를 진행중임.

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0, 衿川縣 佛宇條.

2) 『輿地圖書』, 京畿道 衿川 寺刹條.

3) 『梵宇攷』, 衿川 寺刹條.

이상과 같은 기록과 구전되는 寺歷을 볼 때 염불암은 고려태조가 창건했다고 『新增東國輿地勝覽』 하나, 현존하는 유물은 대부분이 조선시대 후기의 것임으로 인해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梵宇攷』 등의 문헌에 사찰이 존속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근대 이래 꾸준히 불사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염불암은 창건이래 한 시도 쉽없이 법등을 이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2) 遺蹟과 遺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염불암에는 비록 조선시대 후기의 조형물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조성된 많은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기술훈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大雄殿(사진 3·4)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로 1956년에 중수했다고 한다. 장대석으로 축조된 6단의 계단석 상면에 건립되었는데, 圓形의 초석 상면에 팔각의 석제기둥을 놓아 건립했다. 맞배지붕으로 한식골기와를 올렸는데, 좌·우에는 방풍판을 두었다. 내부에는 근년에 조성된 석가모니 삼존불과 지장보살 및 2점의 탱화가 걸려있다.

현재 이 건물의 동쪽에 새로운 대웅전을 건립하고 있는데, 단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신축중인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로 중앙간을 넓게 잡아 출입문으로 활용하였고, 측면에는 쪽문을 개설하고 있다. 화강암으로 축조된 기단위에 건립되었는데, 팔작지붕을 지닌 다포집이다. 이 건물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제 원형기둥을 들 수 있다. 즉, 다른 건물에서와 같이 매끄럽게 다듬은 기둥이 아니라, 본래 나무가 지녔던 구불구불하고 휘어진 특성을 그대로 살려가며 활용하여 전체 건물과 잘 조화를 이룰뿐만 아니라 자연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大雄殿 앞 石築(사진 5·6)

대웅전으로 오르는 계단의 남동·북서쪽에 근년에 다시 쌓은 2단의 석축이 구축되어 있는 바, 이중 일부 구간은 석재의 쌓임 수법으로 보아 창건 혹은 중창시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계단석을 중심으로 남동편의 석축은 길이 10m, 높이 2m의 규모인데 자연석 난층쌓기 수법으로 구축되어 있다. 석축에 사용된 석재는 167cm×55cm - 34cm×29cm의 크기이다. 북서쪽의 석축은 3단으로 축조되었는데, 이중 중간부가 원형을 보이고 있다. 길이 13.5m의 규모인데, 북쪽으로 회절하여 길이 6m, 높이 3.3m의 규모를 남기고 있다. 사용된 석재의 크기 및 축조방법은 남동편의 석축과 같다.

③ 八角五層石塔(사진 7)

1981년에 건립한 오층석탑으로 지대석으로부터 상륜에 이르기까지 팔각형의 평면으로 조성하였다. 기단의 각 면에는 신중상이, 탑신에는 4층까지 각 면에 불상이 조식되었다. 석탑의 주위에는 8개소에 각각 1매 판석을 세웠는데, 각 면에는 신장상이 1구씩 양각되어 있다. 석탑에 지대석에 세워진 건립비에 佛紀二五二五 辛酉年 五月, 京畿道 安養市 石水洞 山十七, 念佛寺七層石塔 舍利參果奉安干」 및 시주자의 명단이 새겨있다.

④ 獨聖閣 및 山神閣(사진 8~10)

이들 건물은 대웅전의 뒷편 암벽의 중간에 약간의 대지를 구축하고 나란히 건립되어 있다. 각각 정면 1칸, 측면 1칸의 규모인데, 팔각의 석조기둥을 사용하여 건립하였다. 맞배지붕에 한식골기와의를 올렸는데, 현재 기와보수공사가 진행중이다. 지붕의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독성각내에는 佛紀二五二五 辛酉年 四月에 조성된 독성탱 1점이 봉안되어 있다.

산신각의 뒷편 암벽에는 높이 135cm, 너비 40cm 규모의 상면을 둥글게 다듬은 장방형額이 있다. 額內에는 「南無萬德高勝山王大神之位」란 명문을 자경 8cm의 해서체로 새겼다. 아울러 북서쪽 암벽에도 높이 60cm, 너비 30cm의 장방형 액이 있는데, 내부에는 명문의 흔적이 있으나, 마멸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하다.

⑤ 彌勒佛(사진 11~14)

1947년에 부인한 주지 性空 奇錫和尚이 1960년 어느날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마를 만지며 부탁하기를 마애불상을 새겨 널리 중생을 구제하라 하여 꿈에서 깨어 보니 그 모습과 음성이 깃가에 쟁쟁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1964년부터 불사를 시작하여 5년 후인 1968년에 미륵불을 완성하고 공덕비를 세웠다고 전한다.

미륵불은 거대한 암벽을 굴착하여 조성해 뒷벽으로부터 돌출된 형상을 지니고 있다. 素髮의 頭頂에는 조그만 肉髻위에 사각형의 보개를 쓰고 있는데, 네 귀퉁이에는 풍경이 달려 있다. 상호는 장타원형으로 耳·目·口·鼻가 뚜렷한데, 이마에는 백호가 있다. 양쪽귀는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았는데,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법의는 통견으로 가슴으로부터 넓직한 U자형의 의문이 흐르고 있는데, 양 발의 무릎이하에도 같은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수인인 施無畏如願印으로 노출된 양 발의 하단에는 단엽7판의 仰蓮이 조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신체비례가 맞지않음을 볼 수 있다.

미륵불의 전면에는 2기의 비석이 건립되어 있다. 이들 모두 4면비로 비좌·비신·이수를 갖추고 있는데, 미륵불의 전면으로부터 각각 236cm, 193cm의 규모이다. 이중 미륵불의 바로 앞에 있는 비석의 1면에는 염불암의 사적이 새겨져 있고, 2면에는 附 龍華石像佛事化緣錄, 銘에 이어 바로 옆의 비석에 걸쳐 미륵불의 시주자 명단이 새겨있다. 비문에 전하는 염불암 사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冠岳三省山念佛庵事蹟碑銘」五祖云守本真心勝念十方諸佛六祖云常念他佛不免生死守我本心即到披岸又云迷人念佛求生悟人自淨其心如斯等禪家徑截門之常談不爲不多其奈有禪無淨土十人九錯路無禪有淨土萬修萬人去何乎故八萬四千法門何莫非深且妙矣唯念佛一門最爲第一寔越若海之迅航出輪迴之捷徑三世諸佛異口同說十方菩薩同願往生稱名一聲天魔摧折心肝端坐十念閻王削目名簿者哉昔新羅文武王時元曉義湘潤筆三聖人於此地也創伽藍而勸人念佛故山名三聖寺號念佛豈徒然者哉厥後千三百餘年來間間補修不日不有無文可考是可恨也上兩傍風徒令白馬之悲嘶而已矣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丁亥現住持性空奇錫和尚蒞任之後勞身勞力口手拮据百弊俱興越丙申新築大雄殿重修三聖閣仍建寮舍數十間基址之開坼比前十倍最夕焚修鐘鼓競鳴矣越庚子偶得一夢慈氏菩薩摩頂而囑云可於此處磨崖刻佛像廣濟未來既覺巍巍德相落落圓音昭昭耳目敢不銘心於是東点西卜欲求可刻之所恨世無善視之青鳥矣千辛萬苦之餘探得今所越甲辰募檀力而始刻至戊申功告訖希有哉之世尊百福相之莊嚴矣噫孰知夫昔日之三聖非安養三聖之化現歟又安知夫今日之因緣非龍華三會之果報也哉欲知未來事今生作者是豈其厚誣也哉繼之以銘若人守得自本心勝念十方無數佛雖是禪家徑截門元非上智難成佛故開三聖大方便二六時中常思佛將此因緣奉刹塵當來親見龍華佛佛紀二九九五年戊申月雪翻山人下榮世識金剛山人洪白熊書

⑥ 靈山殿(사진 15)

미륵불의 북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건물로 圓形의 초석 상면에 석재로 조성된 팔각형의 기둥을 놓았다. 건물의 전면을 제외한 3벽의 외벽에는 장방형의 화강암을 덧붙였다. 사모지붕으로 내부에는 석고로 조성한 雜像이 봉안되어 있다.

⑦ 七星閣(사진 16)

미륵불의 왼쪽 암벽에 대지를 구축하고 건립했다.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원형초석 상면에 팔각형의 석조기둥을 놓았다. 건물의 전면을 제외한 3벽의 외벽에는 장방형의 화강암을 덧붙였다. 맞배지붕으로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내부에는 佛紀二五二三年己未五月에 조성한 탕화 1점이 있다.

⑧ 寮舍體(사진 17)

근년에 신축한 콘크리트 2층 건물이다. 1층은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은 종무소와 요사로 사용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로 팔각지붕을 놓았다.

⑨ 西影堂浮屠(사진 18)

사찰의 중심축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건립된 禪房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대좌와 탑신을 구비한 석종형 부도로 전체 높이는 153cm이다. 장방형의 대좌는 88cm×77cm×33cm의 크기인데, 상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다듬지 않았다. 탑신은 석종형으로 높이 90cm, 하부 지름 57cm의 크기인데, 전면에 31cm×49cm의 장방형 액을 마련한 후 信士西影堂弘記嘉慶十五

年庚午」都化主信士大信」이란 명문이 자경 7cm 크기의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정상에는 연봉형의 보주가 탑신과 一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도는 전면의 명문으로 보아 1810年(순조 10)에 大信의 발원으로 건립된 西影堂 知弘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⑩ 印峯堂浮屠(사진 19)

禪房의 아랫쪽 건물지에 쓰러진채 방치되어 있다. 기단을 상실한 석종형부도로 높이 143cm, 하부지름 53cm의 크기이다. 탑신의 전면에 32cm×70cm의 장방형 액을 마련한 후 嘉慶二一年丙子七月日」清信士印峯堂大心塔」都化主子孫釋明察」이란 명문이 자경 8cm 크기의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정상에는 연봉형의 보주가 탑신과 一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도는 전면의 명문으로 보아 1816年(순조 16)에 明察의 발원으로 건립된 印峯堂 大心の 부도임을 알 수 있다.

⑪ 現眞堂磨崖浮屠(사진 20·21)

禪房의 왼쪽에 위치한 높이 6m, 너비 3m 규모의 암벽 하단부에 부조되어 있다. 부도는 60cm×50cm 크기의 얇은 감실을 조성한 후, 너비 44cm, 높이 5cm 규모의 장방형 대좌를 갖춘 碑身形이다. 마애부도의 규모는 높이 49cm, 너비 42cm의 크기로 중앙에는 감실을 개설하고 있다. 감실은 17cm×21cm, 깊이 16cm의 규모인데, 안쪽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형상을 하고 있다. 감실의 주변에는 乾隆四十八年十月日」居士」法洪」現眞堂」의 명문이 자경 10cm 크기의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이 부도는 마애부도라는 특이한 형식과 함께 명문으로 보아 1783년(정조 7)에 조성된 현진당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⑫ 礪山宋氏磨崖浮屠(사진 22·23)

現眞堂磨崖浮와 인접한 높이 6m, 너비 5m 규모의 암벽 상단부에 부조되어 있다. 부도는 50cm×40cm 크기의 얇은 장방형의 감실을 조성한 후, 중앙에는 감실을 개설하고 있다. 감실의 상면에는 10cm 정도 높이의 보주를 새겼다. 감실은 20cm×20cm, 깊이 20cm의 방형이다. 감실의 주변에는 光緒十六年庚寅」坤命 三月日」甲辰」生」礪山宋氏佛道」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 부도 역시 現眞堂浮屠와 같이 마애부도라는 특이한 형식과 함께 명문으로 보아 1890년(고종 27)에 조성된 부도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유적외에 현재의 선방지역과 아랫쪽의 대지 즉, 印峯堂浮屠가 있는 지역은 본래 염불암의 부속암자 혹은 시설이 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사진 1. 念佛庵 全景 1



사진 2. 念佛庵 全景 2



사진 3. 大雄殿



사진 4. 新築중인 大雄殿



사진 5. 大雄殿 앞 石築 1



사진 6. 大雄殿 앞 石築 2



사진 7. 八角五層石塔



사진 8. 獨聖閣



사진 9. 山神閣 뒷편 磨崖銘文



사진 10. 山神閣 북서쪽 磨崖銘文



사진 11. 彌勒佛



사진 12. 彌勒佛 상단부



사진 13. 彌勒佛 하단부



사진 14. 事蹟碑



사진 15. 靈山殿



사진 16. 七星閣



사진 17. 寮舍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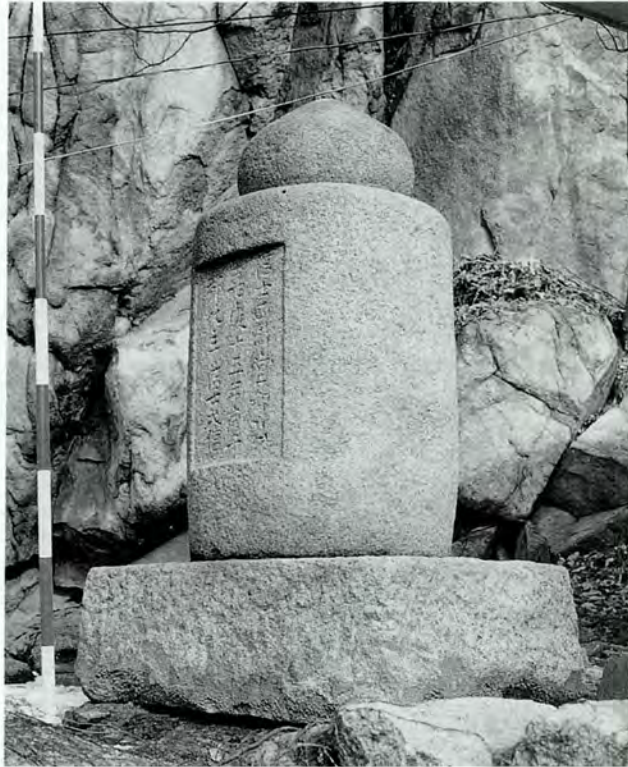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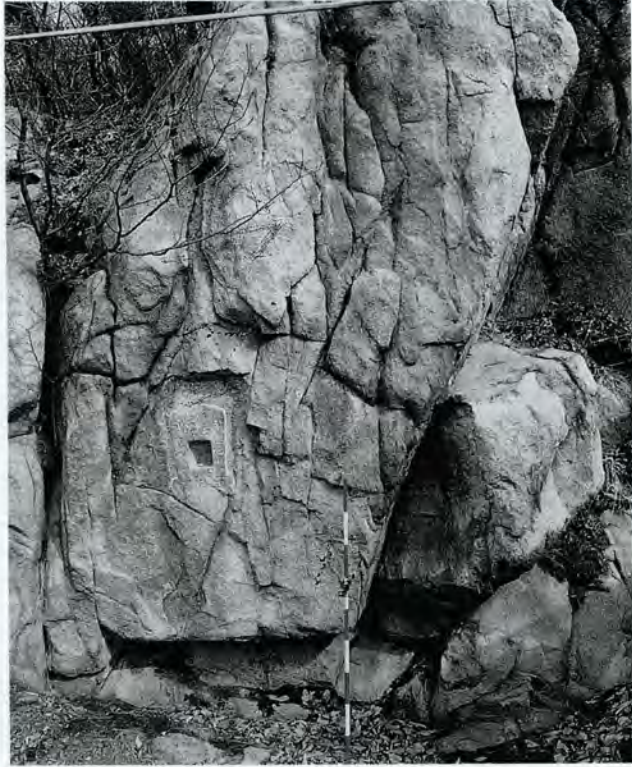


사진 18. 西影堂浮屠



사진 19. 印峯堂浮屠



· 사진 20. 現眞堂磨崖浮屠 全景



사진 21. 現眞堂磨崖浮屠 細部



사진 22. 礪山宋氏磨崖浮屠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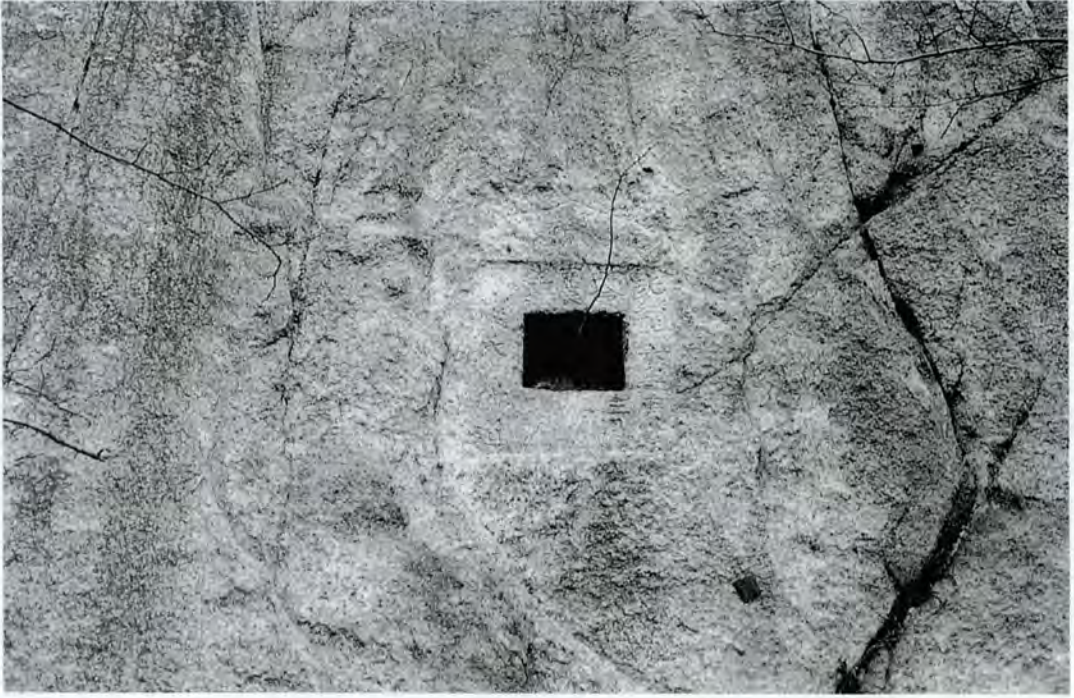


사진 23. 礪山宋氏磨崖浮屠 細部

4. 佛性寺(사진 1·2)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번지

주 지 : 鶴鳴(洪大奉)

1) 沿革

태고중에 소속된 사찰로 『과천읍지』에 “佛聖寺在縣西十五里冠岳山西麓”¹⁾라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표기된 佛聖寺는 현재의 寺名과 다르지만, 불성사가 관악산에 위치하고 있고, 관악산에서 볼 때 이 지역이 서쪽에 해당하기 때문이 이는 읍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誤記로 생각된다. 현재 불성사에는 『佛性寺略歷(1937년, 昭和 12)』 전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寺歷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신라시대 : 元曉·義湘·潤筆이 삼막사를 창건할 당시 의상대사가 창건함. 이후 수백간의 기와집을 이루어 이름을 佛成이라했고, 승려가 400-500명에 달했다고 한다. 나아가 과천의 한 읍의 시주로 범종을 조성함. 이 종은 양주 흥국사로 갔다가 다시 반환되었으나, 이후 화재로 소실됨.
- 조선시대(1차중창) : 覺圓大使가 중창불사를 함. 이후 도량이 一新하고, 승려 수백명이 독경을 했다고 함. 이후 화재로 완전 소실됨.
- 조선시대(2차중창, 1590년, 선조 23) : 淸虛大師 즉, 西山大師가 주석하여 다시 중창하였으나, 전에 비해 1/4의 규모로 축소됨. 이후 1886년(고종 23)의 화재로 완전소실됨.
- 1887년(고종 24) : 吳章熙大師가 중창 함. 이후 화재로 소실됨.
- 1936년 : 靑雲大師가 다시 중창 하였으나, 같은해 1월 16일의 화재로 완전 소실됨.
- 1937년 : 靑雲大師가 다시 佛事를 일으켜 같은해 8월에 준공하고, 11월 27일에 奉佛式을 거행함.
- 1970년 : 이한영(李西念)주지의 뒤를 이은 李法海住持가 대웅전을 복원함.
- 1976년 10월 11일 : 소납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여 사찰을 등기함.
- 1986년 9월 : 오층석탑을 건립함.
- 1989년 11월 : 미륵불을 조성함.
- 1998년 현재 : 현재 주지 洪大奉스님에 의해 중창불사가 계획중임.

이상과 같은 寺歷을 볼 때 불성사는 의상대사의 창건이라 하나 현존하는 유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각원선사와 서산대사의 중창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각원선사의 부도와 「萬曆十八年」銘의 刻字가 현존하고 있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佛性寺略歷』과 유적을 토대로 볼 때 불성사는 늦어도 임란

1) 『果川邑誌』, 佛宇條, 1939.

이전 즉, 조선시대 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1590년경에는 수백명의 승려가 기거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사찰로 존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19세기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寺勢를 유지하다가 1887년의 화재 이후 계속되는 火魔로 인해 사찰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37년 靑雲大師의 중창 이후 사찰의 면모를 갖추며 법등을 이었고, 특히 1970년대 이후의 꾸준한 佛事는 현재의 불성사를 존속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遺蹟과 遺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성사에는 곳곳에 다양한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覺圓禪師磨崖浮屠 (사진 3·4)

불성사입구의 서편 암벽에 浮彫되어 있다. 부도는 정서향한 높이 7m, 너비 5m의 암벽 하단부에 80cm×105cm 크기의 얇은 감실을 조성하고 마애부도를 양각했다. 부도의 형상은 장방형의 탑신에 연봉형의 보주를 놓은 형상인데, 93cm×53cm의 크기이다. 중앙에는 25cm×28cm 크기의 감실을 조성하였는데, 하단에는 지름 7.5cm, 깊이 4cm의 圓形舍利孔을 굴착하였다. 감실의 주변에는 比丘, 覺圓禪, 丙辰八月日,의 명문이 자경 6cm의 크기로 음각되어 있다.

이 부도는 마애부도라는 특이한 형식과 함께 명문으로 보아 丙辰年 8월에 조성된 覺圓禪師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② 石築 1(사진 5)

불성사 입구에 2단으로 구축되어 있다. 많은 부분이 붕괴되었지만, 상·하단은 길이 28m, 높이는 각각 1.6m와 2.8m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는 계단지의 흔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본래는 불성사의 입구로 사용되었던 석축으로 생각된다. 상면에는 18.2m×13.1m 규모의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찰의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③ 石築 2(사진 6)

미륵불의 서편에 위치한 2단석축으로 이곳에 형성되었던 계곡을 메꾼 후 사찰의 부속건물을 지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북 16도의 향을 지닌 석축은 길이 13m, 높이는 상·하단이 각각 162cm와 270cm의 규모인데 자연석 난층쌓기 수법으로 구축하였다. 석축에 사용된 석재는 38cm×26cm - 180cm×50cm의 크기이다. 상면에는 15.5m×12.4m 규모의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어 건물지였음을 알 수 있다.

④ 彌勒佛(사진 7)

석축 2의 바로 옆에 약 30평정도의 대지를 구축하고 미륵불과 공덕비를 나란히 세우고,

전면에 쌍사자석등을 건립했다. 화강암으로 조성된 미륵불은 神衆像이 양각된 팔각형의 기단 위에 仰·伏蓮臺의 대좌로 삼은 후, 미륵입상을 봉안했는데, 전체 높이는 5.5m이다. 공덕비는 비좌·비신·이수를 구비한 3면비로, 전면에는 彌勒佛功德碑, 佛性寺住持, 鶴鳴 洪大奉, 佛紀二五三三年 七月 日,과 시주자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1989년 11월에 조성했다고 한다.

⑤ 萬曆十八年 刻字石(사진 8)

요사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152cm×62cm 크기의 바위면에 “萬曆十八年造”의 명문을 자경 22cm의 크기로 음각했다. 萬曆十八年은 1590년(선조 23)으로 『佛性寺略』에 기술된 바와 같이 淸虛大師 즉, 西山大師의 중창사실과 합치하는 유물로 보인다. 그러나 『佛性寺略』이 1937년에 쓰여진 기록임을 볼 때 이 刻字石에 불성사의 事蹟을 제맞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서산대사가 이 사찰에 머물렀다는 확실한 기록이 없는한 大師에 의한 중창이라기 보다는 1590년에 불성사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석으로 생각된다.

⑥ 七星閣 標石(사진 9)

요사채의 앞마당 한편에 놓여있다. 평면 팔각형으로 일면에는 자경 7cm의 크기로 “七星閣”이라 음각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梵字 2자가 음각되어 있다. 높이 25cm의 短柱로 불성사에 칠성각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유물로 생각된다.

⑦ 石漕(사진 10)

불성사의 우물옆에 위치하고 있다. 원통형의 형태로 높이 52cm, 지름 67cm로 내면에 깊이 40cm, 지름 47cm의 圓形 水槽가 개설되어 있다.

⑧ 五層石塔(사진 11)

1986년 9월에 건립한 높이 4.8m의 오층석탑이다. 일층탑신에는 중앙에 「佛」자를 중심으로 「舍利奉安」이라 음각했는데, 일봉 서경보스님으로부터 받은 사리 五果를 봉안했다고 한다. 탑의 동편에는 祖國統一祈願一鵬詩碑가 건립되어 있다.

⑨ 山神閣(사진 12)

전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소형건물이다. 양철슬레이트로 조성한 맞배지붕을 올렸다. 내부에는 근년에 조성한 불상과 산신탱을 봉안하고 있다.

⑩ 大雄殿(사진 13)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시멘트 기단위에 건립되어 있다. 圓形의 콘크리트 기둥에 맞배지붕을 올렸는데,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현재 기와불사가 진행중이다. 법당 내에는 근년에 조성한 석가모니 삼존을 비롯해 여러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⑪ 大雄殿內 塑造如來坐像(사진 14~19)

대웅전내에 봉안된 불상중 가장 소형으로 개금된 상태라 금색이 찬연하지만, 본래는 塑造佛로 보인다. 螺髮의 두정에는 낮고 작은 肉髻가 있고, 중앙에는 髻珠가 표현되었다. 相好는 사각형에 가까운데, 양 볼에는 살이 빠져 평면적인 느낌을 준다. 이마의 중앙에는 작은 白毫가 표현되었고, 수평으로 길게 찢어진 눈꼬리를 지닌 반개한 눈, 등이 평평하게 처리된 코, 굳게 다문 입술등에서 근엄성을 느끼게 한다. 양 귀는 짧게 처리하였는데, 목에는 三道가 표현되었다.

法衣는 통견으로 양 어깨에는 길게 U자형으로 이루며 착용하였는데, 왼쪽어깨에는 세로 방향으로 소략한 의문이 흐르고, 오른쪽 어깨에는 大衣를 건친 흔적이 남아있다. 양 무릎에는 의문이 표현이 없으나, 발목사이로는 上衣가 흘러내리며 ㄱ형 과 소략한 의문이 흐르고 있다. 양 속은 양쪽 무릎에 각각 가지런히 놓아 내장하고 있다. 가슴에는 仰蓮과 같은 형식의 衣帶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낮은 대좌의 상면에는 법의자락이 흘러내려 자연스럽게 파상문을 이루고 있다.

조상의 하면에는 8cm×7cm 크기의 방형 복장공이 있는데, 복장물은 근년에 새로 조성했다고 한다.

이 불상은 안정된 균형감각을 지니고 있지만, 상호에서 나타난 근엄성, 소략한 의문 등을 볼 때 조선시대 후기인 1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 각부의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cm. 全高 : 34., 頭高 : 13, 頭幅 : 10, 肩幅 : 16, 胸幅 : 5.5, 膝幅 : 24, 膝高 : 6)

이밖에 요사체 2동과 창고 1동 및 1974년에 조성한 높이 63cm의 銅鍾 1구가 있다.

불성사에 전하는 『佛性寺略』의 원문과 번역문의 순으로 수록한다.

佛性寺²⁾畧歷

佛成寺畧歷

距今壹千三百年即新羅文武王時也 維我朝鮮僻在海隅 諸般道德未洽 幸而異次頓³⁾殺身殉教 佛法於是乎大彰 巨智(當時呼道僧之言也)義湘祖師傳授清淨心法而未見性 故乃棲於漢陽之南果川冠岳山中 道場未築 林下露宿是出家人之本色 定禪基於高峯巖穴 則今之義湘始也(自寺之西北間五百未突許) 結草代蒲團⁴⁾ 肉身苦行壯觀 掬水充腸 悅若觀音之甘露 日去月諸未幾中釋迦之明星 達摩⁵⁾之朝天 一輪成道 其時祖師之心鏡月容相照 性智法輪完成 故如此大地大覺之處 等閑放棄 越明年 肩担鉢囊 周遊四方 廣求善男子善女人施主 鳩集金錢 始建築聖殿於此處 地基雖窄 局成太極圖形雲中仙子之勢 構成數百間瓦家 名曰佛成 見性曰成佛 故 祖師此處見性故曰佛成 字之上下相兌 歎隱唐突之意 其後祖師之三兄弟中 昆曰元曉 仲曰尹弼 季曰義湘 今之三幕是三兄弟之所創 三兄弟磨道煉性 光輝三十里 遠近法友負鉢相從 居留僧侶不下於四五百人 其時果川一邑 釀出福錢 鑄成鳴鍾聲聞十里 其後楊州興國寺奪去 施主八十餘名合心尋來 車永(斷然)化失火 當時永燒無形 其時祖師之法力 佛法之盛行 未有若此者 吁 運有威衰人有生死 理之固然 祖師之離此後 此寺之形便不成貌樣 日去月深 風磨雨灑 如此巨創之大利 未免一壞 幸而天數適值 地運相遭 神用其間 故覺圓大師再承舊業 修葺..瓦 改築倒棟 一新此寺 道場復振 僧侶數百 誦經煉道 覺圓之法力 終成大道 故今此寺之西北間數百米突許石壁間 覺圓之舍利卓頭 尙遺舊跡 此寺本是羅漢道場 故神通妙跡種種間有 其後清虛大師當時節值冬至上祠 早起歡炊豆粥 往探火爐則灰冷火滅而久矣 大眾恐惶無已 一人入..歎棄..灰 一塊炭灰發見 歡喜無比 大眾齊聲神奇云云 因以此大 炊粥供養後未幾 洞里施主吳氏冒雪山上 大眾問其故則 曰此寺之上弟小童 乞火于吾家 故于先豆粥一器 禦寒後齋火上送後 深深思之則如此嚴寒 數尺小童豈能還寺 即時從後來也云云 大眾面面相顧曰 一人乞火未有 入法堂而觀察諸佛像則羅漢佛口邊 豆粥尚粘 當時佛像至今羅漢殿玉佛 厥後

- 2) 性字는 成과 混用하고 있다. 이는 본문에서 “……名曰佛成 見性曰成佛 故祖師此處見性 故曰佛成 字之上下相兌 歎隱唐突之意”라 하여, 이를 토대로 한다면 佛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 性字로의 변화는 어느 때인 지 확실하지 않다.
- 3) 이차돈(506~527)은 居次頓, 處道, 異次, 伊處 등으로도 불리며 字는 厭觸, 厭都이다. 법흥왕의 측근 신하로 일찍부터 불교를 신봉하였고 벼슬은 內史舍人까지 올랐다. 527년(법흥왕14) 불교를 국교화하는 과정에 토착신앙을 따르는 신하들의 반대로 순교하였다. 경주 柏栗寺의 石幢에 순교의 과정과 異蹟으로 흰 피가 흘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817년(헌덕왕 9) 國統 惠隆이 무덤을 만들고 비를 세웠다.
- 4) 蒲團은 승려가 좌선할 때 또는 절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들을 짜서 만들며 그 형상이 團圓이므로 포단이라 한다.
- 5) 범어로는 Dharma 중국 남북조시대의 선승으로, 중국 선종의 시조이다. 남인도 香至國의 3왕자로 대승불교의 승려가 되어 선에 통달하였다. 나이 130에 중국으로 건너 가서 梁武帝를 만났으나 인연이 닿지 않아 北魏의 소림산으로 들어가 面壁하기를 9년간 했다. 洛陽의 神光(慧可)이 와서 유명한 '安心' 문답으로 禪風을 이었다.

數年 不幸劫火中全燒此寺 無一棟完者 清虛大師⁶⁾ 極力竭誠 再創此寺 時卽有明萬曆十八年也⁷⁾ 其時年代表石 尙今在于築坵石中 此時 此寺之全景 比前則四分之一 未備 僅僅數間瓦家 奄佛像之風雨 異跡寶物 晦光難得 其時仁川金奉鉉祖父⁸⁾ 本以船業生涯 一日偶遭風浪 怒濤接天 茫茫無際大海中 數日苦楚 漂迫於一小島 人家求之不得 船員四散求食 幸逢數間斗屋中 三個老僧端坐跏趺 入定而久矣 船員入前求活 則一僧帶笑而問曰 如何人求活耶 船員哀聲俱術遭難之事 則其僧頗眉慈悲狀態 喻曰 吾等不食人間飲料久 此處小無食品 少頃待期云云 俄而三個飯鉢給與 三人飽食免免 向僧面謝 則老僧只帶微笑而已 三人再請活路 則老僧曰少無念慮 符書二張付于船頭尾 曰此船之去來 自任其意則 自然至于汝家 此鉢之出處 汝家之正見照火寺 是鉢之本處 三人叩頭再請尊號 則曰吾之三人 元曉尹弼⁹⁾ 義湘 三人拜別登船 則船自運水 於焉間仁川到泊 三人歡喜下陸 繫柱而數少後顧 則一大巨物自船底出而洋洋而逝矣 其後金奉鉉祖父 廣求鉢之本處則今佛成寺也 其時三個鉢以銀造成 一個戀主持去 二個火災中燒滅 此劫火距今四十年前明治十九年 光武九年¹⁰⁾也 秋季之節 偶然火發于無人之際 一個老尼 奈何救火 不幸老尼慘死於劫火中 前述異蹟中玉佛 出坐于巖間 其餘什物 一無可遺 厥後明年 吳章熙大師 大發誠心 此寺再創事 專力施主於善男女處 而數年間無限苦楚 受 完然成積 然則此寺之火災 第二次也 昭和十一年¹¹⁾ 一月十四日 卽今主持青雲大師係任後八年 自義湘至于今歷任二十八代也 寺厄未盡 是日之子半 不知起源之火 第三次燒滅 吁此寺運何太多耶 三輪劫火無復可望 歷史久奇跡多 如此寺刹 豈等閑放棄 故青雲和尚發念忘食 東西鳩集 僅僅越明年昭和十二年八月竣工 十一月二十七日 施行奉佛式而告功

昭和拾二年¹²⁾陰十月二十一日 冠岳山人 謹稿

6) 본명은 休靜(1520~1604)으로 조선 중기의 스님이다. 호는 淸虛, 西山이고 字는 玄應이다. 別號로는 白華道人, 楓岳山人, 頭流山人, 妙香山人, 曹溪退隱, 病老 등이 있다. 속성은 崔씨로 본관은 完山이다. 9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10세에 아버지마저 여의었다. 1534년(중종 29) 15세에 진사과에 낙방한 뒤 지리산에 들어가 崇仁에게 공부했고 芙蓉 靈觀을 전법사로 모셨다. 1552년(명종 7) 승과에 급제하고 普雨의 후임으로 봉은사의 주지가 되기도 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73세의 고령으로 八道十六宗 都摠攝이 되어 승병을 지휘하였다. 1604년(선조 37) 묘향산 圓寂庵에서 입적했다. 저술로 『禪家龜鑑』이 유명하다.

7) 1591년(선조 24)이다.

8) 1996년 현재 불성사의 신도 가운데 노량진에 거주하는 金明守씨의 先祖라 한다.

9) 三幕寺事蹟記에는 潤으로 되어 있다.

10) 1886년이다.

11) 1936년이다.

12) 1937년이다.

불성사약력(역문)

지금으로부터 일천삼백년은 곧 신라 文武王때이다. 오직 우리 조선이 바다의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 모든 도덕이 넉넉하지 않았더니, 다행이 異次頓이 教를 위하여 몸을 바쳐 죽음으로 佛法이 이에 크게 빛나게 되었고, 큰 깨달은 자(당시 道僧을 일컬은 말이다)였던 義湘祖師가 청정한 마음법을 전해 받았으나 아직 見性하지 못하였던 까닭에 이에 한양의 남쪽 관악산 가운데에 자리 잡았으나 도량을 세우지는 못하였다. 나무 아래에 거하고 길에서 자는 것은 이는 출가인의 본디 모습이니, 고봉 바위동굴에 거하여 定禪하니 곧 지금의 義湘始이다.(절의 서북간으로부터 5백m이다) 풀을 엮어 이부자리를 대신하였으니 육신의 고행이 장관이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배를 채웠으니 황홀하기가 觀音菩薩의 甘露水와 같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은연 중에 釋迦의 明星과 達摩의 朝天이 일륜하여 도를 이루니 그 때 조사의 마음은 거울이 달을 비추는 것 같고 性智는 法輪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크게 깨달은 곳을 어찌 등한히 하여 버릴 수 있겠는가. 이듬해에 바람을 어깨에 메고 사방을 두루 돌아 다니면서 널리 선남자와 선여인의 시주를 구하였으니, 금전을 비둘기와 같이 모아서 비로서 성전을 이 곳에 지었으니 비록 터전은 좁으나 太極圖形에 구름 가운데 仙人이 있는 형세이다. 수백칸의 기와집을 이루어 이름하여 佛成이라 하였으니 見性曰成佛이라 하는 까닭에 조사께서도 이곳에서 見性하였으니 佛成이라 한 것이다. 글자의 아래위를 서로 바꾼 것은 은미하고 감작스러운 뜻을 담은 것이다. 그 후 조사의 삼형제 가운데 위는 元曉요 가운데는 尹弼이요 막내는 義湘이니 지금의 三幕도 이 삼형제가 지은 것이다. 삼형제가 도를 닦고 성품을 길러서 빛나기가 삼십리에 이르렀으니 원근의 法友가 바람을 메고 서로 좃으니 거하는 승려가 4~500에 달했다. 그 때 과천의 한 읍이 福錢을 내어서 종을 주성하였으니 소리가 십리까지 들렸다. 그 후 楊州 興國寺에서 빼앗아 가니 시주 80여 명이 마음을 합하여 찾아 왔고, 불이 나서 당시에 형체없이 완전히 타버렸으니 그 때 조사의 법력과 불법의 성행이 이와 같이 있지 않았다. 아! 운세의 성함과 쇠함이 있고 사람에게 생사가 있으니 이치의 당연함이라 조사가 떠난 이후로 이 절의 형편이 제모양을 갖추지 못하였도다. 날이 가고 달도 깊어져 바람에 깎이고 비에 씻기었으니 이와 같이 거대하게 이루어진 사찰도 한번 무너짐을 면하지 못하였더니, 다행히 하늘의 운수가 마침 맞았고 땅의 운세가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신이 그 잠깐을 쓰셨다. 그러므로 覺圓大師가 옛날의 업을 다시금 이어서 기와를 수리하고 새로 엮고 기울어진 기둥을 새로 세워 이 절을 새로이 하였으니 도량이 다시금 이루어졌다. 승려 수백이 경을 독송하고 도를 연마하였으니 각원의 법력이 마침내 큰 도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절의 서북간 100m 부근의 석벽 사이에 각원의 사리 부도가 아직 옛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 절은 본시 羅漢道場이므로 신통하고 묘한 자취가 종종 사이에 있으니, 그 후 淸虛大師 당시에 마침 冬至 上祀날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팔죽을 쑤기 위하여 불을 때려고 화로를 찾아본 즉 재는 식었고 불은 꺼진 지 오래였다. 대중이 두려워하며 당황하는 것이 끝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재를 치우다가 한 덩어리의 불씨를 발견하고 기뻐하였으니 대중이 모두 신통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써 죽을 끊어 공양을 올린 후 얼마되지 않아 동리 시주인 吳氏가 눈을 무릅쓰고 산 위에 올라와서 대중이 그 까닭을 물은 즉 말하기를 이 절의 상제인 소동이 우리집에 불을 구하러 왔기에 우선 죽 1그릇으로 몸을 덥히고 후에 불을 가지고 위로 돌려 보낸 후에 깊이 생각해보니 이와 같이 몹시 추울 때에 작은 어린아이가 어찌 능히 절에 돌아갈수 있을까 하여 즉시 뒤를 쫓아 온 것이라 하였다. 대중이 서로 얼굴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한 사람도 불을 구하러 간 적이 없었다 하고 법당에 들어가서 불상을 살펴보니 곧 羅漢佛의 입주변에 팔죽이 묻어 있었다. 당시 불상은 지금 나한전의 玉佛이다. 그 후 수 년에 불행히 화재가 일어나 이 절이 전부 불타니 하나의 기둥도 완전한 것이 없었다. 淸虛大師가 힘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이 절을 다시 이루었으니 때인즉 明나라 萬曆 18年(1591, 선조 25)이다. 그때의 연대 표석이 지금도 축대석 가운데에 있다. 이 때 이 절의 전체는 전에 비하여 4분지 1도 갖추지 못하였으니 근근히 수 칸의 기와집으로 비바람으로부터 불상을 숨길 수 있었으니 신이한 자취의 보물은 희미하여 언기가 어려웠다. 그 때 인천에 사는 金奉鉉의 祖父가 본래 배를 타는 것으로 생업을 하였는데, 하루는 풍랑을 만나서 성난 파도는 하늘에 닿고 끝이 없는 바다 가운데에서 수 일간 고초를 겪다가 표류하여 하나의 작은 섬에 도착하였으니, 人家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선원이 사망으로 음식을 구하였더니 다행히 수칸의 집에 세 명의 노승이 단정히 앉아서 결가부좌하고 선정에 들은 지 오래였다. 선원이 살기를 청한 즉 한 스님이 미소를 띠고 묻기를 어떤 사람이 살기를 청하는가 하였다. 선원이 애처로운 소리로 조난 당했던 일을 모두 말하니 곧 그 스님이 자못 자비한 얼굴로 알려주기를 우리들은 인간의 음료를 먹지 않은 지 오래라 이곳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다 하고 잠시 기다리라 하였다. 밤 3그릇을 가져다 주니 세 사람이 배부르게 먹어 죽기를 면하고 스님을 향하여 감사한 즉 노승은 다만 미소만 띠고 있었다. 세 사람이 다시금 살길을 청하니 곧 노승이 말하기를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 부적 두 장을 배의 머리와 꼬리에 부치며 말하기를 이 배의 가고 오는 것을 스스로 그 뜻대로 하면 곧 자연스럽게 너희의 집에 다다를 것이요 이 그릇의 나온 곳은 너희 집에서 바로 불이 보이는 절이라 하였다. 세 사람이 절하여 이별하고 배에 오른즉 배가 저절로 물을 가로 질러 어언간에 인천에 도달하여 머물렀다. 세 사람이 기뻐하며 육지에 내려서 배를 기둥에 묶고 수보를 걸은 후에 뒤를 돌아보니 곧 하나의 거대한 동물이 배의 밑으로부터 나와 멀리 가버렸다. 그 후 김봉현의 조부가 널리 그릇의 있던 곳을 찾으니 곧 불성사이다. 그 때 세 개의 그릇은 은으로써 만들었으니 하나는 연주대에서 가지고 갔고, 두 개는 화재 가운데 불타 없어졌다. 이 불은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明治 19년에 있었으니 光武 9년(1886)이다. 가을에 우연히 화재가 사

람이 없는 가운데 일어났으니 한 노스님이 어찌 불을 끌 수 있었겠는가. 불행히 노스님은 화재 가운데 죽고 앞에 적은 이적 가운데 玉佛은 바위가운데에 나와 앉아 있었고 나머지 물건들은 하나도 가이 남은 것이 없었다. 그 후 다음해에 吳章熙大師가 크게 정성 어린 마음을 일으켜 이 절을 다시금 세우는 일로 힘을 다하여, 선남자와 선여인으로부터 시주를 받으며 수 년간 무한한 고초를 받으면서 일을 이루어 쌓아서 마쳤다. 그런즉 이 절의 화재가 두 번째이다. 昭和 11년(1936) 1월 16일은 곧 지금의 주지 靑雲大師가 그 역할을 이은지 8년이요 의상으로부터는 지금에 이르기 28대째이다. 절의 액이 다하지 않아서 이 날의 子時에 기원을 모르는 불이 세 번째로 일어나 불태워 없애 버렸다. 아! 이 절의 운이 어찌 크고도 많은 것인가. 세 번동안 일어난 불에 가이 바라볼 것이 다시 없지만 역사는 오래요 기적은 많은 이 사찰같은 것을 어찌 등한히 하여 놓아 버리겠는가. 그러므로 청운화상이 생각을 일으켜 끼니를 잊고 동서로 모아서 근근히 그 이듬해인 소화 12년(1937) 8월에 준공하고, 11월 27일에 奉佛式을 시행하고 功을 告하는 것이다. 소화12년 음력 10월 21일 冠岳山人이 삼가 쓴다.



사진 1. 佛性寺 全景 1



사진 2. 佛性寺 全景 2



사진 3. 覺圓禪師磨崖浮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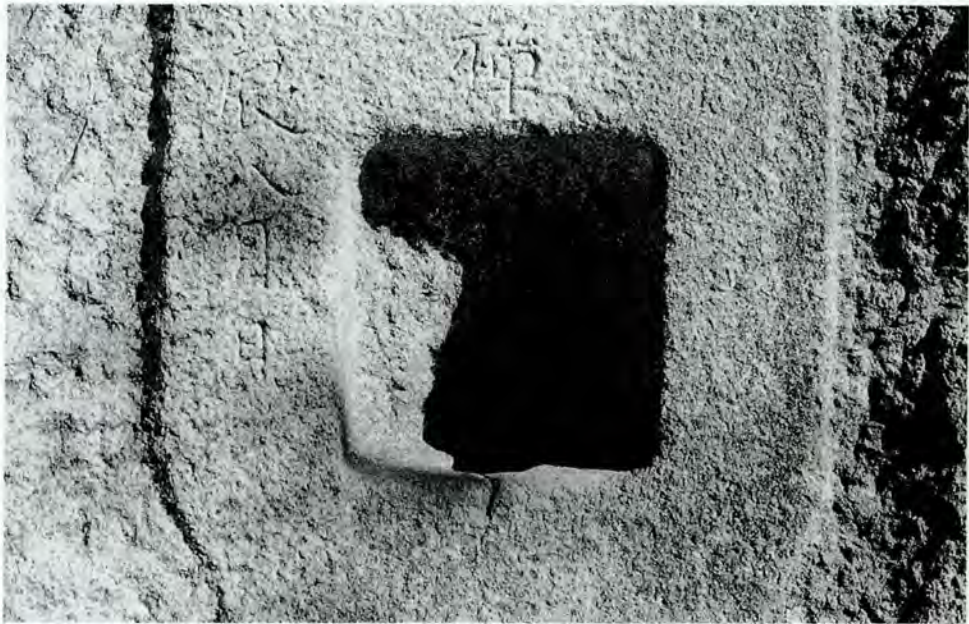


사진 4. 覺圓禪師磨崖浮屠 舍利孔



사진 5. 石築 1



사진 6. 石築 2



사진 7. 彌勒佛



사진 8. 萬曆十八年 刻字石



사진 9. 七星閣 標石



사진 10. 石漕



사진 11. 五層石塔



사진 12. 山神閣



사진 13. 大雄殿



사진 14. 大雄殿 內 塑造如來坐像(正面)



사진 15. 大雄殿 內 塑造如來坐像 相好



사진 16. 大雄殿 內 塑造如來坐像 身部



사진 17. 大雄殿 內 塑造如來坐像(側面)



사진 18. 大雄殿 內 塑造如來坐像(後面)



사진 19. 大雄殿 內 塑造如來坐像 下部 및 伏藏孔

5. 半月庵(사진 1·2)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1번지

주 지 : 안수인(42세)

1) 沿革

삼막사로부터 삼성산중계소로 가는 등산로를 따라 약 100m 정도 오른곳에 위치하고 있다. 태고종 사찰로 문헌에는 소개된 바 없지만, 사찰측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려말에 懶翁和尚이 一幕寺를 중창하려고 먼저 지은 절이 반월암이라고 한다. 이후의 반월암에 관한 사력은 알 수 없지만, 사찰의 전면에 남아 있는 석축과 寺內에 있는 조선후기의 조성으로 추정되는 2기의 석조부도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법등을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의 寺歷은 사찰내에 건립된 金日雷功德碑와 追慕碑를 통해 볼 때 1939년 5월 20일에 그간 폐허화된 반월암을 金日雷 스님이 중창한 이래, 그의 딸이었던 朴若童스님이 유지를 이어 법등을 잇고, 현재의 주지 안수인스님에 이르고 있다. 주지 안수인스님은 반월암을 중창하기 위해 「옴마니반메흠」이라 새긴 석주를 통해 시주를 받고 있는데, 현재 사찰 입구에 약 170개 정도가 세워져 있다.

사찰의 명칭은 주변의 환경이 나무와 숲이 우거져 낮 12시에 해를 보고, 밤 12시에야 달을 보는데, 각기 반씩만 볼 수 있어 반월암이라 했다고 한다.

2) 遺蹟과 遺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말에 나옹화상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하는 반월암에는 여러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石築(사진 3·4)

반월암의 요사채 전면에 남아있다. 비록 전체구간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과거의 모습은 복원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화장실 부근에 남아 있는 석축은 길이 12.8m, 높이 2m의 규모인데, 19cm×27cm - 105cm×42cm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그리고 요사채가 끝나는 부분에 남아있는 석축은 길이 1.5m, 높이 1.8m의 규모인데, 비교적 커다란 석재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현존하는 이들 석축은 사용된 석재와 축조방법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들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반월암은 길이 31.5m, 높이 2m정도의 석축을 쌓아 대지를 구축한 후 건립한 사찰로 추정된다.

② 멧돌(사진 5)

사찰의 서쪽 출입구 놓여있다. 길이 157cm, 너비 115cm, 높이 50cm의 크기이다. 중앙에

는 지름 63cm 크기의 갈림대가 있는데, 이의 주변에 개설된 폭 9cm의 홈은 전면의 배출구와 연결되어 있다.

③ 藥師殿(사진 6)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낮은 기단위에 건립된 익공계 건물이다. 원형의 초석위에 팔각형의 석제기둥을 놓는데, 맞배지붕의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측면의 벽은 방형의 석재 사이에 강회를 채워 조성했다. 정면 3칸에는 모두 띠살문의 문짝을 달았고, 측면에는 쪽문을 두어 출입하고 있다. 내부에는 근년에 조성된 석가삼존불과 5점의 탱화가 보관되어 있다.

④ 山神閣(사진 7)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익공계 건물이다. 전면에는 4짝의 문을 달았고, 측면에는 쪽문을 두어 출입하고 있다. 측면의 벽은 방형의 석재 사이에 강회를 채워 조성했다. 맞배지붕의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내부에는 근년에 조성한 불상과 4점의 탱화를 봉안하고 있다.

⑤ 石造浮屠(사진 8)

대웅전의 북동쪽에 2기가 나란히 건립되어 있다. 이중 1기는 대좌와 탑신 및 옥개석을 구비하고 있다. 대좌는 장방형의 석재 상면에 높직한 각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탑신은 높이 80cm의 규모로 역사다리꼴의 형태인데, 전면에 白雲堂大禪師 密陽張氏 □□塔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부도의 주인공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팔각지붕형인데, 부도 전체의 높이는 150cm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밀양장씨는 출가한지 3일만에 비구니가 되었다고 한다.

다른 1기는 석종형부도로 낮은 장방형의 기단위에 건립되어 있다. 높이 103cm, 지름 56cm 크기의 탑신 전면에는 明惺堂大師之塔의 명문이 자경 6cm의 크기로 음각되어 있어 부도의 주인공을 알려주고 있다. 탑신의 정상에는 낮은 보주가 돌출되어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13cm이다.

⑥ 石槽(사진 9)

약사전 앞 석축 하단에 있다. 지름 66cm, 높이 49cm 크기의 圓形石槽이다. 내부에는 지름 40cm, 깊이 40cm 크기의 水槽가 개설되어 있다.

⑦ 藥師靈泉(사진 10·11)

반월암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던 샘이었지만, 주변에서 많은 양의 물을 떠가는 바람에 수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약 15년 전에 폐쇄했다고 한다. 현재는 시멘트와 석재로

2.5m×1.5m 규모의 면적에 담을 쌓아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샘의 상면에는 戊午年 四月에 세운 30명의 시주자 명단과 住持 朴若重이라 새긴 비문이 있다. 그리고 샘의 명칭을 알려주는 표석은 현재 담장의 뒷편에 방치되어 있다. 표석은 76cm×30cm×16cm의 규모로 상면에 자경 18cm 크기로 「藥師靈泉」이라 음각했다.

⑧ 刻字石(사진 12)

약사전 뒷편 암벽 상단에 있다. 장방형의 액내에 半月庵重建大施主「李應善」己未三月日이라 음각되어 있다. 주지 안수인 스님에 의하면 이응선은 한때 승려생활을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한 바 있고, 金一雷 주지와 함께 반월암을 중창했던 大施主者였다고 한다. 刻字한 시기는 己未三月의 명문으로 보아 근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⑨ 金一雷追慕碑 및 功德碑(사진 13·14)

藥師靈泉 주변에 건립되어 있다. 비좌·비신·이수를 구비한 비석으로 전체 높이는 193cm이다. 비신의 전면에는 故住持禪師彦陽金氏一雷追慕碑라 음각되어 있고, 측면에는 반월암의 약력이 새겨져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월암의 약력」

高麗末葉에 懶翁和尚께서 一幕寺를 重創하려고 먼저 이 절을 짓고 半月庵이라 하였습니다. (考證 佛教辭典에서) 其後 西紀一九三九年 五月」二十日 폐허된 半月庵을 故金一雷禪師께서 重創하시었고 西紀一九五」九年八月七日 他界하시고 女息朴若童스님께서 繼承하시어 복원하였습니다」

功德碑는 약사전 전면 석축 하단에 있는데, 비석의 형식과 비문의 내용은 추모비와 동일하다.

이밖에 요사채 2동과 약 6년전에 건립한 높이 435cm의 오층석탑 2기가 있다.

⑩ 磨崖浮屠(사진 15·16)

반월암에서 삼성산의 정상인 국수봉 방향으로 등산로를 따라 약 50여m 오른 지점에 있다. 부도는 북서향한 높이 4m, 너비 4m 규모의 암벽 상단에 부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얇은 감실을 파고 상단에는 7엽의 花紋形을, 하단에는 장방형의 사리공을 조성하고 있다. 회문의 하단에는 西影堂 大禪師」秋氏□ □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사리공은 24cm×28cm의 크기로, 깊이는 17cm인데 안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부도는 마애부도라는 특이한 형식과 함께 명문으로 보아 西影堂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밖에서 던진 돌이 감실내로 들어가면 아들을 낳던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 때문에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계속 잔돌을 감실내로 던지고 있다.



사진 1. 半月庵 全景 1



사진 2. 半月庵 全景 2



사진 3. 石築 1



사진 4. 石築 2



사진 5. 멧돌



사진 6. 藥師殿



사진 7. 山神閣



사진 8. 石造浮屠



사진 9. 石漕



사진 10. 藥師靈泉



사진 11. 藥師靈泉 刻字石



사진 12. 李應善 銘 刻字石



사진 13. 金一雷追慕碑



사진 14. 金一雷功德碑



사진 15. 西影堂磨崖浮屠 全景



사진 16. 西影堂磨崖浮屠 細部

6. 望月庵(사진 1)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 2번지

주 지 : 朴古庵(65세)

1) 沿革

삼성산중계소에서 안양으로 내려가는 등산로를 따라 약 400여m 내려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태고종사찰로 문헌에는 소개된 자료가 없다.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에 기록된 望日寺를 망월암으로 보기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月”자를 “日”자로 잘 못 볼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찰내에 현존하는 유물을 통하여 볼 때 망월암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寺內에 건립된 석탑의 고려시대의 所作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법당내에 봉안된 주존불이 후기의 작으로 추정됨을 보아 창건 이후 지속적으로 법등을 이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2) 遺蹟과 遺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창건된 망월암에는 석탑을 비롯한 여러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石築(사진 2·3)

사찰의 전면에 정남향으로 축조되어 있다. 전체 길이 32m, 높이 4.6m의 규모인데, 56cm×56cm - 270cm×45cm 크기의 자연석을 사용하여 난층쌓기 수법으로 축조하였다. 석재 사이의 벌어진 틈에는 쇠기돌을 사용하여 수평을 잡았다. 석축의 북쪽에는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계단석의 일부가 남아있다.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창건시의 유구로 추정된다.

② 山神閣(사진 4)

요사채의 뒷편 자연암반에 형성된 샘의 상면에 축대를 쌓은 후, 상면에 건립했다.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소형건물로, 맞배지붕의 좌·우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내부에는 산신탱화 1점이 봉안되어 있다.

③ 石漕(사진 5)

소형의 석조로 극락전 앞 석축의 아랫쪽에 놓여있다. 지름 72cm, 높이 32cm의 규모로, 내부에는 지름 40cm의 水槽가 개설되어 있다.

④ 極樂殿(사진 6)

길이 8.4m, 너비 8m, 높이 1.1m의 기단위에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건물이다. 잘 다듬은 장방형의 초석위에 8각의 석조기둥을 놓아 건립했다. 정면간에는 빗살의 창호가 달린 문짝을 달았고, 측면에 쪽문을 달아 출입하고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현재 한쪽 서까래가 무너져 내린 상태이고, 기와불사를 계획중에 있다. 극락전은 요사채 옆 화단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40년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고 한다. 주지스님에 의하면 10년에 걸쳐 현재의 극락전을 건립했다고 한다. 극락전 내부에는 닷집과 근년에 조성한 4점의 탱화 및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⑤ 極樂殿內 塑造如來坐像 (사진 7~10)

주지스님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불상이라고 하는데, 극락전의 본존불로 봉안되어 있다.

여래좌상은 진흙으로 조성하였는데, 삼각형의 낮은 대좌위에 봉안되어 있다. 螺髮의 頭頂에 작은 肉髻가 있고, 중앙에는 髻珠를 표현하였다. 머리의 뒷편은 素髮로 처리하였다. 相好는 네모진 형상인데, 양 옆으로 찢어진 눈매와 반개한 눈, 넘직한 코, 굳게 다문 입술의 주위에 어린 미소등이 근엄하고 엄숙한 느낌을 준다. 양 귀는 귓볼이 짧은데 비해 상면이 길게 조성되었고, 목은 가슴과 닿은 정도로 짧게 조성되어 마치 생략된 듯한 느낌을 준다. 法衣는 通緇으로 전체적으로 의문은 소략하게 처리하고 있다. 양 손은 배꼽 부근에서 모았는데, 옷소매에 가려 노출되지 않고 있다. 옷소매는 八字形을 그리며 무릎으로 흐르고 있다. 가슴에는 일자형의 균의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가부좌를 튼 양 무릎에도 八字形의 의문이 표현되어 있다. 대좌의 하면에는 5.2cm×4.8cm, 깊이 9.3cm의 복장공이 있는데, 내용물은 이미 도굴당했다. 도금으로 인해 금색이 찬연하다.

이 불상은 상호에 비해 머리의 표현이 크고, 코와 입의 비례가 상호와 맞지 않고, 신체에 비해 무릎이 과대하게 표현된 점 등으로 보아 보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부의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cm. 全高 : 34., 頭高 : 13.5, 頭幅 : 10, 肩幅 : 19, 胸幅 : 7, 膝幅 : 23, 膝高 : 5.6, 臺座 : 24×19×2.5)

⑥ 極樂殿 앞 三層石塔 (사진 11~15)

극락전의 앞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래는 사찰의 전면에 있는 느티나무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기단과 1층 탑신석 및 옥개석과, 2층옥개석까지만 남아 있는데, 본래는 상·하 2층기단을 구비한 삼층석탑으로 추정된다. 하층기단은 1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면에는 3구씩의 眼象이 조식되어 있다. 안상은 7엽의 팔호문내에 고사리문을 양각한 형태인데, 매우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다. 면석과 一石으로 조성된 갑석의 상면에는 角弧角形 3단의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상층기단 역시 1매의 석재로 구성되었는데, 각 면에는 양 隅柱가 정연

히 모각되었다. 각 면의 우주는 면석의 너비에 비해 좁게 조성되어 불안정한 감을 주고 있다. 상층기단 갑석은 1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면에는 낮은 각형 1단의 받침위에 팔호형의 副椽을 두었고, 상면에는 각형 3단의 탑신피임대를 조출하고 있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一石으로 조성되었는데, 탑신석에는 양 우주가 정연히 모각되었다. 탑신석의 우주도 상층기단의 그것과 같이 면석에 비해 좁게 표현되어 불안정한 감을 주고 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각형 3단의 옥개받침과 낙수홈이 표현되었고, 상면에는 각형 1단의 탑신피임대가 조출되어 있다. 낙수면의 경사가 짧고, 추너는 수평을 이루다가 轉角에 이르러 둔중한 返轉을 보이고 있다.

이 석탑은 비록 탑신의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전체적인 석재의 짜임과 조립된 수법 및 각부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의 전체 높이는 176cm이다.

⑦ 석제 기름틀 (사진 16)

장방형의 형태로 72cm×53cm×38cm의 크기인데, 내부에는 45cm×38cm, 깊이 14cm의 장방형 홈이 개설되어 있다. 편평한 내부 바닥에는 방사선형으로 음각선이 시문되었고, 한쪽 면으로는 지름 5cm의 구멍이 관통되어 있다. 기름짜던 틀이라고 한다.

망월암에는 이같은 유적외에 묘사체 1동이 있는데, 종무소와 승방 및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1. 望月庵 全景



사진 2. 石築 全景



사진 3. 石築 細部



사진 4. 山神閣



사진 5. 石漕



사진 6. 極樂殿



사진 7. 極樂殿內 塑造如來坐像(正面)



사진 8. 極樂殿內 塑造如來坐像(側面)



사진 9. 極樂殿內 塑造如來坐像(後面)



사진 10. 極樂殿內 塑造如來坐像 下部 및 伏藏孔



사진 11. 極樂殿 앞 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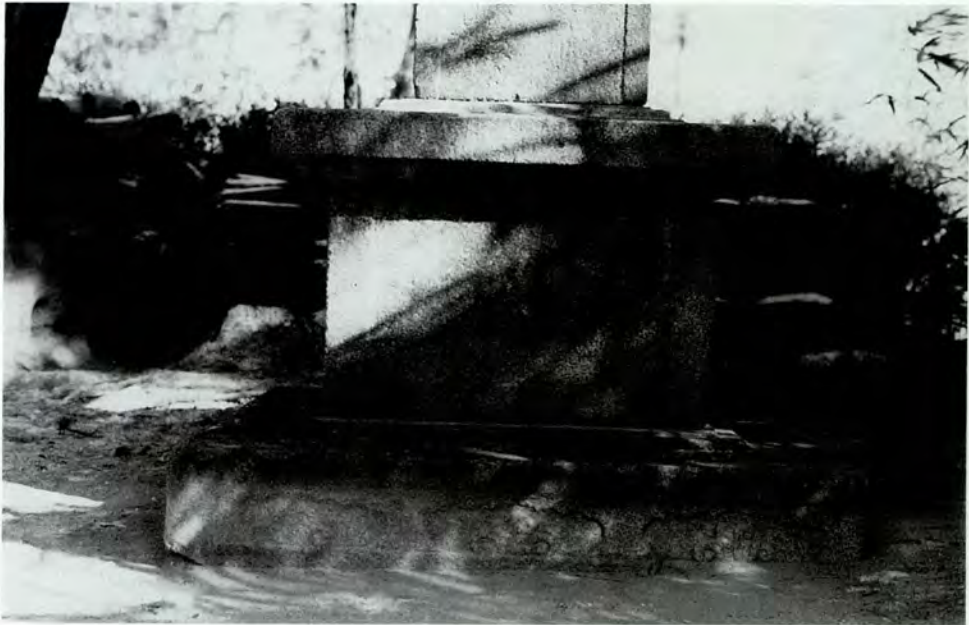


사진 12. 極樂殿 앞 三層石塔 基壇部



사진 13. 極樂殿 앞 三層石塔 下層基壇



사진 14. 極樂殿 앞 三層石塔 下層基壇 眼象



사진 15. 極樂殿 앞 三層石塔 塔身部



사진 16. 석제 기름틀

7. 望海庵(사진 1)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 산19번지

주 지 : 法斗(52세)

1) 沿革

조계종 제2교구의 사찰로 용주사의 말사로 위치는 대림공업전문대학에서 좌측에 나있는 관악산쪽으로 오르는 도로를 따라 약 1.8km 오른곳에 위치하고 있다.

사찰측에서 전하는 연혁은 사적비에 적혀있는 내용과 비슷한데, 그에 따르면 지금부터 1300여년전 신라 문무왕 5년(서기655)에 원효대사께서 창건하시고, 미륵부처님을 조성해 모시고 절이름을 望海庵이라 정하여 오던중, 조선조 태종 7년 어명에 의하여 중수하고 순조 3년 흥대비가 중건했으며 철종 14년 대연화상이 중수했었다. 그후 박호남스님이 법당 요사를 중수한 후 6·25동란으로 소실된 것을 유청봉스님이 용화전, 요사, 삼성각을 재건하였다. 1973년 서보경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여 용화전앞 대방을 현대식으로 신축하였다. 보경스님을 이어 1993년 11월 법두스님이 주지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전하는 내용은 원효대사의 창건으로 전하지만, 사찰내에는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과 유물은 한 점도 없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용화전에 보안된 석불입상이 망해암에서는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유물인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고려시대 초반에 조성된 사찰로 추정된다.

경내에는 서남향의 약 1000평의 대지에 근래에 건립한 금당 3채, 범종루 1채, 요사 3채 등이 건립되어있으며, 샘이 한곳 있으나 수량이 부족하여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용화전내에 화강암으로 조성된 미륵불과 약사여래불을 모시고 있다.

2) 遺蹟과 遺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해암에는 석조여래입상을 비롯한 여러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三聖閣(사진 2)

경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건물로 1996년에 건립되었다. 치석된 대리석재로 정면 9.7m 측면 7m 규모의 기단을 만들고 원형초석위에 원형기둥을 놓았다. 맞배지붕에 겹처마로 좌우에 방풍판을 달았다. 삼성각내에는 불상은 안치하지 않았으며 1996년에 제작된 獨聖幀畫와 七聖幀畫등 탕화 4점이 봉안되어 있다.

② 事蹟碑(사진 3)

삼성각 앞뜰 우측에 위치한다. 석주로 난간을 돌리고 총고 280cm의 비를 놓았다. 귀부와 이수를 갖춘 4면비이다. 비 앞면에는 앞서 기술한 연혁과 전설을 한글로 음각하였으며 측면과 뒷면에는 시주자의 이름과 1986년 5월에 건립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③ 龍華殿(사진 4)

경내 중앙에 있는 요사체의 후편에 위치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1952년에 건립하였으며 근래에 보수하였다. 낮은 기단위에 원형초석과 원형 목조기둥을 놓았다. 팔작지붕에 익공계 건물이다. 법당내에 불상은 화강암으로 조성한 石造如來立像과 藥師如來坐像이 봉안되어 있으며, 근년에 제작한 3점의 탕화와 1985년에 조성한 총고 84cm 폭 52cm의 동종이 있다.

④ 龍華殿 內 石造如來立像(사진 5~8)

둥근 갓을 쓰고 있는 석조여래입상으로 무릎의 상단아래는 마루 밑에 묻혀있다. 현재 높이는 240cm이며 머리와 갓은 흑칠을, 相好와 신체부에는 회칠을 하였다. 현 주지스님의 의하면 1997년 93세로 입적하신 청봉스님이 90년전에 이곳에 오셨을 때 현재 위치에 이미 채색이 되어있었다고 한다.

螺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표현되었는데, 상면에 놓인 보개의 하면 중앙에 맞물려 있다. 머리의 정면 중앙에는 髻珠가 표현되었다. 相好는 사각에 가까운데 양 볼이 살이 빠져 인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마에는 금속제로 백호를 표현하였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양 눈은 반개하여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으며, 코와 입은 두툼하게 표현하고 있다. 양 귀는 크게 표현되었는데, 특히 귓볼을 길게 느러뜨리고 있다.

法衣는 通緇으로 두껍게 처리하여 신체의 곡선미를 볼 수 없다. 가슴에는 굽은 U자형 의문이 복부에 이르기 까지 조밀하게 표현되었고, 왼손밑으로는 사선의 의문이 오른쪽 다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 측면의 왼쪽에는 좌측은 희미하여 옷주름이 보이지 않으나 우측은 어깨에서 오른팔 밑으로 3조의 옷주름이 흐르고 있다. 배면은 평면으로 다듬은 후 아무런 조식을 하지 않았다.

手印은 왼손은 가슴앞으로 올려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내장하였으며, 오른손은 오른쪽 다리로 내려 외장하였다. 신체의 하반부는 법당의 마루바닥 아래에 있어 현상파악이 불가능하다.

이 석조여래입상은 비교적 안정감있게 조성된 相好, 균형감각, 의문의 처리 등을 볼 때 고려시대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륵불로 불리우고 있고, 용화전내에 봉안되어 있음은 당시에 성행했던 신앙의 한 유형을 살핌수 있는 예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초반에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와 전라도 일원에서 조성되던 대형석불의 계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일례로 평가된다고 하겠다.

불상의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cm. 現存高 : 240, 보개 지름 : 136, 보개 두께 -20, 頭高 : 80, 頭幅 : 66cm, 肩幅 : 116, 胸幅 : 74cm, 신체부 두께 : 46)

⑤ 龍華殿 內 石造如來坐像(사진 9~11)

용화전 내 석불입상 좌측에 위치한다. 47cm×86cm×20cm의 장방형의 화강암 석재에 앞면을 다듬은 후 1~1.5cm 높이로 돋을새김하였다. 석불좌상의 전체높이는 75cm이며 무릎위 쪽으로 회를 입힌후 다시 채색한 모습이다.

머리는 심각형의 형상인데, 螺髮의 頭頂에는 작은 肉髻가 있고, 중앙에는 髻珠가 표현되었다. 상호는 사각형에 가까운데, 양 볼에는 살이 빠져 뾰족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옆으로 길게 찢어진 반개한 눈, 작은 코와 입 등은 상호와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양 귀는 짧게 표현하였는데, 타원형의 고리를 달아 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짧은 목에는 三道를 표현하였는데, 2조만 표시하였다.

法衣는 通肩으로 가슴부분에 「V」형의 옷주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심하게 생략되어 매우 소략하게 표현하였다. 手印은 오른손은 손가락을 모두 펴서 외장하여 오른편 가슴위에 대고 있는 형태이며, 왼손은 내장하여 복부 중앙에 올려놓았다. 양 발은 왼발이 오른발 위로 올라간 상태로 가부좌를 틀었는데, 왼발바닥을 위로 향하고 있다. 양 팔과 손은 신체에 비해 크게 조성되어 균형을 잃었고, 무릎 이하는 전체 신체에 비해 너무 작게 표현하여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불상을 표현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cm. 全高 : 75, 頭高 : 29, 頭幅 : 23, 肩幅 : 38, 胸幅 : 20, 膝高 : 17, 膝幅 : 46)

⑥ 觀音殿(사진 12)

용화전 좌측 암벽 앞에 위치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높이 81cm의 사다리꼴 석주위에 사각 목조기둥을 세웠으며 좌우에 방풍판을 설치했다. 내부에는 낮은 천장에 1996년에 조성한 관음보살 1구와 150cm×180cm 규모의 후불탱화가 있다.

⑦ 觀音殿 뒤 磨崖銘文(사진 13)

관음전 뒤 암벽에 5m×6m 규모의 다듬은 흔적이 있으며, 암벽 중앙 하단에 자경 110cm의 「佛」자와 자경 28cm의 「石斗」를 음각하였다. 현 주지스님에 말에 의하면 1997년 93세로 입적하신 전 주지 靑峰스님이 망해암에 7세때 오셨을때에도 이 마애명문이 있었다고 한다.

⑧ 梵鐘閣(사진 14)

경내 남동편 끝에 위치한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사모지붕집이다. 정면에 문을 달고 사면벽을 홍살로 처리하였으며 정면 좌우 기둥에 각1마리의 용을 배치했다. 종각내 범종과 함께 1979년에 건립되었다. 범종은 높이 165cm, 폭 58cm~94cm로, 당좌위에 세로로 전면 에 경기도 안양, 관악산 망해암, 주지 서보경(정도), 유청봉, 김봉경, 과 시주자 명단을 한글로 양각하였다.

망해암에는 이같은 유적이외에 1987년에 건립된 높이 4.4m의 오층석탑과 높이 2m의 석등과 요사채 3동이 있다. 요사채중 한동은 3층의 현대식 건물로 3층은 예불을 드릴 수 있는 장소로 2층은 승방으로 1층은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다. 다른 두채는 연결되어 있는데, 절의 일을 돕는 보살들의 거처와 식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 사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고 있다.

조선조 세종때 전라 경상 충청등 삼남지방에서 국가세금으로 받은 곡물을 가득실은 여러척의 배들이 서해바다를 지날 때 몹시 심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질 지경에 이르렀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놀란 선원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돌연 뱃머리에 한 스님이 나타나 그대들은 너무 당황하지말고 차분히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며 선원들을 진정시키고 풍랑속에서 무사히 인도하여 인천항에 도착했다. 부두에 도착한후 한 선원이 '대사님은 어느 절에 계십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관악산 망해암에 있노라' 하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선원들이 한강까지 무사히 다다른 뒤 생명의 은인이요 신통자재했던 그 스님을 찾아 관악산 망해암에올라가 보았으나 그런 스님은 계시지 않고 그 스님과 용모가 흡사한 모습의 부처님이 법당안에 모셔져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부처님의 크신 중생구원의 자비하신 신통력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임금께 상소하여 알리니, 이를 가상히 여긴 대왕은 매년 한섬씩의 공양미를 불전에 올리도록 하였는데 그후 구한말까지 계속되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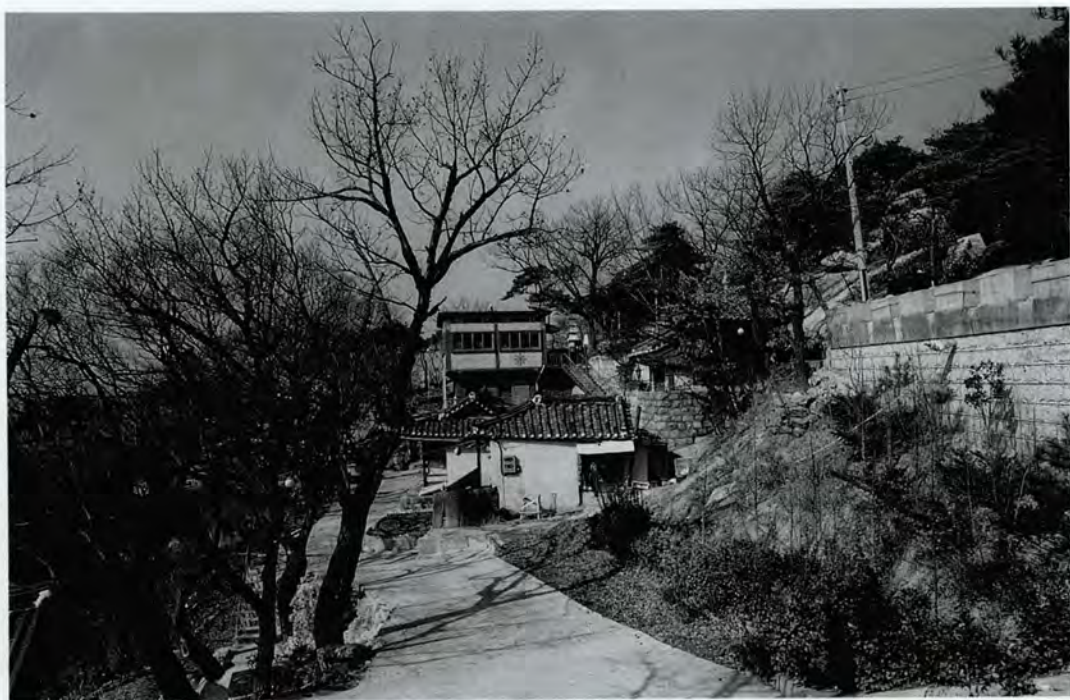


사진 1. 望海庵 全景



사진 2. 三聖閣



사진 3. 事蹟碑



사진 4. 龍華殿



사진 5. 龍華殿 內 石造如來立像(正面)



사진 6. 龍華殿 內 石造如來立像(側面)



사진 7. 龍華殿 內 石造如來立像 相好



사진 8. 龍華殿 內 石造如來立像 身體部



사진 9. 龍華殿 內 石造如來坐像



사진 10. 龍華殿 內 石造如來坐像 相好



사진 11. 龍華殿 內 石造如來坐像 身體部



사진 12. 觀音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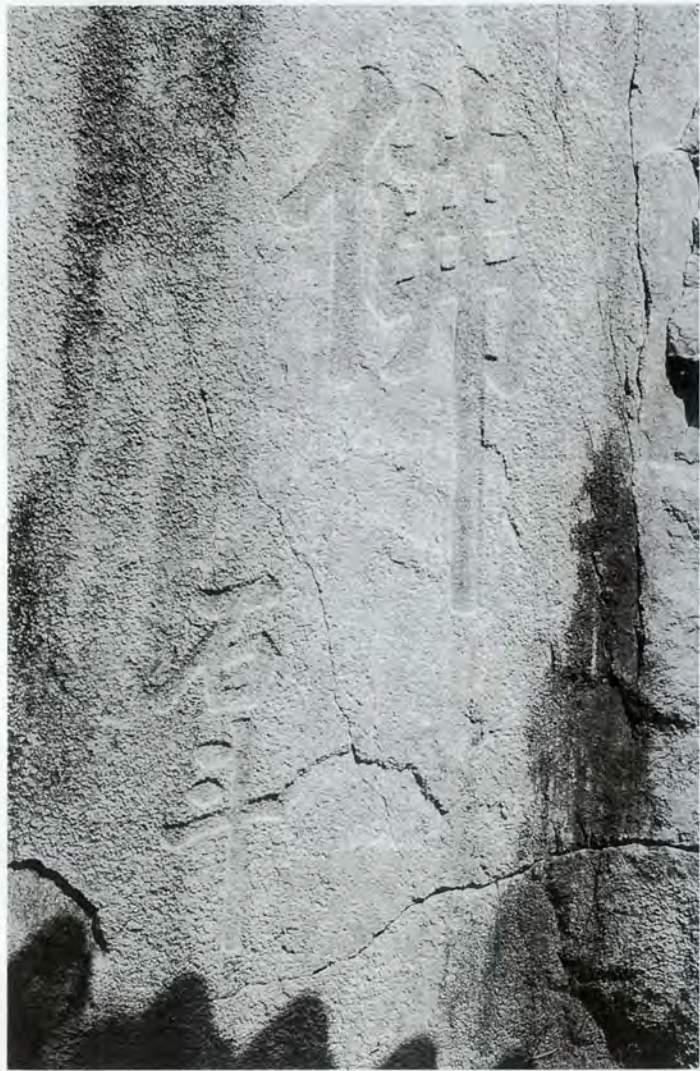


사진 13. 觀音殿 뒤 磨崖銘文



사진 14. 梵鐘閣

Ⅲ. 사 지

1. 중초사지 (사진 66~67)

사지는 1960년 건립된 유유산업 구내와 주변지역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당간지주의 명문에 의하여 중초사지임이 밝혀졌는데, 현재 정문 옆에 석탑과 당간지주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석탑은 현재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약 50~60m 떨어져있는 노동조합사무실 위치에 있었으나 공사 당시 현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社內 곳곳에서 수매의 장대석이 잔존하고 있어 이곳이 절터임을 확인시켜 주고있다.

1) 삼층석탑 (사진 1~6, 도면 1)

석탑은 수매의 지대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6매의 석재를 사용하여 기단하대석을 형성하고 있다. 하대석은 2단 괴임이 있는 별석을 놓아 중대면석을 받치고 있다. 기단 면석은 4매로 구성되었는데 양 우주만이 조식되었고, 현재 남면과 북면은 동·서쪽의 면석이 우주를 대신하고 있다. 갑석은 2매로 구성되었는데, 하에는 부연을 마련하였고, 상면에는 얇은 1단의 괴임을 조출하였다. 초층탑신은 1석으로 양 우주가 조식되어 있다. 2·3층 탑신은 소실되었다. 옥개석은 매우 두껍고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을 보이고 있는데, 옥개받침은 1·2층은 4단임에 비해 3층은 3단이 조출되어 통일성을 잃고 있다. 옥개석 상면에는 각형 2단의 탑신 받침이 마련되어 있다. 1층 탑신은 1층의 옥개석에 비하여 빈약하여 전체적으로 부조화를 보이고 있다.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었다. 현재의 높이는 365cm이다.

이 탑은 현재 노동조합사무실 위치에서 1960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당간지주 (사진 7~11, 도면 22~24)

당간지주는 현재 620cm×675cm 규모의 석축기단 위에 있는데, 동쪽의 지주가 기울어져 있어 원상을 해치고 있다. 동·서로 마주 서 있으며 장식적인 의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면에는 약간의 가공이 있어 고식을 보이고 있다.

즉, 양 지주의 상부는 안쪽 측면의 상단에서 바깥면으로 내려오면서 弧線을 그리며 깎여졌는데, 굴곡이 없이 둥글다.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121cm 지점까지는 6cm의 두께로 전면이 깎여졌다. 그러므로 이 모양을 양지주의 바깥에서 보면 정상부에서 길이로 넓적하게 額이 음각된 것 같고 앞·뒷면에서 보면 상단부가 유려하게 圓弧를 이루면서 상부만을 정교하게 치석한 것처럼 보인다.

당간을 고정시키는 杆은 상·중·하의 세곳에 杆構를 마련하여 장치하였다. 상부는 내면 상단에 장방의 공을 마련하여 간을 장치하였고, 중·하부에는 관통된 지름 15cm의 구멍을 마련하여 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현재 지주의 기단부는 장대석의 기반석을 지주사이와 양 지주의 바깥에 각기 한 장의 석재로 기대를 마련하고 있다. 竿臺는 지주 사이에 60cm×185cm×38cm 크기의 장방형의 석재로 중심부에 직경 35cm, 깊이 15cm의 둥근 구멍을 施孔하고 그 주위로 직경 50cm 크기의 둥근머를 돌려서 마련하였다. 또한, 간대석과 양 지주의 기반석 높이가 같은 것으로 보아 기단부에는 이 밖의 특수한 구조는 없었던 것 같다.

서쪽 지주의 외면에 45cm×146cm의 방형 額을 마련하고 刻字한 柱記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寺名이 中初寺址였음과 동시에 신라 제 42대 興德王 元年 8월 6일에 채석하여 이듬해인 827년 2월 30일에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명문은 자경은 6~7cm 크기의 橫書體 6행으로 陰刻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寶曆二年歲次丙午 八月朔六辛丑日 中初寺東方僧岳 一」

石分二得 同月廿八日 二徒作初 奄九月一日 此處至 丁未年」

二月卅日了成之 節州統 皇龍寺恒昌和上 上和上」

眞行法師 貞坐 義說法師 上坐 年嵩法師 史師二」

妙凡法師 則永法師 典都唯乃二 昌樂法師」

法智法師 徒上二 智生法師 眞方法師 作上 秀南法師」¹⁾

3) 주변 석조물 (사진 12~14)

이들 석조물들은 1960년대에 유유산업 서쪽밭에서 옮겨놓은 것으로 석탑 북쪽 벤치와 본관 앞 국기계양대옆, 본관 뒤 등나무 벤치 의자로 사용되고 있다.

석탑 북쪽 벤치와 본관 앞 국기계양대옆의 것은 124cm×128cm×30cm, 127cm×128cm×20cm로 크기에 있어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모두 상면에 장방형으로 1단 받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크기는 97cm×128cm×5cm로 같다. 이외에는 다른 치석 흔적은 없다.

본관 뒤 등나무 벤치에는 7매의 장방형 석재가 의자형태로 놓여있는데, 50cm×15cm×31cm, 50cm×255cm×29cm, 30cm×130cm×35cm 크기이다. 그중 1매는 상면에 1단의 턱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다.

4) 출토유물

유유산업 공장 신축 당시 출토된 유물로 회의실 내에 보관되어 있다. 안내문에 의하면 동빈 김상기선생의 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유물은 통일신라 말에서 조선시대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譯註『韓國古代金石文』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p. 285~287.에서 轉載

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중초사의 역사를 짐작케 한다. 현재 수막새 기와 14점, 암막새 기와 편 1점, 치미편 2점, 취두편 1점, 전 4점, 청동발 3점, 금동용두 1점을 비롯해 모두 43점이 보관되어 있다. 각 유물의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15)

수막새기와가 부착된 완형의 망새기와이다. 주연부는 고 1cm, 폭 1.3cm의 소문의 주연대를 형성하였다. 연화문은 복엽 8판의 연판으로 볼륨이 강하고, 판단이 뾰족하게 시문되었다. 복엽화문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판단이 날카로운 꽃잎이 피어 있다. 간지에는 간엽이 표현되어 있으며, 판단이 높직한 주연부쪽으로 따라 올라가는 형상이다. 자방은 지름 3.1cm 크기로 외곽에 폭 0.3cm의 대를 마련하고,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1+8과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망새기와로 뒤에는 길이 12cm의 수키와가 부착되어 있으며, 등에는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 경질기와이다.

(현상 : 지름 10.3cm, 두께 2.2cm)

(2)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16)

완형 수막새기와이다. 주연부는 높이 0.7cm, 폭 1.5cm로 형성한 후 연주문을 드문드문 시문했다. 연화문은 단엽 8판으로 주위에 선각문으로 판곽을 구성한 후 내부에 볼륨이 강한 연판을 조식하였다. 연판은 판단이 뾰족하고 간지에는 내부에 1조의 양각선이 있는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중앙에는 3cm 크기의 도드라진 휘안문으로 주위에 2조의 선각원문을 돌려 자방을 형성하였다. 드림새에는 L자형의 턱을 마련하고 수키와를 부착하였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기와이다.

(현상 : 지름 16.3cm, 두께 2.4cm)

(3)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17)

완형의 수막새기와이다. 주연부는 높이 0.7cm, 폭 0.8cm로 형성한 후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연화문은 1조의 선으로 판곽을 형성한 후 중심부에 1조의 선으로 양분한 복엽 8판을 조식하였다. 판단은 주연부와 밀착되어 있고, 간지에는 간엽이 보인다. 중앙에는 1조의 선으로 지름 3.8cm 크기의 자방을 형성하고 내부에 1+4+8과의 연자가 있다. 상면에는 L자형의 홈을 파고 수키와를 부착한 것으로 보이며 내외측에 점토로 보강한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기와이다.

(현상 : 11.3cm, 두께 2.5cm)

(4)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18)

전체의 윗정도 남아 있는데 내림새 부분이 파손되었다. 주연부는 1조의 선으로 폭 1cm의 주연대를 형성하고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연화문은 판내에 화문이 있고, 현재 7판만 남아 있다. 본래 8판으로 추정되며 간지에는 간엽이 있다. 자방은 지름 4.8cm 크기로 연판에 비해 약간 높게 형성되었다. 자방안에는 1+6과의 연자가 있다. 뒷면에 L자형의 홈을 만들어 부착 내외부에 점토로 보강한 흔적이 보이며, 내측에 대칼을 사용하여 접착이 용이하도록 한 흔적이 있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지름 15.3cm, 두께 2cm)

(5)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19)

완형의 수막새기와이다. 2조의 선으로 폭 1.8cm의 낮은 주연부를 형성하고 안에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연판부와 주연 사이에는 폭 0.5cm의 음각선으로 구획하였다. 연화문은 단엽 8판으로 연판이 부드러우나 판단이 날카롭다. 간지에는 상면이 삼각형의 화문이 있는 간엽이 있다. 자방은 지름 4.4cm 크기의 1조 선으로 구획하고 내부에 1+7과의 연자가 있다. 뒷면에 L자형의 홈을 마련하고, 드림새부분에는 사선의 홈을 내어 접착이 용이하게 하였다. 내면에는 점토로 보강한 흔적이 뚜렷하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지름 15.3cm, 두께 2.3cm)

(6)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0)

전체의 윗정도 남아 있다. 주연부는 고 1cm, 폭 0.5cm의 주연대를 형성하였는데 연주문은 보이지 않는다. 제작시 연주문을 시문하지 않았는지, 마멸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연화문은 단엽 8판으로 중앙에 음각으로 꽃술을 표현하였으며, 간지에는 간엽이 있다. 자방은 지름 2.6cm 크기로 높게 조식되었으며, 중앙이 훼손되었으며 현재 5과의 연자가 남아 있다. 드림새 부분에 밀집된 음각선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연부를 형성하고 있는 수키와를 상면에서 직접 부착한 것으로 생각된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현지름 9.7cm, 두께 2.3cm)

(7)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1)

전체의 윗정도 남아 있다. 주연부는 폭 1.5cm의 넓직한 주연대에 지름 0.6cm의 연주문이 드문드문 시문되어 있다. 연화문은 자방으로부터 하트형의 볼륨이 강한 단엽 7판으로 연판의 길이가 짧다. 연화문 사이에는 방사선 무늬가 시문되어 있다. 자방은 지름 4.5cm 크기로

내부에 방사선형의 꽃술이 시문되어 있다. 주연부를 형성하고 있는 수키와를 상면에서 부착한 것으로 내부에 점토를 보강한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연질기와이다.

(현상 : 지름 14.7cm, 두께 2.5cm)

(8)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2)

전체의 율정도 남아 있다. 주연부는 폭 1.4cm의 주연대에 지름 0.5cm의 연주문을 촘촘히 시문하였다. 연화문은 판내에 화문이 있는 단엽 8판으로 간지에 간엽이 있다. 자방은 지름 4.7cm 크기로 연판에 비해 약간 높게 마련되었으며, 자방내에는 1+6과의 연자가 있다. 배면에는 ㄷ자형의 홈을 내고 수키와를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지름 15.6cm, 두께 2.1cm)

(9)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3)

완형에 가까운 수막새기와로 드림새 부분이 약간 파손되었다. 주연부는 고 0.9cm, 폭 0.5cm의 주연대를 형성하고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연화문은 단엽 8판으로 판단이 뾰족하다. 연판사이에는 방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자방은 지름 3.7cm로 내부에 연자가 있다. 주연부를 형성하고 있는 수키와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흑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지름 11.6cm, 두께 2cm)

(10)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4)

수막새기와의 드림새 부분이 파손되었을뿐 거의 완형에 가깝다. 주연부는 폭 1.4~1.8cm로 소문의 주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판단과 주연대 사이에 폭 0.7cm의 음각문대를 형성하고 내부에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연화문은 단엽 8판으로 연판이 넓고 끝이 뾰족하다. 판내에는 2조의 꽃술을 시문하였다. 간지에는 간엽이 있다. 자방은 지름 3.8cm로 내부에 1+8과의 연자가 있다. 수키와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부착하였다. 배면에 점토를 보강한 흔적이 있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지름 17cm, 두께 3cm)

(11)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5)

수막새기와의 드림새 부분이 파손되었을뿐 거의 완형에 가깝다. 주연부는 고 1.3cm, 폭 1.5cm~2cm로 소문의 주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연화문은 복엽 9판으로 판단의 볼륨이 강하다. 연판의 크기와 모양은 일정하지 않다. 자방은 지름 4cm로 연판에 비하여 높직하며, 내부

에 1+7과의 연자가 있다. 수키와를 위에서 아래로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굵은 석립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기와이다.

(현상 : 현지름 15cm, 두께 2.6cm)

(12)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6)

수막새기와의 드림새 부분만 파손되었을뿐 거의 완형에 가깝다. 주연부는 굵은 1조의 선으로 구획한 후 폭 0.6cm의 주연대를 형성하고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자방은 지름 1.7cm 크기의 1조선문으로 구획하고 내부에 4과의 연자가 있다. 연화문은 자방 주위에 짧은 단엽 9판의 연판과 외부에 다시 단엽 18판의 연판을 2중으로 시문하였다. 외부의 연화문은 볼륨이 강하다. 수키와를 뒤에서 직접 접착하였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과이다.

(현상 : 지름 15.4cm, 두께 2.1cm)

(13) 휘안문수막새기와 (사진 27)

수막새기와의 내림새 부분이 조금 파손되었을뿐 거의 완형에 가깝다. 주연부는 굵은 1조의 용기문이 있는 폭 1.8cm의 주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에 지름 2.9cm의 휘안문이 있고, 주위에는 2조의 양각원문을 돌렸다. 주연부와 내구 사이에 1조의 양각원문으로 주연부와 분할하였다. 수키와는 뒤에서 직접 붙이기로 접착하였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지름 14.8cm, 두께 2.5cm)

(14) 휘안문수막새기와 (사진 28)

13번 기와와 동일 양식으로 전체의 1/2정도 남아 있다. 주연부는 굵은 1조의 용기문이 있는 폭 1.3cm의 주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에 3cm의 휘안문이 있고, 주위에는 2조의 양각원문을 돌렸다. 주연부와 내구 사이에 1조의 양각원문으로 주연부와 분할하였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13.2cm×8.5cm, 두께 2.4cm)

(15) 암막새편 (사진 29)

암막새편으로 막새의 우측 내림새 일부가 남아 있다. 주연부는 폭 1.2cm의 주연대를 형성하고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초화문을 시문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회흑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5.5cm×4.5cm, 두께 1.3cm)

(16) 사선문 수키와 (사진 30)

수키와편으로 거의 완형이다. 등에는 폭 5cm, 길이 7cm의 시문구를 사용하여 사선문을 촘촘히 시문하였다. 배면에는 포흔과 매듭을 이었던 흔적이 보이고, 넓은 면에 1단의 턱을 두어 수키와와 부착한 흔적이 보인다. 양 측면에는 한번에 그은 와도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흑색의 연질기와이다.

(현상 : 38cm×16.5(12.5)cm, 두께 3cm)

(17) 무문 수키와 (사진 31)

수키와 완형이다. 무문으로 등에는 물슬질 흔적이 남아 있고, 기와의 끝에 길이 5cm 크기의 언강이 부착되어 있다. 배면에는 세로방향의 찰과선이 있는 포흔이 있고, 측면에는 외반된 와도흔이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흑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42cm×17.5(12.5)cm, 두께 3cm)

(18) 복합문 암키와 (사진 32)

암키와편으로 등에는 가로 및 세로방향의 직선문이 복합시문되어 있다. 측면에는 두께 ㉠정도 외반된 와도흔이 있다. 태토는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기과이다.

(형상 : 18cm×16cm, 두께 2.6cm)

(19) 복합문 암키와 (사진 33)

암키와편으로 등에는 가로 및 세로방향의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문양은 폭 2.5cm 크기의 시문구를 사용하여 새겼다. 배면에는 포흔이 있고, 측면에는 두께 ㉠정도 외반된 와도흔이 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흑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11cm×9cm, 두께 2.3cm)

(20) 무문 암키와 (사진 34)

무문 암키와편으로 등에는 물슬질 흔적이 보인다. 배면에는 포흔이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흑색의 연질기과이다.

(현상 : 15.5cm×10cm, 두께 2.8cm)

(21) 취두편 (사진 35)

취두의 눈부분으로 추정된다. 눈동자는 빠져 나갔으나, 눈썹이 상면을 향하여 굵은 음각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흑색의 연질취두편이다.

(현상 : 18.7cm × 16cm)

(22) 치미편 (사진 36)

치미편으로 휘안문의 일부가 남아 있다. 주연부는 폭 1.4cm의 주연대를 형성하고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2조의 양각 선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굵은 선문은 점차 상단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단부의 선문의 형태로 보아 치미의 눈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연질치미이다.

(현상 : 13.5cm × 9.5cm, 두께 2.3cm)

(23) 치미편 (사진 37)

치미편으로 한쪽 측면 갈퀴의 표현이 남아 있다. 치미에는 사자형으로 폭 5cm, 고 1.5cm의 주연부를 형성하고, 주연대에 지름 3cm의 침탑형의 연주문을 조식하였다. 내부에는 2조의 양각선문으로 구획하여 선문 외곽에 단엽화문과 내면에는 화문으로 보이는 문양을 시문하였다.

태토는 고운 모래가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치미이다.

(현상 : 36.2cm × 26.5cm, 두께 7cm)

(24) 오각형전 (사진 38)

장방형 벽돌과 삼각형 벽돌을 붙여 놓은 형태이다. 상단의 뾰족한 곳에 문양이 시문되어 있는데, 중앙의 장방형 문을 중심으로 화살표 문양이 주위에 시문되어 있다. 하단에는 불규칙한 음각선문이 가로방향과 사선방향으로 엇갈리게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 벽돌이다.

(현상 : 25cm × 14.3cm, 두께 5cm)

(25) 전 (사진 39)

전편으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선이 굵고 볼륨이 강한 초화문을 시문하였다. 같이 출토된 오각형 전을 보아 본래 오각형전이 아닌가 추정된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연질벽돌이다.

(현상 : 15.5cm × 13cm, 두께 4.7cm)

(26) 장방형전 (사진 40)

장방형의 벽돌이다. 벽돌은 상면에 사선방향으로 9조의 음각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연질벽돌이다.

(현상 : 29.7cm × 14.9cm, 두께 4.5cm)

(27) 사다리꼴전 (사진 41)

정삼각형에서 높정도를 잘라내어 사다리꼴 형태로 만든 전이다. 무문으로 각면을 매끄럽게 잘 정선하였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벽돌이다.

(현상 : 29.5(11)cm × 10cm, 두께 3.3cm)

(28) 甗 (사진 42)

전체의 윗정도 남아 있다. 기벽은 평저의 굽으로부터 사선방향으로 올라가다 중앙부에서 다시 완만하게 올라가 구연부에 이르고 있다. 구연부는 상면을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기벽에는 4조의 음각 동심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외벽에는 회전 물손질의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흑색의 경질토기이다.

(현상 : 높이 5cm, 구연 지름 12cm)

(29) 甗 (사진 43)

소형 완으로 전체의 윗정도 남아 있다. 기벽은 평저의 굽으로부터 사선방향으로 올라와 구연부에 이르고 있다. 구연부는 넓게 외반되어 있다. 내·외벽에는 회전 물손질의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연질토기이다.

(현상 : 높이 3.2cm, 추정 구연 지름 9.3cm)

(30) 鉢 (사진 44)

전체의 윗정도 남아 있다. 구연부와 동체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원형을 짐작할 수 있다. 하부평저이며 기벽에 비해 굽이 두껍게 형성되었다. 몸체는 사선방향으로 올라가 구연부에 이르고 있다. 구연부는 살짝 외반시켜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기벽의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흑색의 경질토기이다.

(현상 : 높이 6.5cm, 구연 지름 11cm, 저부 지름 7cm)

(31) 鉢 (사진 45)

전체의 윗정도 남아 있다. 기벽은 평저의 하부로부터 사선방향으로 올라와 기벽은 구연부에 이르고 있다. 구연 하단에 1조의 음각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구연부의 한쪽 모퉁이를 죽여 주구를 형성하였다.

태토는 굽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흑색의 연질토기이다.

(현상 : 13cm×9.5cm, 높이 4.5cm)

(32) 백자 향로편 (사진 46·47)

향로 편으로 굽부분이 파손되었다. 동체부는 화로형으로 넓게 외반되었고, 구연부 하단에는 지름 1.3cm 크기의 원형 구멍이 관통되어 있다. 동체의 하단에는 단엽 12판의 양연이 시문되어 있다. 저부에는 지름 5cm 크기의 구멍이 관통되어 있다. 태토는 잡물이 섞여 있으나 잘 정제되었다. 기벽과 저부의 일부에는 유약이 남아 있다.

(현상 : 높이 6.2cm, 추정 구연 지름 12cm)

(33) 백자대접 (사진 48)

기형의 약 3/4정도 남아있다. 좁은 원형의 굽으로부터 동체는 사선방향으로 올라가 구연부에 이르고 있다. 내저에 커다란 원각이 있고, 기벽의 내부에는 2조의 음각 동심원문이 시문되었다. 유약의 시유가 고르지 못하고, 내부에는 회전 물손질 흔적이 있다.

(현상 : 굽 지름 5cm, 고 7.2cm, 추정 구연 지름 14.8cm)

(34) 백자편 (사진 49)

백자편으로 기형은 추정이 불가능하다. 하면에 지름 1.5cm 크기의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상 : 4.5cm×6.3cm×1.1cm)

(35) 백자접시 (사진 50)

백자접시로 구연과 기벽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뿐 완형에 가깝다. 평저의 하부로부터 사선방향으로 올라온 기벽은 구연부에 이르러 수평되게 외반되었다. 유약의 시유는 고르지 못하고, 굽에는 모래를 깔고 구웠던 흔적이 있다.

(현상 : 높이 2cm, 굽 지름 4.3cm, 구연 지름 8.6cm)

(36) 분청사기대접편 (사진 51)

백자편으로 내부에 백토로 메운 4조의 동심원문이 있고, 중앙에 화문을 배치한후 상단에 4조의 동심원문을 돌렸다.

(현상 : 7.8cm×6.8cm×0.4cm)

(37) 숫돌 (사진 52)

장방형의 숫돌이다. 장방형의 상면에 갈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현상 : 13cm×11.5cm×1.7cm)

(38) 금동용두 (사진 53·54)

금동의 용두로 위와 아랫 입술을 상하로 벌리고, 중앙에 여의주 물고 있으며, 여의주 좌우로 이빨, 코, 눈 등이 표현되었다. 턱 밑에는 갈퀴가 표현되었으며, 머리의 정상에는 뿔을 조식하였다. 곳곳에 금동 흔적이 남아 있는데, 하면은 원통형으로 하면상단에 지름 0.9cm의 구멍이 있고 이로부터 내부가 관통되어 있다. (현상 : 7cm×3.4cm)

(39) 청동그릇 (사진 55)

청동제 그릇으로 하면에 원형의 굽이 부착되어 있으나, 구연부 일체와 동체는 부식이 심하여 기형을 파악할 수 없다.

(현상 : 굽 지름 12cm, 잔존 높이 4.3cm, 잔존 지름 23cm)

(40) 청동발 (사진 56)

청동제 발이다. 하부에 원형의 굽이 부착되어 있고, 굽으로부터 사선방향으로 올라온 기벽은 구연에 이르러 외반되었다.

(현상 : 높이 7.7cm, 구연 지름 23.2, 굽 지름 11.3cm)

(41) 청동발 (사진 57)

청동제 발이며, 부식이 심하다. 평저의 하부로부터 수직에 가깝게 올라온 기벽은 구연에 이르고 있다. 구연은 안으로 돌출된 형태이다.

(현상 : 구연 지름 23.1cm, 높이 9.5cm)

(42) 청동발 (사진 58)

41번과 같은 기형이다. 청동제의 발이며, 부식이 심하다. 평저의 하부로부터 수직에 가깝게 올라온 기벽은 구연에 이르고 있다. 구연은 안으로 돌출된 형태이다.

(현상 : 구연 지름 24.3cm, 높이 9.9cm)

(43) 사자다리 (사진 59)

사자의 다리로서 하나만이 남아 있으나 부식이 심하다. 다리는 허벅지로부터 원형을 그리며 무릎과 발부분이 남아 있으나 3조각으로 3등분 되어 있다. 발바닥은 비교적 편평하다.

(현상 : 다리 길이 24cm, 발 폭 4.4cm)

5) 석수동마애종 (사진 60~63, 도면 5)

마애종은 안양유원지 주차장 뒤 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92호로 지정되어있는데, 풍우에 의한 마멸이 심한 편이다. 마애종은 폭 535cm, 높이 505cm 크기의 바위

에 僧像이 종을 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마애종으로는 유일한 것으로 종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마애종의 주향은 북동 15도이고, 종각은 장방형으로 좌·우의 기둥과 상부의 보를 양각하였다. 보 위에는 화반 3구가 조식되어 있고, 左柱에는 僧像을 덧붙여 조각하였다. 승상고 102cm, 두고 19cm, 두폭 20cm, 견폭 21cm이다. 보에서 쇠사슬을 이용하여 龍鈕을 연결하여 매달은 것을 표현하였다. 상단에는 21cm×15cm 크기의 유곽이 2개소에 조각되어 있는데, 유곽 내에는 지름 5cm의 유두가 9개 표현되어 있다. 상대문양대가 乳廓의 테를 겸하고 있으며, 유곽과 유곽사이에 공간이 생략되었다. 당좌는 종신의 중간에서 조금아래 표현되어 있는데, 복엽 12판의 연화문으로 조각하였다. 하대의 문양은 식별이 불가능하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삼층석탑과 함께 신라 흥덕왕대에 조각된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종체와 각부의 양식수법으로 보아 조성년대는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현상 : 전체높이 244cm, 전폭 216cm, 종높이 123cm, 하대폭 84cm이다.)

2. 장석광사지 (사진 64~71, 도면 6·7)

이 사지는 안양시 석수 1동 236-4~7번지 장석광업소 내에 위치하고 있다. 장석광은 자기류의 원료가 되는 장석을 채취하는 곳으로 일제때부터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어 寺址는 계속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주민 박대천씨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우체국장이 이곳에서 장석을 채취하여 배에 실어갔으며, 옛 부터 신라시대 절터로 여승들이 그릇을 빚었던 곳이라 전해진다고 한다.

寺域은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장석광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상·하 2단의 석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곳은 사찰의 부속 건물지로 추정된다.

상단의 석축은 길이 10m27cm, 높이 174cm의 5단 9열로 6cm×119cm, 106cm×23cm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32cm×33cm, 21cm×11cm 크기의 썰기돌을 박아 막쌓기 수법으로 석축을 구축하였다. 석축 상단에는 19m×18m50cm의 넓은 평탄 대지가 마련되어 있을뿐 사지와 관련된 유구는 확인할 수 없다. 평탄 대지 북서쪽에는 폐광이 있고, 서쪽으로 구릉이 저있다.

하단의 석축은 길이 830cm, 높이 270cm로 6단 8열로 142cm×91cm, 71cm×61cm, 37cm×45cm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석축은 22cm×14cm, 24cm×9cm 크기의 썰기돌을 박아 막쌓기 수법으로 축조하였다. 상·하단의 석축 사이에는 15cm×15m 70cm의 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사지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고, 현재 예비군 참호가 남아 있다.

사역의 중심으로 추정되는 지점의 광산 입구위에는 장대석이 2단 노출되어 있다. 석축의 길이 482cm, 높이 78cm으로 1단은 178cm×34cm 크기이고, 2단은 241cm×43cm 크기로 매우 잘 치석되어 있다. 이 석축은 사지의 중심부와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역의 범위를 짐작

케 한다.

이 사지 앞에 위치한 까치골식당 주차장내에 초석 1점과 수 매의 장대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사지에서 옮겨온 것이라 한다.

초석은 76cm×131cm×36cm의 장방형석재로 문양은 없고, 상면에 주좌가 마련되어 있다. 주좌는 직경 46cm, 높이 16cm로 원형이며 양쪽으로 12cm×12cm×16cm, 9cm×10cm×5cm 크기의 홈이 마련되어 있어 본래는 이를 연결하는 심방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석은 133cm×42cm×38cm 크기로 치석한 흔적이 남아 있다. 조사과정에서 1점의 완형 수키와를 수습하였다.(사진 60) 기와의 등에는 사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물숯질로 인하여 문양은 선명하지 않다. 기와의 끝에는 1.4cm의 턱을 마련하고 길이 4cm의 언강이 부착되어 있다. 배면에는 고은 포흔이 있고, 언강이 있는 부분은 안으로 오무려 형성하였고, 반대쪽은 물숯질하여 매끄럽게 처리한 후 끝부분을 경사지게 마무리하였다. 측면에는 두께 ½정도 외반된 와도흔이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와이다. (크기 : 36.2cm×16cm, 두께 2cm)

3. 평화보육원 주변 사지 (사진 72~76)

유유산업에서 장식광업소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평화보육원이 있는 석수동 산 25번지 일대로 추정된다. 이 사지는 주방향이 남서 10도로 남향 사찰로 추정되는데, 평화보육원내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2동의 건물 아래 장대석의 기단이 남아 있고, 주변에 기와편이 산재하고 있다. 이들 건물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북쪽 건물의 기단 석축은 2단으로 164cm×31cm, 123cm×31cm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는데 12m50cm×6m30cm×39cm 규모이다. 남쪽 건물의 기단 석축은 149cm×20cm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여 1단으로 구축하였는데 11m28cm×4m71cm×19cm의 규모이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양평기와 1점을 수습하였다. (사진 65) 기와는 암키와편으로 등에는 연화문과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직선문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엇갈리게 시문되어 있다. 연화문은 현재 단엽 7편이 남아 있는데, 시계방향으로 돌아갔다. 연화문 주위에는 손으로 누른 흔적이 있다. 배면에는 포흔과 세로방향의 찰과선이 있고, 측면에는 두께 ½정도 외반된 와도흔이 있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 기와이다.

(크기 : 10cm×8.2cm, 두께 1.6cm)

4. 불당골 사지 (사진 77)

약수터에서 남으로 약 20~30m 내려오면 35m×36m 50cm의 평탄한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전역이 밭으로 경작지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기와편이 수습되고 있다. 또한, 경작지 주변

으로는 민묘들이 위치하고 있어, 寺域의 규모를 짐작할 수 없다. 현재의 지형으로 볼 때 주축선이 남동 20도 이므로 남향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지역은 불당이 있어 불당골이라고 구전되고 있다. 이는 약수터의 안내판에서도 살필 수 있다. 여기에 약수터에 대한 유래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불당은 구루물, 마장골, 안날미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구루물과 안날미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하여 불당마장골이라 부르며, 본 약수터는 옛날에 구루물, 마장골, 안날리 주민들이 일년에 2번(7월과 10월) 추수감사제를 지내던 개울물이었으나, 1984년 약수터 동호인에 의해 개발되었고, 불당 또는 청암 약수터라한다.



사진 1. 증초사지 석탑 및 당간지주



사진 2. 증초사지 추정 석탑지 (유유산업 노동조합사무실)



사진 3. 중초사지 3층 석탑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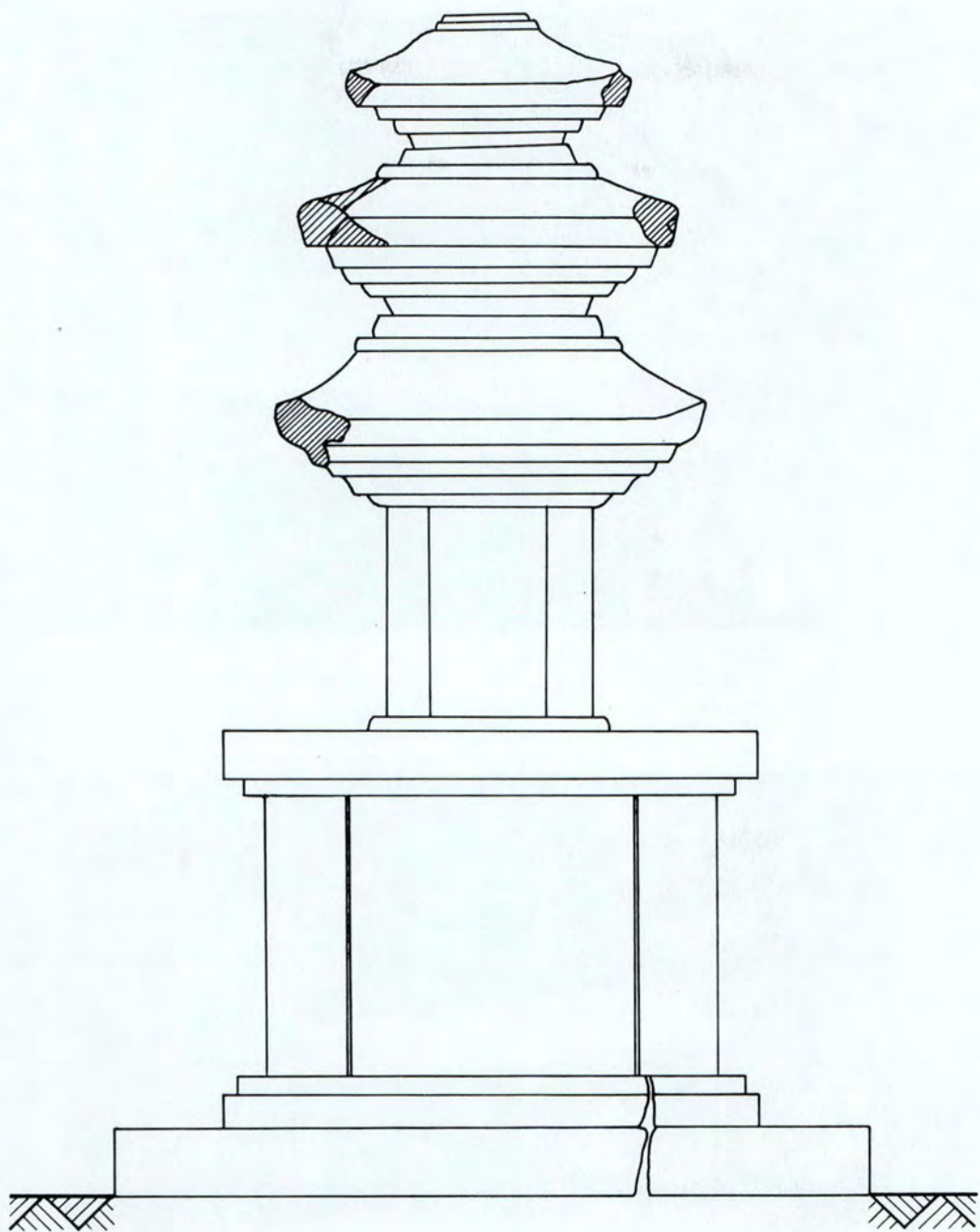
사진 4. 중초사지 3층 석탑 (측면)



사진 5. 중초사지 3층 석탑 탑신부



사진 6. 중초사지 3층 석탑 기단부



도면 1. 중초사지 삼층석탑 입면도



사진 7. 중초사지 당간지주 (정면)



사진 8. 중초사지 당간지주 (측면)



사진 9. 중초사지 당간지주 기단부



사진 10. 중초사지 당간지주 당좌



사진 11.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



사진 12. 유유산업 석탑 북쪽 석재



사진 13. 유유산업 본관 국기계양대 옆 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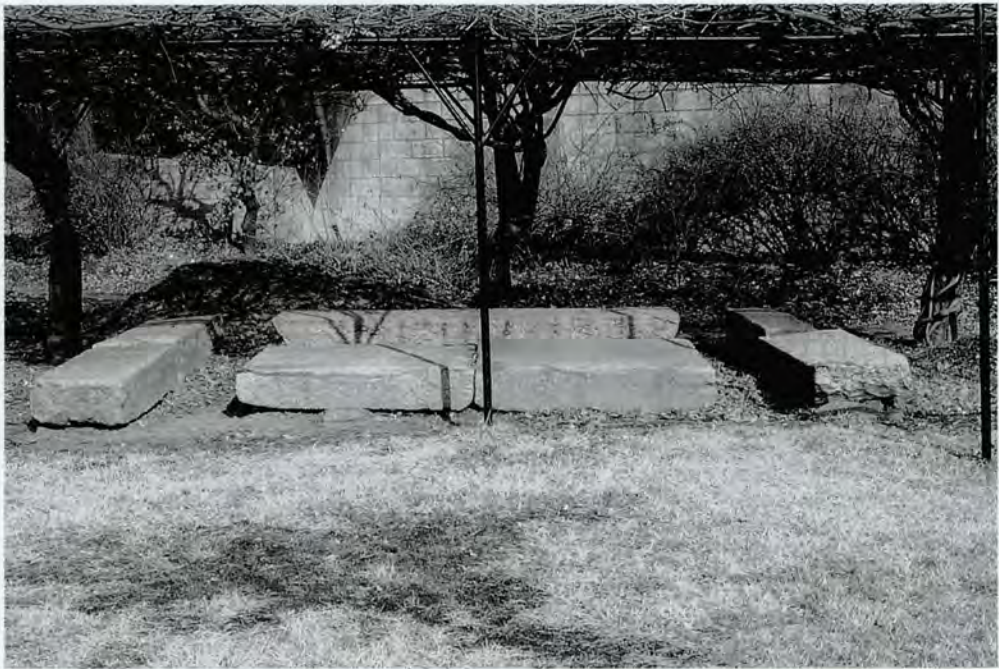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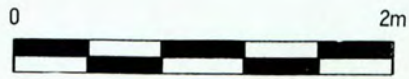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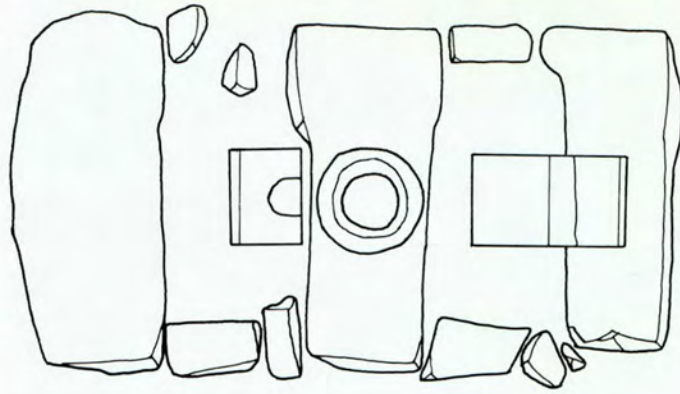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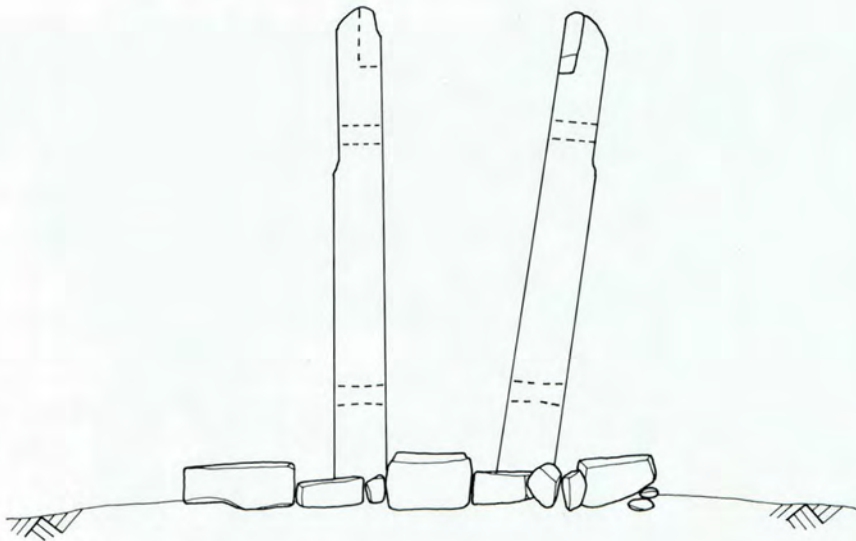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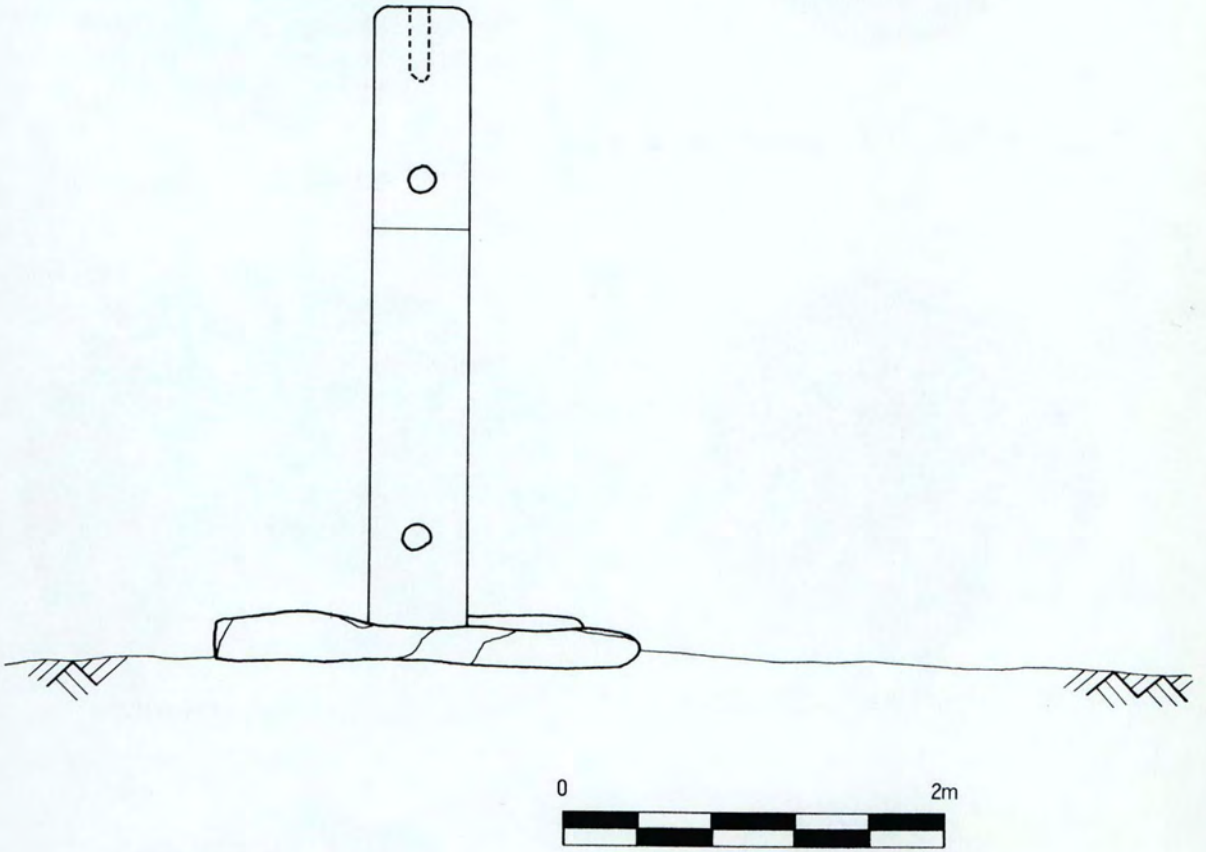
사진 14. 유유산업 본관 뒤 벤치 석재



도면 2. 중초사지 당간지주 평면도



도면 3. 중초사지 당간지주 입면도



도면 4. 중초사지 당간지주 측면도



사진 15.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16.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17.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18.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19.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0.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1.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2.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3.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4.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5.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6. 중초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기와



사진 27. 중초사지 출토 휘안문수막새기와



사진 28. 중초사지 출토 휘안문수막새기와



사진 29. 중초사지 출토 암막새편



사진 30. 중초사지 출토 사선문 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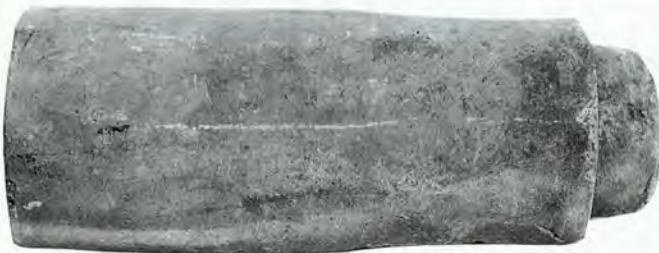


사진 31. 중초사지 출토 무문 수키와



사진 32. 중초사지 출토 복합문 암키와



사진 33. 중초사지 출토 복합문 암키와



사진 34. 중초사지 출토 무문 암키와



사진 35. 중초사지 출토 취두편



사진 36. 중초사지 출토 치미편



사진 37. 중초사지 출토 치미편



사진 38. 중초사지 출토 오각형전



사진 39. 중초사지 출토 전



사진 40. 중초사지 출토 장방형전



사진 41. 중초사지 출토 사다리꼴전



사진 42. 중초사지 출토 鉢



사진 43. 중초사지 출토 鉢



사진 44. 중초사지 출토 鉢



사진 45. 중초사지 출토 鉢



사진 46. 중초사지 출토 백자 향로편



사진 47. 중초사지 출토 백자 향로편 저부



사진 48. 중초사지 출토 백자대접



사진 49. 중초사지 출토 백자편



사진 50. 중초사지 출토 백자접시



사진 51. 중초사지 출토 분청사기대접편



사진 52. 중초사지 출토 숫돌



사진 53. 중초사지 출토 금동용두



사진 54. 중초사지 출토 금동용두 세부



사진 55. 중초사지 출토 청동그릇



사진 56. 중초사지 출토 청동발



사진 57. 중초사지 출토 청동발



사진 59. 중초사지 출토 사자 다리



사진 58. 중초사지 출토 청동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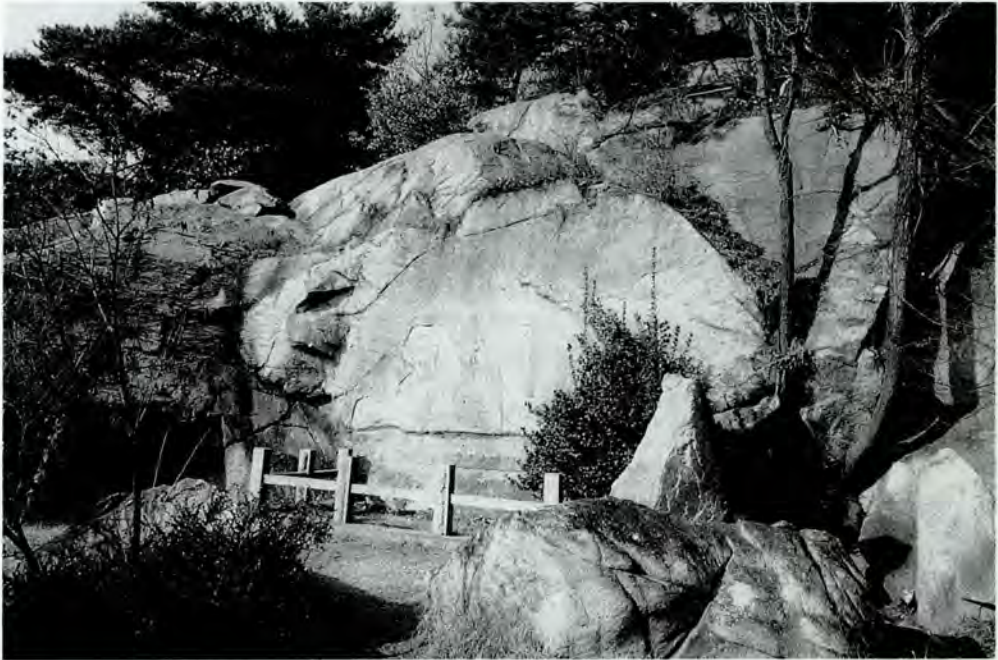


사진 60. 석수동 마애종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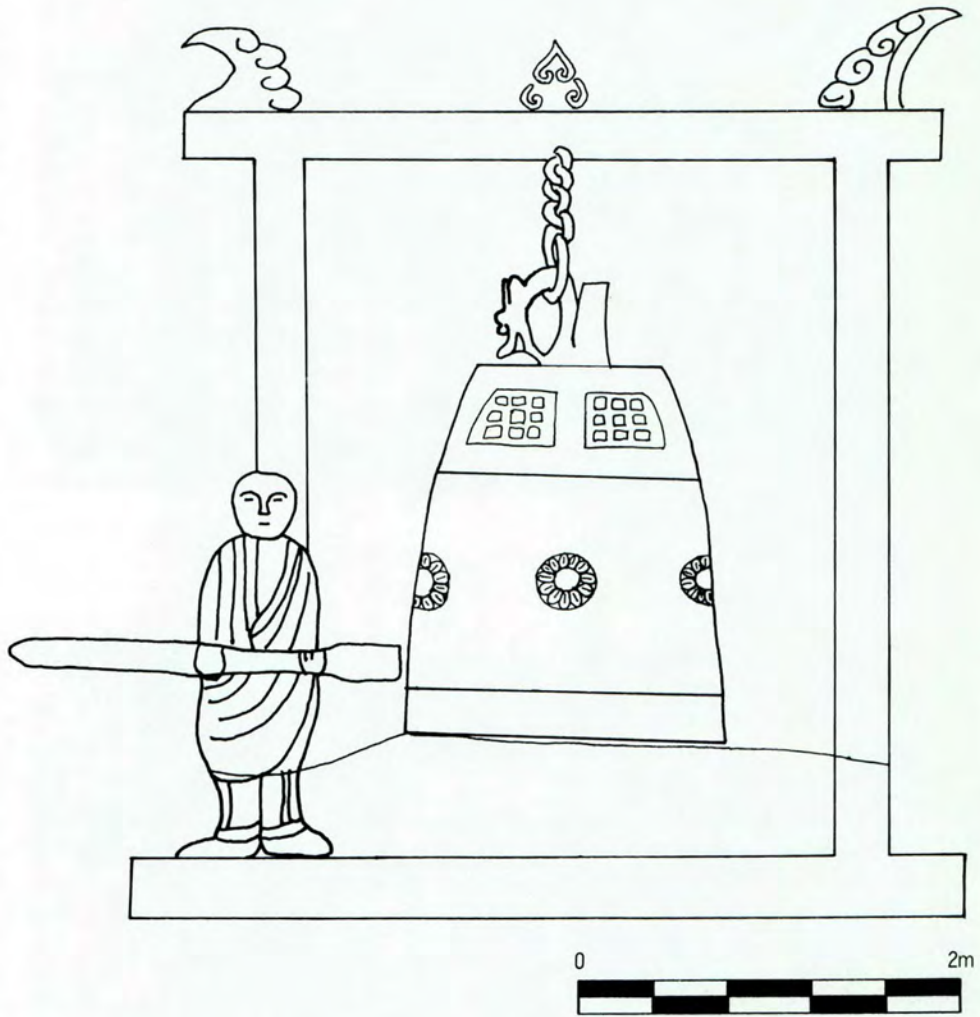
사진 61. 석수동 마애종 근경



사진 62. 석수동 마애종 세부



사진 63. 석수동 마애종 승상



·도면 5. 석수동 마애종



사진 64. 장석광사지 원경



사진 65. 장석광사지 근경



사진 66. 장석광사지 상단 축대



사진 67. 장석광사지 상단 축대 위 평탄대지



사진 68. 장석광사지 하단 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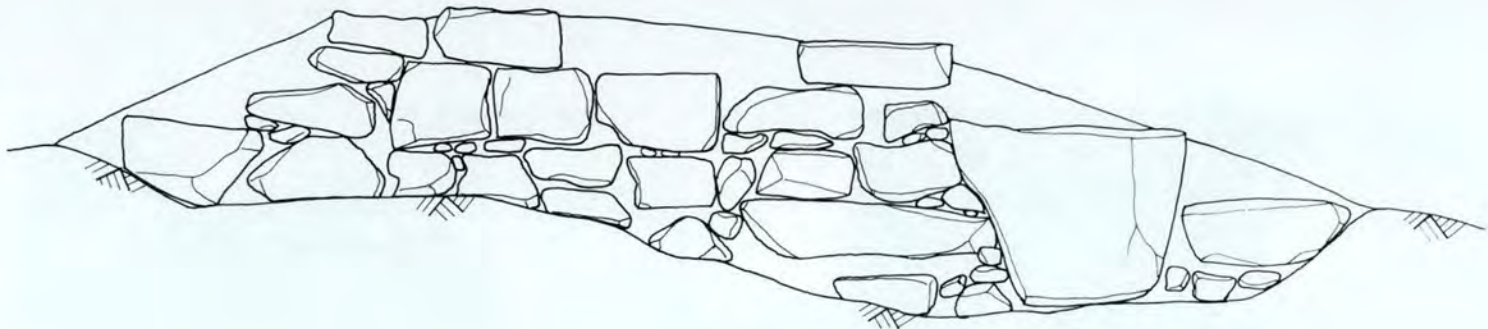
사진 69. 장석광사지 북단 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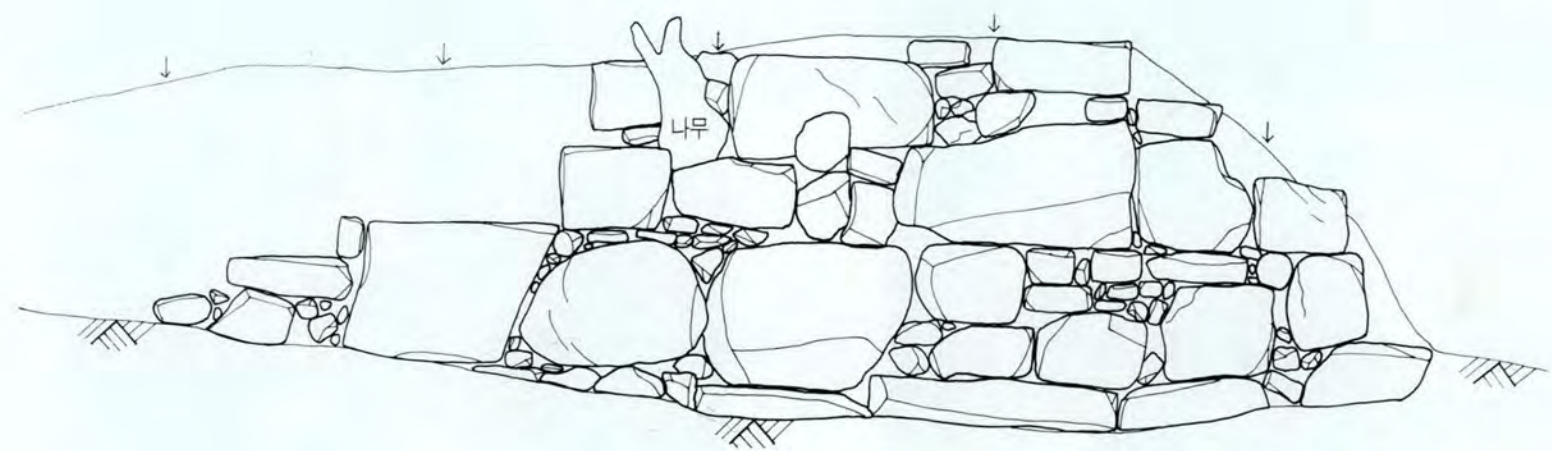
사진 70. 장석광사지 출토 초석



사진 71. 장석광사지 수습 수키와



도면 6. 장석광사지 상단 축대 입면도



도면 7. 장석광사지 하단 축대 입면도



사진 72. 평화보육원사지 원경



사진 73. 평화보육원사지 근경



사진 74. 평화보육원사지 북쪽 건물 기단석



사진 75. 평화보육원사지 남쪽 건물 기단석



사진 76. 평화보육원사지 수습 암키와



사진 77. 불당골사지 원경

Ⅳ. 도요지

1. 불당골 도요지 (사진 1-2)

안양 종합운동장을 지나 안남미 불당 약수터에서 동쪽으로 20여m 부근 등산로 북쪽 능선에서 자기편들이 수습되었다. 요지는 남쪽으로 뺀 자연 능선을 이용하여 축조되어 있는데, 현상으로 보아 남북 약 20m, 동서 9m 30cm 정도의 규모로 추정된다. 요지의 앞쪽으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물을 길렀던 추정 우물지가 남아있다. 요지로 추정되는 지역내에서 제기, 발, 보시기, 소토, 도지미 등이 수습되었는데, 각각의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백자호 (사진 3, 도면 1)

백자호편으로 굽부분과 동체의 일부가 남아 있다. 원형의 굽으로부터 사선 방향으로 올라오다 수직에 가깝게 올랐는데 이 부분에는 각을 저있는데 면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 현재 일굽 개의 면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다. 굽의 저부를 제외한 기벽 전반에 회백색의 백자유가 시유되었고, 기벽에는 빙열이 조밀하다. 굽과 내면의 저부에는 모래비집흔이 남아 있다.

(현상: 현고 7.5cm, 굽 지름 9.3cm)

2) 백자대접 (사진 4, 도면 2)

백자대접편으로 전체의 3/4정도 남아 있다. 높은 원형의 굽으로부터 기벽은 구연에 이르러 사선방향으로 외반되었다. 내면 저부에는 1조의 원각을 두었으며, 굽과 동체를 따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회백색의 백자유가 시문되었고, 굽과 내면의 저부에는 모래비집을 받치고 구운 흔적이 있다.

(현상 : 고 8.3cm, 추정 구연 지름 13.2cm, 굽 지름 7.2cm)

3) 백자대접 (사진 5, 도면 3)

백자대접 편으로 전체의 1/2정도 남아 있다. 높은 원형의 굽으로부터 올라온 기벽은 한번 각을 주어 사선방향으로 올라오다 구연에 이르러 살짝 외반되었다. 내면 저부에는 원각을 두어 그릇의 내부를 넓게 만들었다. 회백색의 백자유가 시문되었고, 굽과 내면의 저부에는 모래비집을 받치고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현상 : 고 7.8cm, 추정 구연 지름 12.2cm, 추정 굽 지름 6cm)

4) 백자대접 (사진 6, 도면 4)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파손된 백자 대접으로 전체의 용정도 남아 있다. 내면의 저부는 사선방향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원각에서 직각에 가깝게 올라가 구연부는 사선방향으로 외반되었다. 기벽과 굽은 8각으로 굽으로부터 구연으로 올라가면서 각이 벌어져 있다. 회백색의 백자유가 시문되었고, 기벽에는 전면에 빙열이 있다. 굽은 굽안을 깊게 깎았으며, 구울 때 모래비짐을 사용하여 굽내에는 모래가 많이 붙어 있다.

(현상 : 고 8cm, 구연 지름 13.6cm, 굽 내부 지름 5cm)

5) 백자대접(사진 7, 도면 5)

전체의 용정도 남아 있는 백자대접이다. 원형의 굽으로부터 올라온 기벽은 수직에 가까운 곡선으로 둥글게 구연부까지 내만시켰다. 굽은 안쪽을 깊은 사선방향으로 깎았으며, 내면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두꺼운 기벽을 가지고 있다. 내면 저부에는 현재 2곳에 모래비짐 흔적이 남아 있다. 청백색의 백자유가 시유되었고, 굽에는 모래비짐흔이 남아 있다.

(현상 : 고 8.2cm, 추정 구연 지름 12.5cm, 추정 굽 지름 5.8cm)

6) 백자접시 (사진 8, 도면 6)

원형의 굽으로부터 올라온 기벽은 구연부에 이르러 안으로 내만 하다가 외반된 형태이다. 내면은 넓게 두고 구연부에 단을 지어 마무리하였다. 원형의 굽은 안을 수직에 가깝게 깊게 깎아내어다. 회백색의 백자유가 시유되어 있고, 기벽에는 빙열이 조밀하다. 내면의 저부와 굽에는 모래비짐흔이 남아 있다.

(현상 : 고 5cm, 굽 지름 6.3cm)

7) 백자접시 (사진 9, 도면 7)

원형의 잔받침용 접시로 두텁게 성형되었다. 굽을 안으로 오목하게 깎은 속굽으로 굽에서 사선방향으로 올라온 기벽은 구연에 이르러 둥글게 마무리 되었다. 회백색의 백자유가 시유되었고, 기벽 전반에는 빙열이 조밀하다. 내면의 저부와 굽에는 모래비짐흔이 남아 있다.

(현상 : 고 3.7cm, 구연 지름 9.5cm, 굽 지름 4.4cm)

8) 백자접시 (사진 10, 도면 8)

전체의 용정도 남아 있는 백자 접시이다. 원형의 굽으로부터 사선방향으로 올라온 기벽은 구연에 이르러 수직에 가까운 곡선으로 둥글게 구연부를 내만시켰다. 굽은 안쪽을 수직에 가깝게 깎아내었으며, 회백색의 백자유가 시문되어 있다. 내면의 저부에는 겹쳐구운 흔적

이 남아 있다.

(현상 : 고 3.3cm, 구연 지름 11cm, 굽 지름 6.3cm)

9) 백자제기 (사진 11, 도면 9)

구연의 일부가 파손되었을뿐 완형에 가까운 제기이다. 원통형의 높은 굽을 가진 제기로 기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내저를 넓게 두고 구연부에 단을 지어 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굽과 동체는 따로 제작하여 부착한 흔적이 있다. 청백색의 백자유가 시유되었고, 모래비짐을 받치고 겹쳐어 구웠다.

(현상 : 고 5cm, 구연 지름 11.8cm, 굽 지름 6.5cm)

10) 도지미 (사진 12, 도면 10)

원형의 도지미로 전체의 ½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지미는 경사가 저 있으며 편편한 윗면에 고운 모래를 깐 흔적이 둥글게 남아 있다. (현상 : 지름 13cm, 두께 1.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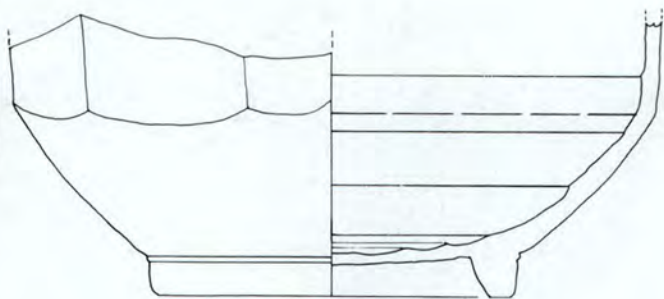
사진 1. 불당골 도요지 원경



사진 2. 불당골 도요지 단면 (소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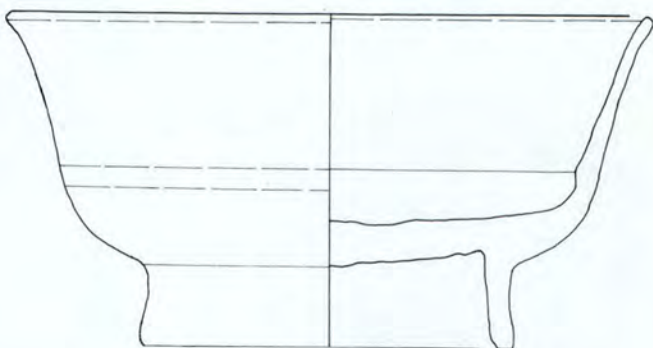
사진 3.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호



도면 1.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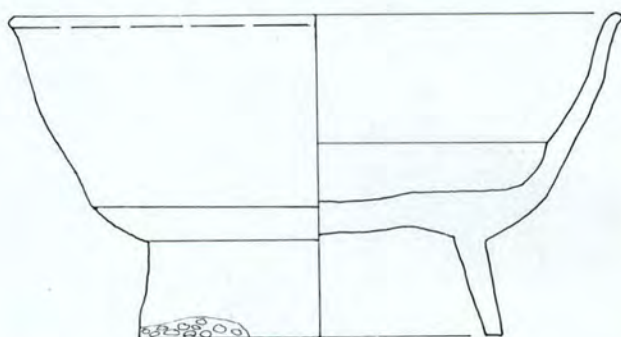
사진 4.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도면 2.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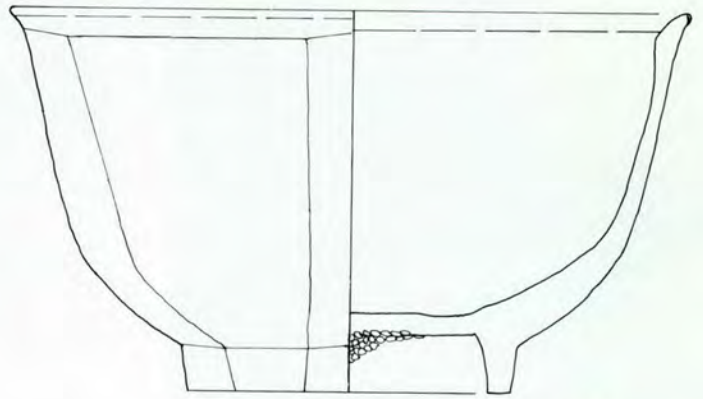
사진 5.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도면 3.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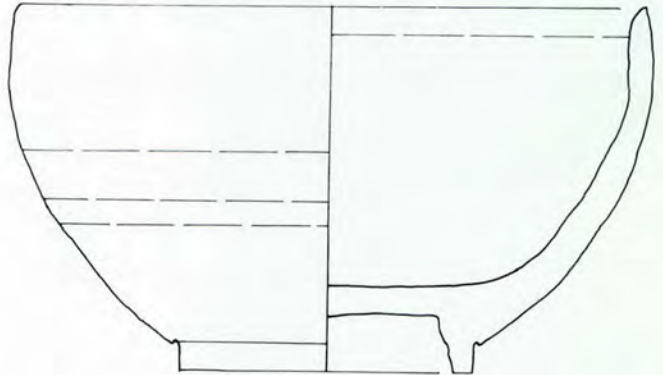
사진 6.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도면 4.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사진 7.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도면 5.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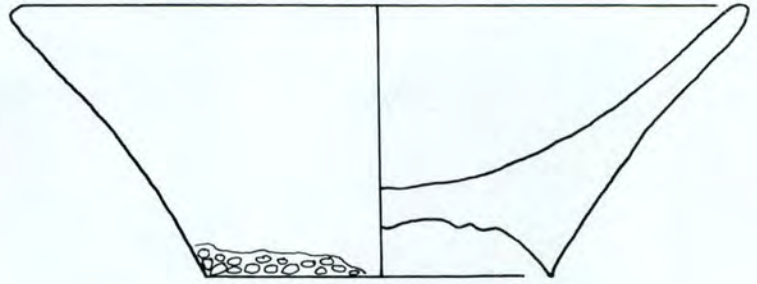
사진 8.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접시



도면 6.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접시



사진 9.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접시



도면 7.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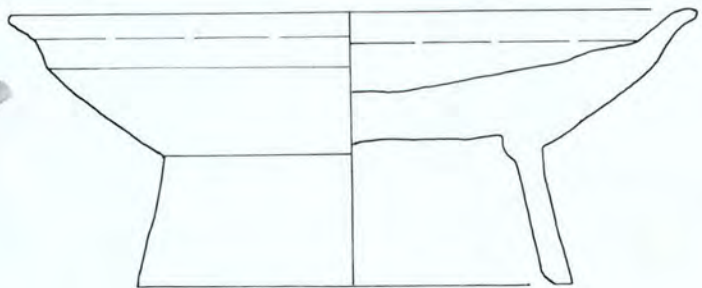
사진 10.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접시



도면 8.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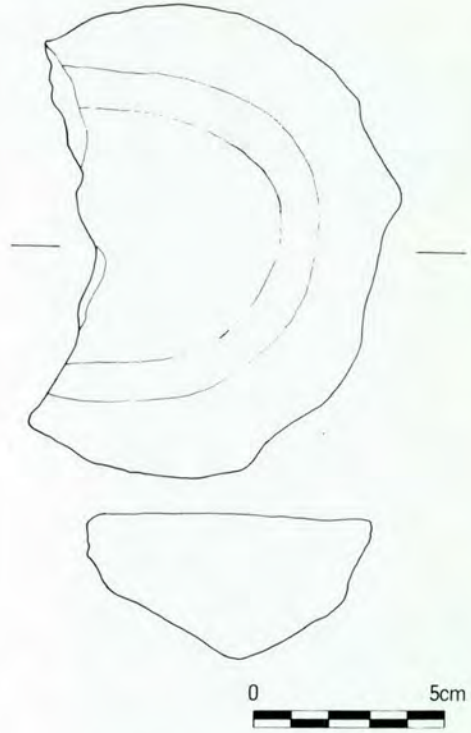
사진 11.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제기



도면 9. 불당골 도요지 수습 백자제기



사진 12. 불당골 도요지 수습 도지미



도면 10. 불당골 도요지 수습 도지미

V. 민 속

1. 수촌마을 도당제 (사진 1~6)

1) 유 래

수촌마을은 행정구역상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이며 자연부락의 명칭은 뺨말(秀村)이다. 옛부터 뺨대쑥(엇커시과의 다년초)이 많이 자생하는 곳이라 하여 뺨말이라고 불리워지던 것이 구전되다 보니 뺨말이라 부르게 되고 빼어날 수(秀), 마을촌(村)을 합쳐 수촌이 되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40여년전 삼남지방의 김해김씨 유생이 서울에서 과거를 보고 귀향하던 중에 우연히 이곳에 들러 관악산 밑의 산세와 비옥한 토질에 마음이 끌려 이곳에서 터를 잡아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후 상주김씨와 연안차씨가 들어오면서 수촌삼성(秀村三姓)을 이루게 되었는데 당시 김해김씨 유생이 마을 입구에 심은 나무가 현재 수촌 마을 신목으로 추앙받는 느티나무라고 원로들은 말하며 수령은 540여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마을의 형성연대와 당나무의 수령등으로 볼 때 마을 형성 후 대략 1500년 이후부터 도당제를 지낸 것으로 추측되며 산에 대한 신성감과 호환에 대한 두려움 등이 도당제를 지내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짐작되어 진다.

2) 도당제의 의의

도당이라 함은 신의 거룩한 공간이며 종교적 의례가 집행되는 예배의 장소이다. 곧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이자 인간의 의지가 신에게로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당의 형태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서 개인적인 기복을 염원하는 곳과 달리 마을 공동의 안녕과 무병, 평안을 기원하는 부락 전체의 곳이 도당제인 것이다.

수촌 마을 도당제는 앞서 유래에서 보듯이 마을의 형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마을곳의 형태로서 전주민이 함께 하는 축제이자 부락민 모두의 공동체 의식의 과시이기도 하였다.

수촌 마을 도당제는 여러 가지 역사의 굴절 속에도 계속 이어져 오다가 1960년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급격히 그 내용이 소멸, 축소되었으며 현재에는 외지인이 상당수를 차지하여 과거 수촌, 중말, 마분 삼개 부락의 큰 도당제의 형태에서 수촌부락만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로들에 의하면 40여년 전까지만 해도 과천 찬우물에서 용한 단골무당을 불러 큰 굿을

벌렸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3) 도당제의 현황

가. 위치와 형태

마을 뒷편으로 관악산 줄기인 큰골산 방향 1.5km거리에 당집이 있다.

전에는 규모가 크고 초가지붕에 돌담으로 지은 전형적인 경기도의 당집이 있었으나 6.25 전쟁후 돌담과 초가지붕은 없어지고 기와로 보수된 당집만이 남아있다. 내부에는 시멘트로 바른 단만이 있고 과거에는 얼룩진 큰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웃당(상당)이라 부르며 마을 바로 뒷편에 아랫당(하당)이라 불리우는 너비 1m 30cm에 폭 70cm크기의 탁자현 제단석이 소나무와 함께있으며 단의 일부는 금이 가 쪼개져 있다.

또한 동네 중앙에 성황님, 당나무, 수목정자나무로 불리우는 수령 540년으로 추측되는 신목이 있다.

나. 제신

도당제의 주요신은 관악산 산신령이며 웃당에 호랑이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신의 화신이라 믿고 있으며, 제를 지낼 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호환을 당했다고 하는 마을의 신격화된 호랑이 전서로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 제의목적: 마을의 안녕과 형안(재액초복: 액을 막고 복을 부름)

라. 제일: 음력 시월 초이틀에 지내며 매년 정해진 날짜이다.

마. 제관

보통 당제 1주일전에 마을 원로들이 회의를 하여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선출한다. 제관은 2명을 선출하는데 안당주와 바깥 당주(또는 선당주, 앓은당주라고도 함)를 선출한다. 안당주는 제물을 만들며 바깥당주는 제물을 구입한다.

일단 선출된 당주는 부정한 일이나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키며 집앞에는 황토흙을 뿌리고 원새끼줄을 꼬아 문에 매달음으로서 성스러운 지력을 알려 외인의 출입을 삼가시키고 잡귀를 막는다. 또한 목욕 재계후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자로서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성스런 제물에 행여 불결한 침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바. 제물

마을 공동으로 추렴하며 바깥당주가 걷는다. 과거에는 평균 소두3되를 62세대에서 거두었으며 세든 사람보다도 집주인은 더 많이 내었다. 소는 안양 남부시장이나 수원에서 사오

며 지정된 샘물(원주민 김득춘옹의 집앞에 샘물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로 음식을 만들었다.

재물중 시루떡은 웃당과 아래당은 별도로 만들며 웃당의 경우 떡 3말 3되 5홉을 만들었다.

사. 제의 순서

제사전날 아래당 소나무밑에 터주가리 짚을 세우고 조라술을 묻었다 쓴다.

제의순서는 웃당→아랫당→성황나무의 순서로 지내며 단앞에는 자리를 깔고 촛불을 밝힌 후 초헌, 아헌, 종헌, 독축, 소지, 음복의 순이다. (전에는 축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과거에는 밤 11:00~12:00경에 시작하여 새벽 1:00쯤 재를 마치고, 후에는 제물을 바꾸거나 종이에 싸서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지금 사정에 따라 낮 12:00이나 오후 5:00에 지내기도 하며 참여하는 주민도 대략 원주민 60가구가 참여하고 중, 장년층이 주로 주관하고 있다.

아. 기타

도시화의 과정에서 현재는 외지인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수촌마을 원로들은 아직도 당제의 영험을 믿어 과거 6·25때의 무피해나 호환의 구제등을 이야기하며 반드시 당제를 모셔야 된다고 믿고 있다.

도당제와 관련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 ① 과거에 당주가 부정한 짓을 하여 커다란 호랑이가 당주집에 모래를 뿌리는 경고를 하고 올라갔다. (참고 : 애항지 관양 p54)
- ② 6·25 전쟁때 피해자가 없었다. (제보자 : 황정수)
- ③ 20년전 초상때 염한 사람이 당주를 맡아 당제후에 즉사를 함. (제보자 : 황기성)
- ④ 제사를 잘못지낸날 저녁, 제관이 집에 돌아와보니 큰호랑이가 수수깡 담장넘어 앉아 있길래 즉시 목욕한후 생수를 떠놓고 “미천한 소인이 제를 잘못지냈다”고 한참을 빈 후에 쳐다보니 호랑이가 사라지고 그후 다시 날을 잡아 제를 올렸음.(제보자 : 김득춘)
- ⑤ 또한 성황나무라 불리는 당나무에는 삭정이를 주어다 쓰면 화를 입는다고 전해지며, 군입대시에도 인사를 드리고 떠남. (참고 : 애항지 관양 p52)

4) 조사후

수촌마을 도당제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과거 성황리에 진행되었음을 여러 증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또한 김득춘옹이 많은 증언자료를 제보하여 주었기에 조사에 도움이 컸다. 그리고, 현 도당제의 경우 최소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축문이라도 현재 실정에 맞도록 만

들어져 보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찬우물마을(현재의 과천시 갈현동 9번지 일대)에 용한 단골무당이 와서 굿판을 벌렸다고하여, 찬우물 현지에 찾아 봤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곳의 원주민 김태근(수촌마을 도당제를 소상히 알고 있었음)을 만나 대담한 결과 과천 신도시가 형성된 10~15년전 사이에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오래된 무당들이 모두 떠나갔으며 무당들 스스로가 “무당새끼”라고 손가락질을 받아 얼마전에 한명 있던 무당도 안성으로 떠나고 지금은 없다고 증언 함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사진 1. 수촌마을 노인회장. 김득춘 옹(80세)



사진 2. 수촌마을 도당제. 옷당



사진 3. 수촌마을 도당제, 옷당 의 내부



사진 4. 수촌마을 도당제, 아랫당



사진 5. 아랫당에서 내려다 본 수촌마을



사진 6. 수촌마을 중앙에 위치한 수목정자나무

2. 석수동 쌍신제 (사진 1~10)

1) 유 래

석수1동 소재 삼성산에서 발원한 삼성천이 안양유원지를 경유 석수다리 밑을 지나 안양대교에서 안양천과 합류가 되는데 삼성천을 중심으로 북쪽은 삼성산이 위치하고 동북쪽으로는 관악산이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삼성천을 경계로 석수1동과 안양2동으로 구분되는 이곳은 맑은물과 수려한 경관으로 자연스럽게 유원지가 형성, 많은 행락객이 사시사철 봄비는 곳이며 전에는 안양유원지로 명명되었다가 현재는 비산공원(비산유원지)으로 지명되어 있다.

석수동 쌍산신제는 이곳을 좌우로 감싸고 있는 석수1동의 할아버지산과 안양 2동의 할머니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서 쌍산신제라 불리우게 된 동기는 산의 명칭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적구분을 풍수지리적해석과 지형지물에 대한 시각적, 관념적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 산의 위치가 마을에서 볼 때 남좌여우를 하고 있으며
- (2) 삼성산은 남성의 산이고 관악산은 여성산이라 관악산에서는 낙상을 해도 크게 다치거나 죽는일이 없다고 한다.
- (3) 솟물은 건하고 암물은 습하다(실제로 할아버지산에서는 샘이 한곳밖에 없으며 그나마 물이 탁하다. 그러나 할머니산에는 제단을 중심으로 확인된 약수터만해도 십여군데 이상이 된다)
- (4) 할아버지산에는 감투바위(안양사 북쪽으로 1km) 및 할아버지 바위로 불리는 바위와 할머니 산에는 쪽털(죽두리)바위와 산신제단 위로 여성을 상징하는 듯한 여근석이 중언에 의해 확인되었다. 감투바위와 쪽털바위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할머니산 중턱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났다고 하는 쌍칼바위가 우뚝서있다.

현지 원로에 의하면 약 2~3백년전부터 산제를 올렸다 하나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깊은 애착과 관심이 산을 신령시하고, 산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는 의식의 표현이 쌍산신제로,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내오고 있는 것이다.

2) 산신제의 의의

산신은 지역 수호신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곧 민간신앙에 있어서 산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강한 숭배의 대상, 산 그자체였다. 이러한 신앙의 외적표현은 흔히 진산으로 불리우는 마을의 산에 산악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인격화된 자연신이 존재하며, 산신제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 가족의 번성, 무병장수, 다산신앙등이 포함되어있다.

석수동 쌍산신제는 이러한 과거의 형태에서 단순한 답습이 아닌 현재에도 마을의 생업

(유원지인 관계로 상업종사자가 다수임)에 번영을 주는 성스럽고 고마운 신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3) 산신제 현황

(1) 위치와 형태

석수1동 유유산업 뒷편으로 할아버지산이 있으며 산의 초입엔 우물이 있다. 산신제단은 전에 큰기둥 모양의 바위와 함께 잘 손질된 송림이었으나 어느 해인가 제단이 산아래로 굴러 땅속에 묻힌후 지금은 새로 제단을 쌓아 놓았다.

할머니산은 경수산업도로 옆에있는 별장가든의 뒷산으로 산신제단은 일봉사절에서 산정 상쪽으로 100M 위치에 고사샘과 같이 위치하고 있으며 1950년대 이전까지만해도 큰 아름드리 소나무와 함께 제단이 있었으나 6·25전쟁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다. 그후 10여년 전에 현재의 위치에서 좌측방향에 오석으로 산신제단을 만든적이 있었으나 상석 뒷면에 제단을 만들기 위한 후원회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 관계로 불경스럽다하여 원래의 자리인 현위치로 산신제단이 세워지게 되었다.

(2) 제 신 : 산신, 산신령, 할아버지, 할머니신

(3) 제의목적 : 마을의 풍요와 번영, 다산신앙

(4) 제 일

과거에는 음력 시월초하루에 마을회의를 통해 제일을 결정하였으나 지금은 매년 음력 10월 초사흘에 하고 있다.

(5) 제 관

할아버지산과 할머니산이 동시에 제를 지내는 관계로 전체적으로는 2명의 안당주와 2명의 선당주가 선출되는 셈이다. 당주는 양쪽 공히 그해의 운수와 집안에, 초상이나 불결한 일이 없었던 자를 선출하여 각각의 맡은일을 하며, 현재에도 산제를 지내기 위한 동네 추렴시여관, 병원등은 불결하다고하여 추렴을 금하고 있다. (마을 체육행사나 관광 등의 경우에는 추렴을 한다.)

(6) 제 물

추렴한 돈으로 선당주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할아버지산 마을에서는 40~50년대에 70여가구가 평균 소두 1되를 건었고, 할머니산 마을의 경우50~60년대에는 평균 50호 정도가 추렴하였으나 지금은 형편되는 대로 현금으로 건고 있으며, 91년의 경우 떡을 12말이나 준비하였다.

특히 쌀알이 맑고 완전한 모양을 갖춘 쌀을 골라 멧밤(제단에 올리는 찌빔)을 중탕으로 만들 경우 안당주가 정성이 가득하면 멧밤위에 새나 짐승의 발자국 문양이 나지만 정성이 없으면 표시가 나지않아 안당주는 재물준비에 무척 공을 들인다.

과거에는 일몰후에 제를 지내지만(평균7~8시)지금은 밤10시경 할아버지산 동리에서 산에 오르는걸 확인한후 할머니산 마을도 제물을 들고 출발한다.(1970년대 까지도 할아버지산에 오르는 모습을 할머니산에서 볼 수 있어 햇불이 이동과 양동리간에 소리를 어이 ~ 하고 지르면 들렸다고 하나 현재는 고층건물과 함께 소음등으로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다)

각각의 산신제단에 도착하면 전날 문었다가 걸러낸 조라술을 따르고 산신제를 거행한다. 3번 읊하고 축문 낭독후 3번 읊한다. 고시래를 한후에 대동소지(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를 하고 마을에 내려와 집에서 가져온 소쿠리 등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할아버지산 축문

유 세차 ○○ 십월○○삭 초삼일 ○○ 유학치성
공적 처처척량 감소고우
관악산 신령 조림강재 인간신총 자재후토 승왕
오악제군 직전외사 팔대산왕 십방법계 유령지성
신기보유 만방지결 소초초적 근이주과 지천세사
복유존영 제세중생 만병통치 안과길성
구액보결 복록무궁 천세발원 대발원
維 歲次 ○○ 十月 ○○朔 初三日 ○○ 幼學致誠
功績 處處則量 敢昭告于
冠岳山 神靈 照臨降載 人間神通 茲在后土 承王
五岳諸君 直典外事 八大山王 十方法界 幽靈至誠
神其保佑 萬方之結 蕭草초적 謹以酒果 祇薦歲事
伏惟尊靈 濟世衆生 萬病通治 安過吉星
舊厄補缺 福錄無窮 千世發願 大發願

※ 할머니산 축문

유 세차 ○○년 ○○월 정축일 복일행지
봉동거민 선속유학 ○○○감소고우
관악산 토지지신 복유 존신대천 선화진아
일방비민 유조사안 이유신지 사사포미난유

신지우도 민지덕가 민혜택고 수심미거매
신공일리동속 은탕기궁 보사금진유 월지정성주
수박시출 이성유 신강격서 감우해망 수극유시종
동민안거 재양무탈 안정리거 소망축원

4) 조사후

석수동 쌍산신제는 타지역에 비해 마을주민이 비교적 단결이 잘 되는 편이다. 중, 장년층 원주민의 말에 의하면 추렴액이 92년의 경우 약200여만원이며 기금도 200여만원이나 된다고 자랑하고 있다.

마을주민중 원로인 이희후 할머니는 “요즘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산신령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며, 신령님 기운이 옛날같지 않다.” 라고 말해 민속신앙에 대한 구세대인들의 애착심과 그리움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제사시 낭독하는 축문의 형태가 한글로 바뀐 한자음의 상태로 남아 있어, 한학자에게 내용의 원문을 알기위해 해석을 의뢰한 결과 축문의 내용이 기본적인 격식과 내용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쌍산신제를 조사하던중 유기홍옹의 증언에 의하면 6·25전쟁 전까지 3년마다 티없는 검정 통돼지를 잡아 제사후 이틀씩 큰무당굿을 하였으며 무당은 꽃챙이골(현 석수2동 화창마을)이나 벌터에서 왔다고하여 관심을 갖고, 꽃챙이마을 찾아 수소문 하던중에 서씨만신(손순자)을 만나게 되었다. 서씨만신은 현재 가족들과 며느리의 만류로 무업에서 손을뗀지 꽤 오래되었으나 주변에선 아직도 용한 무당으로 화창마을의 원로들중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고 본인은 주위에 자기신분이 노출되는게 싫어서인지 만나기를 꺼려해 가족모르게 만났으나 일체의 본인에 대한 대화나 자세한 내용을 회피하고 있었다.

서씨만신에 의하면 30살전후해서 본인이 가서 그곳 무당굿을 본적이 있으며 당시 벌터(현재의 뚝골)에 큰만신이 있어 큰만신이 굿을 하였다고 증언한다.

큰 만신은 오래전에 운명했으며 주로 열두거리에 조상굿은 하지않고 한밤중에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잤다고 한다. 큰 굿판의 자리는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산이 잘보이는 유유산업 앞에 발이었다고 증언하는데 이 부분은 유기홍 노인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어 아직도 과거 큰산신제 형태를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석수동 쌍산신제에 대한 방향을 가늠해본다.



사진 1. 유기홍 옹(78세)



사진 2. 할아버지 산신제단(제단석 윗부분에 산왕대신아리고 쓰여져 있음)



사진 3. 할아버지산 산신제단의 터줏거리



사진 4. 할아버지산의 제수용 우물



사진 5. 감투바위



사진 6. 할아버지 바위(사진 중앙)



사진 7. 할머니산 산신제단(제단석에 산신제단이라고 음각되어 있음)



사진 8. 할머니산 제단의 터줏거리



사진 9. 할머니산의 쪽털(쪽두리)바위



사진 10.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났다는 쌍칼바위

3. 삼막골 느티나무제 (사진 1~6)

1) 유 래

삼막골은 행정구역상 석수 1동에 속해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의상대사, 율필거사등 삼성인이 삼성산에서 수도하며 유유산업 부근에 제 1막을 짓고 제 2막은 기아의 집 뒤 수도사 부근에 짓고 제 3막은 석수 1동 산10-1번지에 지어 삼막사가 되었는데 삼막사 아래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사찰의 명칭을 따서 삼막골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삼막사에서 발원한 물이 삼막골을 따라 관악 전철역 남방400M 지점에서 삼성천과 합류되는 하천이 삼막천이다.

삼막골 느티나무제는 삼막천의 상류를 향해 우측에(석수 1동, 1통) 할머니 향나무가 있었고,좌측(석수 1동 2통)에 할아버지 느티나무가 있다. 수령은 양쪽 모두 500년으로 추측하나 제보자 이공순씨는 16세때에 시집을 당시에 500년쯤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할머니 향나무는 77년 대홍수때 뿌리채 뽑혀 쓰러졌으나 그해 원형대로 현재의 위치인 삼막천 좌측으로 옮겨 심었으며, 은행나무를옆에 같이 심어놓았다.

삼막골 느티나무제는 제의 명칭에서 보듯이 느티나무(마을수호 신목)의 역할과 마을주민의 염원이 모여 느티나무제를 지내게 된것이며, 느티나무의 수령이 500년 이상인 관계로 제의 발생시기도 느티나무가 심겨진 1,500년경 이후로 추정되어 진다.

2) 느티나무제 (신목)의 의의

신목은 마을곳이 행하여 지는 곳에서 당나무라고 불리워지며 대개 남성과 여성으로 한 쌍을 이루고 있다. 또한 당나무는마을의 수호신이며 땅에 박힌 뿌리와 하늘을 향해 치솟는 거대한 줄기는 땅과 하늘을 잇는, 인간의 기원이 하늘을 향해, 하늘의 기운이 나무를 통해 인간과 교류하는 신령의 장소이며, 마을중심의 성스러운 장소이다.

석수동 삼막골 느티나무제는 양쪽 마을의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화합과 신명의 공동장소이며 .부락의 안녕과 개인의 풍요를비는 일체감의 장소인 것이다.

3) 느티나무제 현황

(1) 위치형태

삼막천을 따라 좌측으로 올라가면 삼막상회 옆에 할아버지 당나무가 있고 위로 100M쯤 올라가서 할머니 당나무가 있다. 현재 할아버지 당나무는 도나무(道木)로 지정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 호 수

- 품 격 : 도나무
- 고유번호 : 5 - 8
- 수 종 : 느티나무
- 지정일자 : 82. 7. 1
- 수 령 : 약 500년
- 소 재 지 : 석수동 134번지
- 수 고 : 25M
- 관 리 자 : 석수 1동장
- 나무둘레 : 5M 30CM
- 기 타 : 500년 전에 식재하였다하며
매년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음

(2) 제 신 : 할아버지, 할머니 나무, 당나무, 성황나무

(3) 제의목적 : 마을의 평안과 행운, 재액초복

(4) 제 일 : 매년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 이지만 현재는 10월 1일에만 지낸다.

(5) 제 관

보통 제일 보름전 1~2통 주민중 중, 장년층과 노인이 모여 회의를 통해 제관을 선출한다. 2인의 제관이 선출되면 제관집과 당나무에는 금줄을치고 엄격하게 외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이 기간중에 제관은 금기사향과 언행, 부정을 가리며 외지인의 출입은 물론 부부가 한방에 드는것도 금지한다.

(6) 제 물

당제 하루전에 당나무(할아버지,할머니) 아래 조라를 모신다. 청결한 쌀로 찌서 누룩과 함께 작은 옹기에 담아묻고, 예전에는 소를 잡은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돼지머리만 쓴다.

현재는 동네주민 중에서도 50~60%만 참석하며 92년의 경우 평균 2,000원씩 추렴하였으며 더내는 사람도 있다.

(7) 제의순서

과거에는 오후 1~2시경에 제를 올렸으나 지금은 오전 10시쯤 시작하는데, 할아버지 나무에 먼저 올리고 할머니 나무의 제를 지낸다. 제의 순서는 삼헌(초헌, 아헌, 종헌), 독축, 소지, 음복의 순으로 제를 올리며(지금은 축문이 분실되어 독축은 생략한다) 우물고사는 반드시 지낸다.

고사 우물은 할머니 신목의 경우 할머니나무 맞은편에 있는데 근처에 목장이 생겨 오염이 되어 있으며, 할아버지 나무의 제사용 우물은 송정이라하여 주민 이종축씨 집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물 근처에 소나무 많이 있어 송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양우물 모두

지금은 콘크리트에 뚜껑을 만들어 보관하며 할아버지 우물은 아직도 쓰고 있다.

(8) 기 타 :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당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 ① 6.25 전쟁 때 피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보자 : 고재문)
- ② 80년 여름에 나무밑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마침 강한 바람으로 굵은 가지가 부러졌으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제보자 : 고재문)
- ③ 할아버지 당나무 옆에 향나무가 있었는데 전에 석수동 주둔 미군 병사가 나무를 잘라서 그날 저녁에 막사에 큰불이 났으며 군용차가 타고, 많은 사람이 화상을 입는 등 큰 사고가 났었다. (제보자 : 김병천)
- ④ 현재에도 이곳 주민들중 노인층은 원거리를 다녀올 때에 인사를 드리고 나가는 등 당나무에 대한 치성이 대단하다.

4) 조사후

삼막골의 경우 동네 특성상 녹지 지역이므로 인구의 급격한 변화도 없고 경제적 여건도 그리 좋지 않아 타지역의 동신제에 비해 그 형태가 매우 미약한 편이다. 축문 또한 15년전에 글을 잘알던 사람이 죽은 후 흐지부지 분실이 되어 내용 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중에 우연히 안산만신이라고 불리는 무녀를 안양1동 구시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웃집은 안양농악의 기능보유자인 장석봉옹(75)으로 서로간에 잘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이 안산만신이 과거에 삼막골의 할머니 느티나무가 수해로 뽑혀 이전할 당시의 큰 굿판을 치룬 장본인이며, 당시 자신은 당골무당이 아닌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굿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안산만신 역시 주위에선 용하다는 강신무로 현재는 몸에 병마져 있어서 앞서 서씨 만신의 경우처럼 조사자의 질문을 귀찮아 하는 표정이어서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려웠다.

세곳의 동신제를 조사중 서씨만신과 안산만신을 만나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길 회피하더라도 조사의 시간이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는 것이 더욱 답답한 형편이었다.

조사가 더욱 진행되어 계속 그들(80세 넘는 옛날 딱부리 무녀가 안양에 왔다고 함)과 만나 대담을 하면 또다른 이야기를 들을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안산만신의 경우 통상적인 열두거리가 아닌 2-3가지의굿거리가 추가된 마지막 느티나무제 굿판의 무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녀가 신이 올라 하던 것을 세월이 지난후에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매한 질문이며 대충 짐작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의 집중적인 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사 길흉화복을 구하자고 신내림을 받은 무녀지만, 무업의 끝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만하다. 더욱 절실하게 그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지도 모른다.



사진 1. 이공순여사(77세)



사진 2. 할아버지 느티나무



사진 3. 할아버지마을의 우물("송정"이라고 부름)



사진 4. 할머니나무. 우측에 향나무가 있고, 좌측에 새로 심은 은행나무가 있다.



사진 5. 사진 중앙의 기와집 뒤가 할머니나무의 원위치이다.



사진 6. 할머니나무의 고사용 우물

4. 석수동 채석장 노동요 (사진 1~5)

1) 유 래

석수동 채석장(석산)의 위치는 현 행정구역상 석수동 산11-1번지 일대이며 삼막골 입구에서 삼막사 방향으로 1km쯤 올라간다.

지금은 거대한 석산으로서 현대, 대림, 삼부, 동인산업등이 79년부터 허가를받아 채석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과거 채석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현재의 대림산업 채석터중 일부가 과거 화강암을 캐던 장소이며 맞은편 석수 1동 71번지 주변이 구들장터로 확인이 되었다. 지금은 가정의 주연료가 가스과 석유이지만 전에 장작 또는 연탄을 사용하는 시절에는 구들들의 소비가 많아 지금도 구들들을 캐어내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최용의 기억으로는 왜정 휘선전부터 석산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석산의 주인은 시흥에사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급료는(6.25)이후 하루 300원 이었다고 한다. (급료의 계산은 1자 파는데 45원씩이고 하루 18자~20자까지 3명이 파므로 평균 900원을 받아 세명이 나누어 가졌는데 당시 쌀한가마니가 2,000원이었고 곡물이 귀하던 시절임을 생각하면 꽤 큰 벌이었다.)

2) 석수동 채석장 노동요의 의의

노동요는 일하며 부르는 자연스러운 흥얼거림이다. 농부에게 농요가 있고, 어부에게 풍어가가 있다. 그들에게 세련된 멋이나 기교가 없이 그저 질박하고 흥겹게 코가 막히면 막히는데로 입이 텅텅하면 텅텅한대로 그들만의 소리를 내고 흥겨워한다. 그래서 우리만족의 직업현장에는 항시소리가 따른다. 생활의 일부분인 소리가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마다 틀리고 노동의 성격에 따라 자연스럽고도 나름대로 기능적인 자기표현을 하게된다. 이번에 채록된 채석 노동요는 채석장(석산) 작업중에 정을 쇠메로 때리며 부르는 노래로 장단과 작업의 손놀림이 일치해야하는 힘들고 고된 작업속에서 흥으로 대신하는 작업의 능률과 멋스러움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

3) 채석장(석산) 작업

석수 1동 71번지 주변은 예로부터 존재하던 채석장(석산)으로 석수동이라는 지명이 말하듯 채석장(석산) 종사자와 석공이 많았다. (1905년 한일합방의 원흉 이등박문에게 돌을 던져 온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안양 1동 출신의 원태우의사 또한 석공이었다.)

채석장(석산)의 작업은 석산에서 큰 돌을 떼어내는 일과 떼어낸 돌을 용도에 따라 다듬는 일로 구분을한다. 최봉수옹은 석산에서 큰 돌을 캐어 내거나 떼어 내는일을 하였는데 당

시(1940~1970년 중반)에는 석산에 3인 1조로 구성된 9~12명의 돌구멍 파는 사람과 돌을 운반하는 목도꾼 대여섯명, 돌을 다듬는 열서너명의 사람들이 작업장 인원의 전부였다고 말한다.)

4) 작업순서

먼저 3인이 1조로 구성되어 한사람은 바위에 두자짜리 정을대고(최웅은 정을 너미라고 부름) 두사람이 교대로 메질을 하는데 돌아가며 순서를 바꾼다. 정은 2자에서 24자까지 있고 3근반짜리 쇠메로 정을 때리는데 무척 힘이들어 과장된 표현으로 삼천번 쳐야 자반이 들어갈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돌의 크기에 따라 정을 바꿔가며 구멍을 뚫는데 평균 10자 이후에는 돌구멍 속에 돌양금이 낚으로 귀후비개라고 불리는 대나무 막대에 구멍을 뚫고, 돌구멍에 물을 부어 집어 넣으면 양금이 물과 함께 대나무 구멍으로 들어와 건져 올려진다. 후에는 후비개 끝에 검불이나 천으로 싸매어 남은 양금 등을 묻혀서 닦아 낸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후에야 비로소 돌을 떼내는데 근대식 방법으로는 남포심지를 붙여 붙여 화약의 힘으로 돌을 떼내는 방법과 재래식으로는 암벽구멍에 단단한 박달나무 또는 참나무 등을 한자반 길이로 끼워 물을 적시면 나무의 팽창되는 힘으로 바위가 깨어지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결이 좋고 석질이 약하며 떼어내야 할 돌의 모양이 크지 않을땐 호하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의 쇠를 대고 툭툭치어 쪼개기도 한다.

5) 조사후

석수동 채석 노동요는 최봉수(72세)옹과 서재순(69세)옹, 김정현옹 외에 몇몇 노인에 의하여 그 내용과 형태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었다.

또한 원래 조사 대상에선 없었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무거운 돌이나 물건을 옮길 때 부르는 목도 소리와, 큰 돌덩이에 줄을 매기위하여 지주대를 끼우며 부르는 대꼬질 소리등이 채록되었다. 대꼬질은 목도를 하기위한 준비과정인데 소리를 녹음한 심성봉(77세)옹은 안양에서도 대꼬질 소리는 딴 지역과 같다고 하나, 이필성(75세)옹과 유정용(85세)옹에 의하면 “어이여차, 어이여차”할뿐 별도의 소리는 없었다고 한다. 목도 소리는 물건의 크기에 따라 단목, 두목, 네목, 육목 그 이상 까지도 힘을 합치며 부르는 노래로 경쾌하고 서로간에 발이 맞아야 함으로 소리의 장단과 강약이 뚜렷하다. 또한 돌을 다듬는 중에 부르는 소리를 찾으려 했으나 그러한 소리는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잘 알려진 집터 다지는 소리(지경다이)를 장석봉(77세)옹에 의하여 녹음 할 수 있었다.

6) 채석요 (쇠메로 정을때리며 부르는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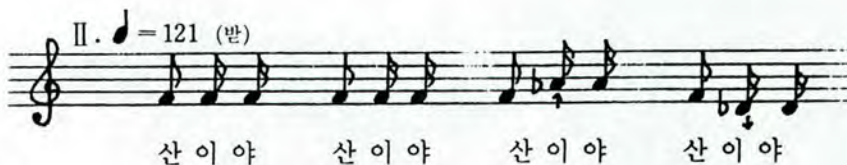
*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13-22. 최봉수 창(남 72세). 93. 6. 25 녹음

I. ♩ = 121 (메)

산 이 야 산 이 야 산 이 야 산 이 야
 아 산 도 산 이 지 산 이 야
 산 지 ~ 조 종 은 곤 룹 산 이 ~ 요
 수 지 ~ 조 종 은 황 ~ 해 수 ~ 라

산이야 / 산이지 / 황해도 / 봉산은
 인심이 / 좋아서 / 노란돈 / 서푼에 / 큰아기
 열들일세 / 산이야 / 산이지
 제주도로 / 가봅시다 / 제주에는 / 한라산이요
 제주에는 / 해녀도 / 많고 / 조랑말도
 많지만 / 조각돌도 / 많다하네
 전북으로 / 가봅시다 / 전북에는 / 지리산 / 그리고는
 연자봉 / 그중에는 / 내장산 / 그다음으로 / 주왕산
 산이야 / 산이지
 전남으로 / 가봅시다 / 전남에는 / 월출산
 천왕봉에는 / 무등산 / 산이야 / 산이지
 경북으로 / 가봅시다 / 경북에는 / 덕운산이요
 팔공산도 / 있고 / 소백산도 / 있지요
 경남으로 / 가봅시다 / 경남에는 / 가야산이요
 해인사도 / 있답니다
 충청도로 / 가봅시다 / 충청도엔 / 계룡산
 월악산도 / 있지만 / 속리산도 / 있답니다
 강원도로 / 가봅시다 / 강원도엔 / 오대산이요
 설악산도 / 있고요 / 치악산도 / 있지만
 금강산도 / 있답니다
 산이야 / 산이지
 경기도로 / 가봅시다 / 경기도엔 / 관악산이요

수리산도 / 있지요
 한양으로 / 가봅시다 / 한양에는 / 인왕산요
 북한산도 / 있지만 / 삼각산 / 남산도 / 있답니다
 산이야 / 산이야
 수원으로 / 가봅시다 / 수원에는 / 팔달산이 / 있답니다
 강화도로 / 가봅시다 / 강화에는 / 마니산
 황해도로 / 가봅시다 / 황해도엔 / 구월산도 / 있지만
 극락산도 / 있고요 / 불태산도 / 있답니다
 산이야 / 산이야 / 산이지
 평안으로 / 가봅시다 / 평안에는 / 묘향산이 / 있구요
 함경도엔 / 백두산이 /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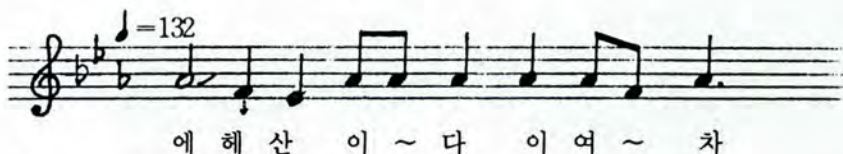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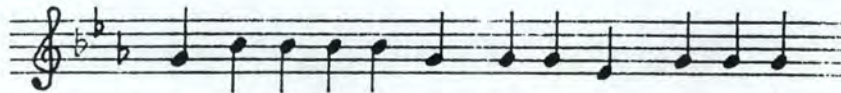
*참 고

1. (매) : 매김소리
2. (받) : 받음소리
3. 받는 소리는 음의 높낮이에 있어
 - 산이야는 악보에 표기된 음보다 조금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 산이지는 악보에 표기된 음보다 조금 내려가는 편이며
 - 산이다는 악보에 표기된 음과 같이 진행하려 한다.
4. ♩ : 악보에 표기된 음보다 미묘하게 조금 낮음.
 ♩ : 악보에 표기된 음보다 미묘하게 조금 높음.

7) 대꼬질 소리 (큰 돌덩이를 지주대로 받칠 때 소리)

* 안양시 만안구 석수 2동 295-1. 심성봉 창(77세). '93. 6. 28.





지주대 주사들 지주대 대어라



에헤산 이~다 이여~차

8) 목도소리 (무거운 물건을 옮기며 부르는 소리)

*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11-1. 유정용 창(85세)

*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6-1. 이필성 창(75세). '93. 6. 30 녹음



차 제 허이 허저허저 허저차 허야



허저차 허야 허이저차 허야



허저차 허야 허이저차 허야 놓고

허저차 허야 올라간다 허야

허저차 허야 턱이있다 허야

허저차 허야 외로돌고 허야

(목도일 끝날 때)

허저차 허야 허이저차 허야

가만 가만 허이저 목도소리가 끝나면

목도꾼신세 망하리라 허이저차 허야

*참 고

1. 앞소리중 차제 허이 (ρ)는 음이 끌어올려지며
2. 끝소리후 놓고 ($b\downarrow$)는 음의 끝이 내려간다.
3. 앞소리 차제~는 어이저 하고 부르기도 한다.

9) 지경дати (집터다지는 소리)

*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2-131. 장석봉 창(77세). '93. 6. 30 녹음

The musical notation consists of three staves in G major, 2/4 time, with a tempo of 124 beats per minut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Staff 1: $\bullet = 124$ (메) (반) (메)
 군 방 매 예~이 지경한번 잘다져 볍시다

Staff 2: (반)
 에 ~ 여 라 지 경 이 요

Staff 3: (메)
 집 터 ~ 한 번 ~ 닭 을 ~ 적 에 는 쉬

(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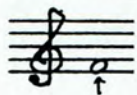
삼봉 허리를 궁글러 가며
 고추 상투를 흔들어 가며
 지 경 돌 에 발 다치리라
 번쩍 들어서 광 광 노 세
 봉 학 산 복 을 받아
 좌 우 청 룡 오 백 호 에
 노 적 봉 에 박 혀 으 니
 부 자 한 번 되 리 로 다
 소 산 에 올라 소 목 내 고
 대 산 에 올라 대 목 내 고
 한 머 리 에 서 른 세 명
 어 기 여 차 갖 다 놓 고

어떤 목수를	들 었 는 가	
선 자 편 수	김 목 수	
왼갓 목수를	대러다 놓고	
잡 은 나 무	굽 다 들 고	
굽 은 나 무	잡 다 들 고	
등글 목으로	집져 봅시다	
이 집 한 번	지 어 놓 고	
고 사 한 번	지내 봅시다	
없 는 정 성	있 는 정 성	
적 어 도	정 성 이 요	
커 도	정 성 이 요	
소 래 를	대래로 받고	
대 래 를	소래로 받고	
이 집 한 번	지 어 놓 고	
안 채 는	삼십 칸이요	
행 량 채 는	이십 칸이요	
오 십 칸 을	더렁지어놓고	
왼갓 입춘을	써 불 히 자	
어떤 입춘을	써 불 혀 나	
안 채 는	복 복 자 요	
행 량 채 는	용 용 자 요	
이 집 짓 고	이 터 전	
이 마 당 에	늘 어 주 고	
불 어 주 고	먹 고 남 고	
쓰 고 남 게	도 와 주 고	
삼 년 내 에	거 부 장 자	되 리 라
이 집 짓 고	대주님	네는
동쪽으로가면	동쪽장군님이	
복을 주시고		
집 으 로	들어 오시면	족재비 업은
물어 주시고	인 업 은	안아 들이고
잔 업 은	몽 처 들 고	개고리 업은
뛰 어 들 고	왼 갓 복 은	다들어 온다
이 집 한 번	짓 고 나 면	있는 얘기는

수명장수 없는애기
 발원할때 따님애기
 점지할때 복도많이
 점지하시오 아들애기
 점지할때는 명도많이
 점지하시오
 이집한번 지어놓고
 옥동같이 귀연애기
 정히점지 할때에는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겐 효자동이
 동네일신 우애하고
 일가친적 화목동이
 만첩산중 보배동이
 동네방네 귀염동이
 호박같이 둥근동이
 오색비단에 청색동이
 은자동아 금자동아
 옥동같이 귀연애기
 애지중지 키웠다가
 공부나 한번 가르쳐 보자 ~쉬~

*참 고

1) 끝부분의 쉬~는



보다 조금 높고



보다 조금 낮다.



사진 1. 최봉수옹(72세)



사진 2. 서재순옹(69세)



사진 3. 최수봉옹이 과거 일했던 채석장 터



사진 4. 구들장 터



사진 5. 현재의 석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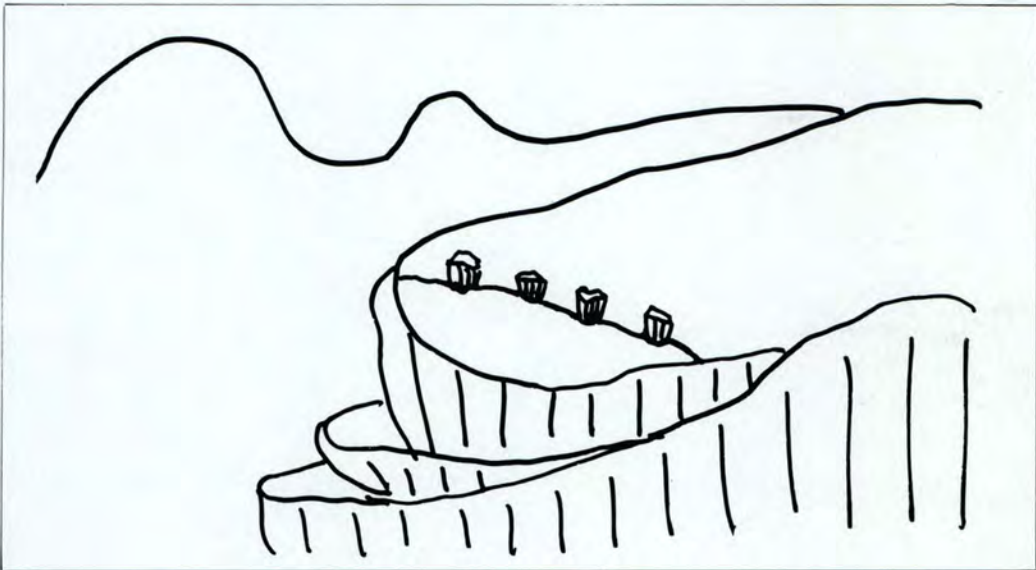


그림 1. 나무말뚝을 끼워 돌을 뜯어내는 작업의 상상도

안양문화원 향토사료 제 1집

안양의 역사와 문화

인 쇄 일 : 1998년 2월 20일

발 행 일 : 1998년 2월 28일

발 행 인 : 이상운

편 집 인 : 김병훈

편집간사 : 곽은영

연구조사 :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경식교수
안양시청 김지석 향토사료상임위원

협 조 : 안양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발 행 처 : 안양문화원

인 쇄 :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 02) 865-5072 FAX 02) 853-3679